책을 내면서

편집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동화들을 종합하여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1～5권)을 내놓게 됩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편집부는 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긴 동화들이 들어있는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 1, 2권을 먼저 내보냅니다.

1권에는 《범을 타고 온 소년》, 《불씨를 찾은 아왕녀》, 《나비와 수닭》을 비롯하여 9편의 동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화들에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며 슬기와 용맹을 키워 원쑤놈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고귀한 가르치심이 담겨져있습니다.

청소년학생들은 《백두산3대장군동화전집》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한편한편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게 될것입니다.

편집부는 청소년학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결사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편집부

차 례

어느 경치좋은 푸른 산기슭에 나비네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너울거리는 푸른 잎새들사이에 자리잡은 마을이였습니다.

이 마을에 노랑나비와 알락나비, 범나비네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푸른 나무잎으로 지붕을 덮고 꽃잎으로 벽을 두른 훌륭한 집이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올려다보면 푸른 지붕우에선 아름다운 꽃들이 반겨웃고 그우엔 해별이 쏟아져내리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있었습니다.

그들은 곱게 핀 꽃들과 설레이는 푸른 숲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꽃밭으로 날아다니며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이 꽃송이 저 꽃송이 바쁘게 찾아다니며 꽃가루도 솔솔 뿌려주고 꿀떡도 땄습니다.

꿀떡을 따면서 팔랑팔랑 춤도 추고 랄랄랄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은요 우리네 일터
철따라 피는 꽃들 방긋 웃지요
팔랑팔랑 춤을 추며 꿀떡을 따는
우리 사는 꽃마을 참말 좋아요

나비네들이 노래부르고 춤을 추면 꽃송이들과 푸른 잎들도 흥에 겨워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살던 나비네 마을에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생겼습니다.

어느 바람 한점 없는 잔잔한 날이였습니다.

별안간 푸른 잎 하나가 흔들거렸습니다.

꿀떡을 따던 노랑나비가 웬일인가 하여 돌아다보니 조그마한 메뚜기가 할딱거리고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니?》

《저걸 좀 봐!》

노랑나비가 바라보니 톱날같은 붉은 볏을 머리에 인 놈이 목을 길게 빼들고 성큼성큼 걸어오고있었습니다.

갈구리같은 발톱과 사나운 부리와 큰 날개를 가진 무서운 수닭놈이였습니다.

《아유, 저걸 좀 봐.》

노랑나비가 놀란 소리를 치는 바람에 곁에서 꿀떡을 따던 두 나비동무들도 그놈을 보게 되였습니다.

키가 껑충한 수닭놈이 꽃나무를 마구 헤치며 나비들한테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나비네 세 동무는 꽃송이에서 재빨리 날아올랐습니다.

수닭놈은 나비들을 놓친것이 화가 나서 온 몸뚱이의 깃털을 일으켜세우고 날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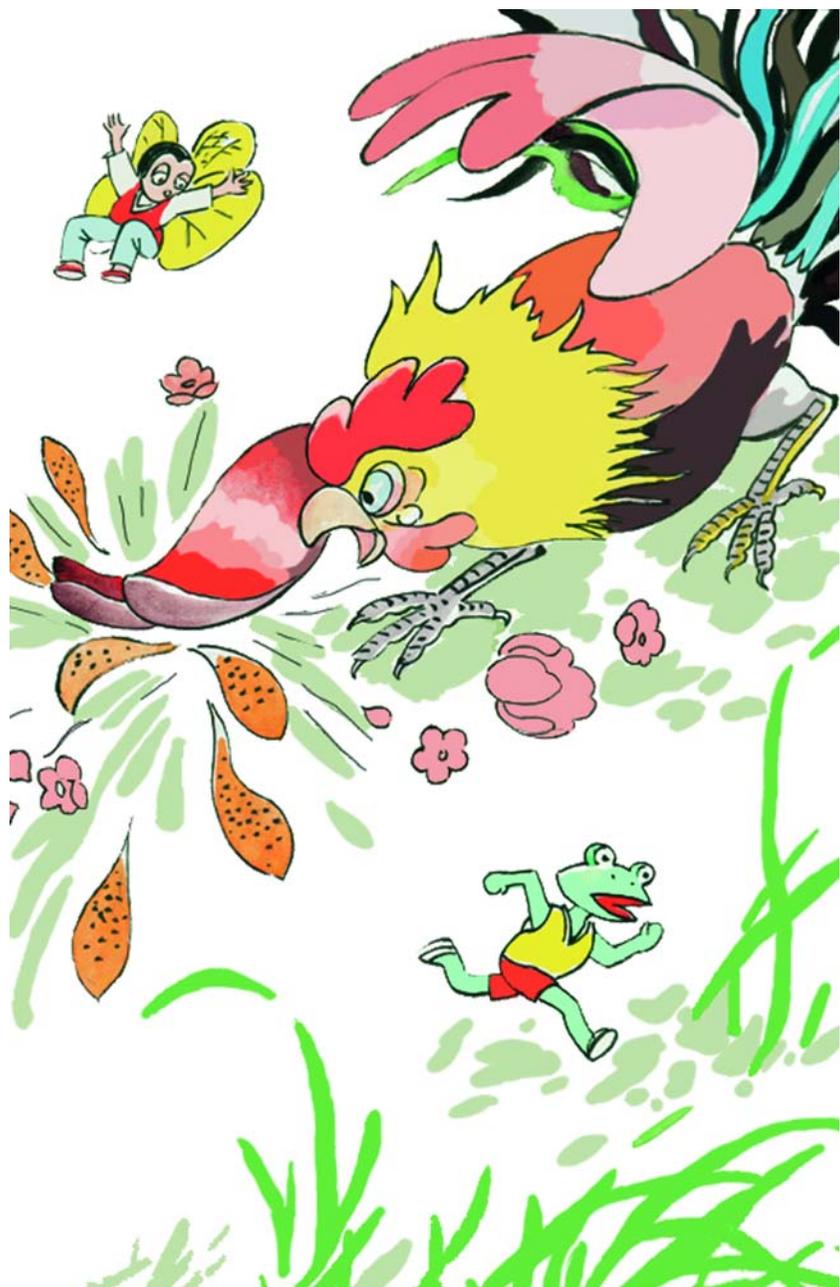
세찬 날개바람이 일어나며 꽃나무들이 이리 눕고 저리 누웠습니다.

그놈은 부리를 높이 쳐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꽃 한송이를 툭 쪼았습니다.

가엾게도 그 꽃송이는 목이 부러져 땅에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저런, 저걸 어쩌나?》

《아니, 저놈이 왜 남의 꽃밭에 뛰여들어 저 지랄일가?》

세 동무는 너무 분해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수닭놈은 땅에 떨어진 그 꽃송이를 훌떡 집어삼켰습니다.
《야, 저 죽일놈 좀 봐.》
범나비가 소리치며 발딱 일어섰습니다.
나비들을 놓쳐버린 수닭놈은 꽃송이를 삼킨것만으로는 화풀이가 되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꽃밭을 마구 짓이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부리로 꽃송이들을 닥치는대로 쪼고 갈구리같은 발톱으로 꽃나무뿌리를 파헤치자 꽃나무들이 이리저리 넘어졌습니다.
나비네 집 몇채가 무너져 많은 나비들이 죽고 몇마리의 나비들만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범나비는 《이건 정말 보고만 있을수 없어.》 하고 두날개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엄청나게 큰 수닭놈을 당해내기엔 너무도 작고 약한 나비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쁜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미를 가진 범나비는 《내 당장 저놈을 물리치고 올테다.》 하고 수닭놈을 맞받아 날아갔습니다.
범나비는 수닭놈의 긴 목을 감돌며 날개밑에 차고다니는 주머니에서 가루를 한줌씩 꺼내여 그놈의 눈에 뿌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랑나비와 알락나비는 너무도 아슬아슬하고 소름이 끼쳐 두눈을 딱 감았습니다.
푸드득 날개치는 소리에 깜짝 놀란 알락나비가 눈을 뜨고 바라보니 먼지가 자욱하게 떠올랐습니다.
범나비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수닭놈만 먼지속에 휩싸여 선자리에서 빙빙 돌고있었습니다.
차츰 먼지가 사라지자 풀밭에서 범나비가 푸득거리는게 보였습니다.

수닭놈의 날개에 얻어맞고 떨어진게 분명했습니다.

수닭놈이 목을 돌리기만 하면 범나비가 눈에 뜨일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노랑나비가 쏜살같이 날아내려가서 범나비의 손목을 이끌고 부리나케 씽 날아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나비네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닭놈이 매일같이 달려들기때문이였습니다.

꽃마을엔 날마다 소름이 끼치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나비네들은 불안과 슬픔에 잠겨 한시도 기를 펴고 살수 없었습니다.

꽃송이마다 꿀이 넘쳐나는줄 알면서도 그전처럼 마음놓고 나다니지 못했습니다.

틈만 보고있다가 살금살금 나다니며 꿀떡을 따다가 간신히 끼니를 에워나갔습니다.

꿀떡을 따는 나비들로 흥성거리던 꽃밭은 텅 빈것 같았습니다. 나비들이 팔랑거리며 날아오면 어서 오라고 반겨맞으며 방실방실 웃던 꽃송이들도 웃음을 거두고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가득찼던 나비네 마을엔 근심걱정으로 가득찬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범나비의 상처를 돌봐주고난 노랑나비가 《에이 속상해. 수닭놈을 빨리 물리쳐야 하루를 살아도 마음놓고 살겠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름에 잠겨 앉아있던 알락나비는 《나도 늘 그 생각이다. 그런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그놈은 너무도 크고 힘이 세니 말이야.》 하고 긴 한숨을 쉬였습니다.

노랑나비는 잠자코 있다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겠니? 그러다간 다 죽어.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찾아내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누워있던 범나비가 머리를 들고 반쯤 일어나 《옳아, 네 말이 옳아. 날 좀 보렴. 참을수 없어 욱 하고 맞받아나갔다가 이 지경이 된걸. 나처럼 싸워선 안되겠어. 무슨 수든 꼭 찾아가지고 싸워야지.》 하고 말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 정말 무슨 묘한 수가 없나! 그놈을 훅 불어 산너머 저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수 말이야. 에이참…》 하고 알락나비가 안타까운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말에 노랑나비는 실눈을 지으며 《찾아보면 있겠지. 어쨌든 무슨 묘한 수를 꼭 찾아보자꾸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비네 세 동무는 꽃마을을 지켜내기 위하여 궁냥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범나비는 앓으면서 생각하고 알락나비는 범나비의 상처를 돌봐주면서 생각하고 노랑나비는 들메나무 푸른 잎우에 앉아 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알락나비가 오늘은 무슨 수든지 꼭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범나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묘한 수가 잘 떠오르지 않아 한숨만 지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범나비는 근심이 되여 물었습니다.

《신통한 생각이 나지 않아 그래.》

두 동무가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노랑나비가 망을 보고있는 들메나무밑으로 수닭놈이 겁석겁석 걸어왔습니다.

그놈은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 날개를 치면서 날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도 날아다닌다는걸 보여주려나? 한번 구름만큼 날아오를셈인가?》

노랑나비는 이렇게 생각하며 날아오르는 수닭놈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세 아닌게아니라 대단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가 어찌도 요란한지 백리밖에까지도 들릴것 같았습니다.

우수수 설레이던 꽃나무들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런데 날개치는 소리만 요란했지 얼마 날아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몸뚱이가 무거워 그러는지 들메나무에 앉아있는 노랑나비의 발밑에도 닿지 못하고 푸드득거리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꼴을 내려다보던 노랑나비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보니 저놈은 들메나무 절반도 날아오르지 못하는 놈이였구나.》 하고 속삭이며 수닭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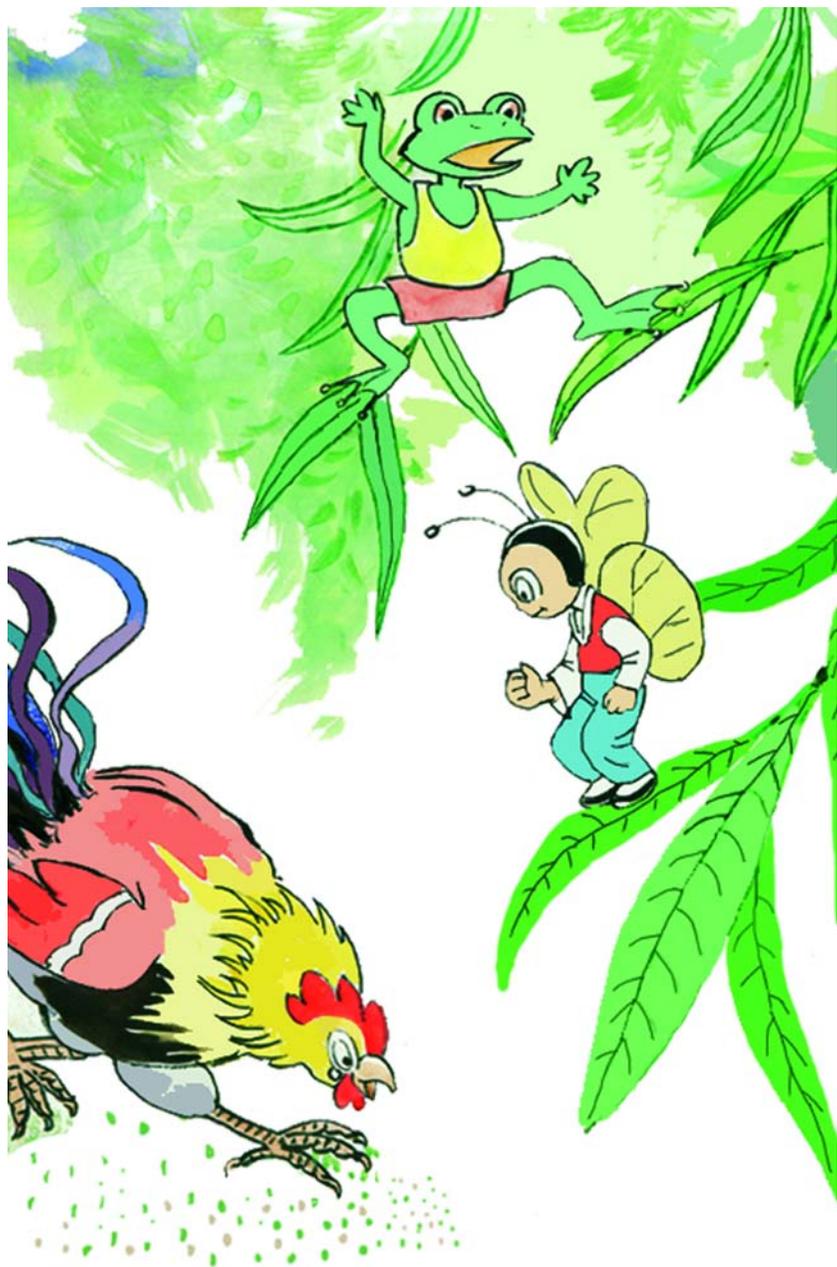
그놈은 다시한번 날개를 쳐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푸드득거리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옳지, 틀림없어! 저놈의 날개는 괜히 크기만 했지 아무 쓸모없는 날개였구나.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늘 걸어다니댔구나!》

노랑나비는 몸뚱이에서 두날개를 뚝 떼여던진 수닭놈의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알몸뚱이만 남은 수닭놈이 괜히 위엄을 뽐내며 꺽두룩꺽두룩 걸어가고있는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았다, 보았어! 나는 오늘 수닭놈의 큰 약점을 보았다. 우리 날개는 수닭놈의 날개에 비하면 비록 작은 날개지만 얼마나 훌륭한 날개냐! 흥, 네놈이 우리를 잡아먹

겠다구?》
이렇게 속으로 소리치며 팔랑팔랑 날아오르는 노랑나비의 머리에는 그놈을 쳐없앨 묘한 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노랑나비는 너무 기뻐 넓은 하늘을 한바퀴 돌고나서 동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노랑나비의 이야기를 듣고난 두 동무는 눈들을 반짝거리며 《그래, 그거 참 그럴듯한 수야.》, 《그거 참 좋아. 정말 그놈을 쳐부실수 있는 훌륭한 생각이야.》 하고들 기뻐했습니다.
알락나비는 너무 기뻐 요리조리 날아돌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수를 어떻게 찾아냈니?》
《어떻게 찾아내긴. 온 꽃마을이 노래부르며 살기 위해 기어이 그놈을 쳐없애야 되겠다고 가슴을 불태우며 찾고찾았지. 수닭놈이 나는것을 보다가 그놈보다 더 훌륭한 날개를 가지고있다는걸 깨달은 순간 글쎄 그 묘한 수가 떠오르더구나.》
《야!》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과 싸울 차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앓는 범나비도 알락나비도 싸우러 떠나는 노랑나비를 바래워주었습니다.
노랑나비는 팔랑팔랑 부지런히 날고날아 푸른 가지들을 길게 드리우고 서있는 버드나무앞에 이르렀습니다.
노랑나비는 버드나무잎새우에 가볍게 내려앉아 수닭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멀리 수닭놈이 걸어오는게 보였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을 바라보며 《이젠 저놈을 족쳐대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때 누구인지 《아니, 너 누굴 족쳐댄다고 그러니?》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냐?》
《나야, 나.》
《음, 청개구리로구나. 저기 오는 저놈 말이야.》
《뭐? 저 수닭을? 난 너희편이지만 그래 저놈과 싸워 이길수 있니?》
청개구리는 무척 걱정되는 모양이였습니다.
《고마와. 그렇지만 난 벌써 저놈과 싸울 결심을 다졌어.》
노랑나비는 나풀나풀 날아다니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또 누구인지 《너 무슨 일이 생겼니? 왜 자꾸 왔다갔다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냐?》
《목소리를 듣고도 모르겠니?》
《음, 베짱이로구나. 수닭놈과 싸우려구 여기저기 좀 살펴보는중이다.》
《저런, 네가 그 큰 놈을 족쳐댄다고? 난 너희편이지만 어쩐지 마음이 안놓이누나.》
베짱이는 근심되는 모양이였습니다.
《목숨을 내대고 한번 해보련다. 쉬, 저놈이 거의 다 왔다.》
어느새 수닭놈이 버드나무밑을 지나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노랑나비는 숨소리를 죽이고 수닭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닭놈이 목을 한발 빼들고 《어떻게 된셈이야. 오늘은 나비 한마리 얼씬하지 않는구나. 요놈들이 다 어디 가서 숨어있는 모양이지.》 하고 혼자 중얼댔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버드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노랑나비가 나무잎처럼 뱅글뱅글 돌며 풀밭우에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인가 쪼아먹던 수닭놈이 고개를 쳐들고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버드나무잎새우에 앉아서 내려다보던 베짱이는 《저걸 어쩌나. 수닭놈의 눈에 띄웠구나.》 하고 어쩔줄을 몰라하는데 청개구리는 울상이 되여 《큰일났구나! 하필 수닭놈 가까이에 내려앉을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닭놈이 성큼 한발자국 발을 옮겨짚었습니다.
《어마나, 저걸 어쩌나?》
베짱이도 청개구리도 놀란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닭놈은 아무리 보아도 나무잎같지 않던지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화닥닥 달려들어 툭 쪼았습니다.
순간 베짱이와 청개구리는《앗!》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팔랑거리며 날아오르는 노랑나비를 본 그들은 일시에 《살았구나!》 하고 손벽을 쳤습니다.
노랑나비는 두눈을 데룩거리며 서있는 수닭놈의 두리를 한바퀴 날아돌고나서 저만치 피여있는 하얀 딸기꽃우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수닭놈은 닭알침을 꿀꺽 삼키며 껑충껑충 달려가 또 툭 쪼았습니다.
《어마나!》
베짱이와 청개구리는 또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노랑나비는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노랑나비는 팔랑거리며 날아가다가 찔레꽃우에 내려앉았습니다.
수닭은 멍청하니 서서 두눈을 스르르 감고 머리를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모양이더

니 날개를 쩍 벌려들고 가만가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어쩌자는걸가?》 하고 베짱이가 바싹 다가앉으며 이상하다는듯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말이야.》

두날개를 잔뜩 펼쳐든 수닭놈은 노랑나비가 앉아있는 찔레꽃앞으로 다가가더니 별안간 탁탁 하고 날개를 냅다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걸 어쩌나?》

베짱이도 청개구리도 하마트면 뒤로 벌렁 나가넘어질번 하였습니다.

한참 날개를 치고난 수닭놈은 노랑나비가 자기 날개에 얻어맞고 땅바닥에 떨어졌으려니 생각하고 빙빙 돌아가면서 찾았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의 잔등우에 올라앉아 날개쉼을 하고있었던것입니다.

《야, 저 노랑나비 봐라. 수닭놈을 막 말처럼 올라탔구나!》

《노랑나빈 정말 용감해.》

수닭놈이 날개로 탁탁 후려치려고 할 때 노랑나비는 날개밑으로 살짝 빠져나와 그놈의 잔등우에 내려앉았던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이야.

내 날개에 구멍이 뚫어졌나.
고놈이 어디로 빠져나갔어? 고놈을 잡으면 발기발기 찢어놓을테다.》
노랑나비는 수닭이 약이 오를대로 올랐으니 이제부터 얼마든지 끌고다닐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랑나비는 드디여 그놈의 잔등을 떠나 쐐기넝쿨이 있는 언덕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닭놈은 목을 길게 뽑아들고 쐐기넝쿨이고 뭐고 마구 짓밟아헤치며 노랑나비를 쫓아갔습니다.
노랑나비는 언덕우에 피여있는 빨간 나리꽃우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수닭은 날개를 치며 언덕으로 뛰여올라갔습니다.
수닭이 나리꽃을 덮쳤을 때에는 이미 노랑나비가 거기 없었습니다.
노랑나비는 또 어느새 푸른 하늘을 날고있었습니다.
노랑나비를 잃어버린 수닭놈은 입을 쩍 벌리고 씨근거렸습니다.
어디선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은요 우리네 일터
철따라 피는 꽃들 방긋 웃지요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졌던 노랑나비가 산들바람에 너울거리는 길다란 잎새들 한가운데 곱게 피여있는 붓꽃우에 올라앉아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아니, 조놈이. 언제 또 저기 날아가 앉았나?》
수닭은 붓꽃이 피여있는 못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이 다가오고있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있었습니다.

팔랑팔랑 춤을 추며 꿀떡을 따는
우리 사는 꽃마을 참말 좋아요

《흥, 꿀떡 따는 마을이 좋다구? 어디 실컷 좋아해보아라. 이번엔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수닭놈은 이렇게 코웃음치며 후닥닥 뛰여올라 나비를 꽉 덮쳤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또 온데간데 없고 날개를 펼쳐든 수닭은 너울거리는 붓꽃잎들을 한아름 그러안은채 못에 첨벙 곤두박혔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간 수닭놈은 물만 꿀깍 들이키며 푸푸 하다가 겨우 언덕으로 기여나왔습니다.

수닭놈의 꼴은 정말 망측했습니다.

감탕물로 뒤범벅이 된 두날개는 축 늘어지고 붉은 볏도 볼꼴사납게 되였습니다.

수닭은 지쳤는지 풀밭에 주저앉아 젖은 몸뚱이와 감탕물로 뒤범벅이 된 날개를 해볕에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수닭이 날개를 말릴 짬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노랑나비는 그놈 가까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수닭놈은 심드렁해서 멍하니 쳐다볼뿐이였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놈의 코앞에 핀 초롱꽃둘레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수닭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로 조금 물러앉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넌 어쩌면 그렇게도 춤을 잘 추니. 내 어깨가 막 들먹거리누나. 그런데 좀 가까이 와서 추려무나.》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춤을 좋아하는줄 알았더라면 진작 가까이 와서 추어드릴걸 그랬어요.》

노랑나비는 수닭의 머리우를 감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

니다.

수닭은 껑충 뛰여올라 톡 쪼아먹을 틈만 노리면서 춤을 추며 도는 노랑나비를 따라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지럼증이 나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 이거 춤구경이 좋긴 한데 하늘땅이 빙빙 돌아 못보겠구나. 얘, 인젠 춤일랑 그만두고 어디 노래나 한마디 불러주렴.》

《멀리서 부를가요, 가까이에서 부를가요?》

수닭의 머리우를 감돌며 춤을 추던 노랑나비는 엉겅퀴잎우에 내려앉아 날개쉼을 하면서 비위를 돋구어주었습니다.

《그거야 물어보나마나지. 가까이 와서 불러주렴. 땀을 빼고나니 귀가 멍멍해서 그런다. 가만, 그럴것 있니. 아예 내 부리에 앉아서 불러주렴.》 하고 수닭은 수선을 떨었습니다.

노랑나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가까운 곳에서 불러드리겠어요.》 하고 말하며 엉겅퀴잎에서 팔랑 날아올라 톱날처럼 삐죽삐죽 날이 선 수닭놈의 볏우에 살짝 내려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비의 몸에서는 꿀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수닭은 그 달콤한 꿀냄새에 밸이 뒤집혀 죽을 지경이였습니다.

그러나 수닭놈은 점잔을 빼며 《이 철딱서니없는것아, 례절이야 지켜야지 남의 볏을 밟고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는 법이 어디 있니. 그건 모자나 같은거야. 어서 내 부리로 내려오라는데두…》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인데 왜 자꾸 내려오라고 그래요. 난 여기서 부르겠어요. 그까짓 부리가 여기만 할라구요.》 하고 노랑나비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닭은 약이 올라 씨근거리며 《내려오라면 내려올게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니?》 하고 버럭 성을 내며 껑충 뛰여올랐습니다.

노랑나비는 수닭이 성을 내건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놈의 볏우에 그냥 오똑 서있었습니다.

수닭은 별안간 노랑나비가 서있는 자기 볏을 이리저리 흔들며 땅에 털썩 모로 눕더니 디굴디굴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수닭놈의 볏우에서 날아오른 노랑나비는 딩굴고있는 그놈의 두리를 날아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닭놈이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에그머니, 혼났다. 노래구 뭐구 간떨어지겠다.》 하고 소리치며 그놈의 키만큼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수닭놈의 눈을 살짝살짝 건드리며 부리앞으로 팔랑팔랑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수닭놈의 뜨거운 입김이 나비의 날개에 풍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이크－》 하고 더 빨리 날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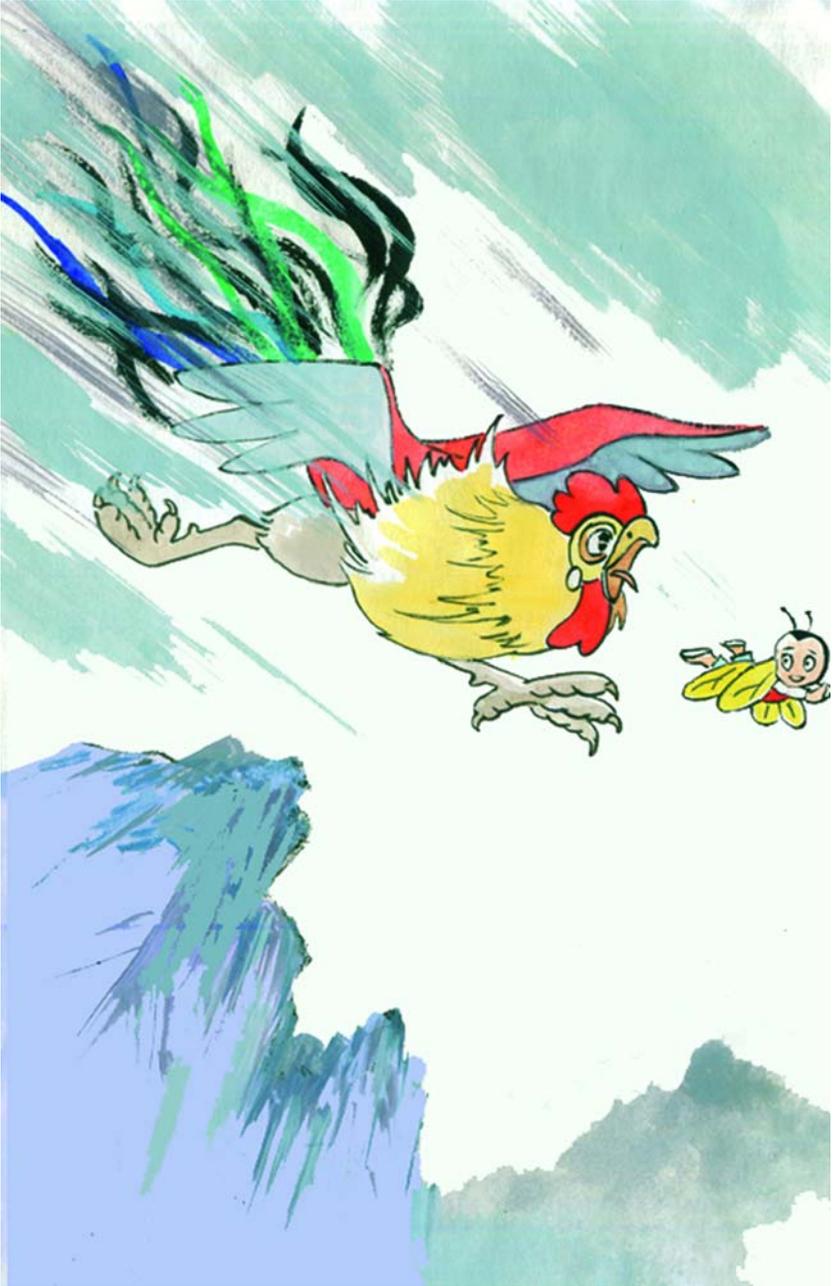
그러면 수닭놈의 거칠은 숨소리가 좀 멀어지군 하였습니다.

노랑나비의 얼굴도 잔등도 온통 땀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돌아보며 날고 또 날아야 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노랑나비는 날개죽지가 나른해져서 더는 날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래주던 동무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들과 함께 꿀떡을 따던 꽃밭이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이대로 수닭놈을 돌려보내면 사랑하는 동무들과 아름다운 꽃동산이 또 화를 입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놈을 돌려보낼수 없다.)

노랑나비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번이나 노랑나비를 쪼을번쪼을번 하다가 놓쳐버린 수닭놈은 어찌도 분하고 악이 났던지 칼날바위에 부딪쳐 발가락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줄도 모르고 기를 쓰고 따라갔습니다.

노랑나비는 땀을 훔치고 이를 악물며 가시밭을 지나고 바위길을 지나 높이 솟은 벼랑턱으로 날아갔습니다.

수닭은 방금 숨이 넘어갈듯 헐떡거리면서도 눈앞에서 나풀대는 노랑나비를 꼭 잡을것만 같아 눈이 빨개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노랑나비의 한쪽날개에 수닭놈의 사나운 부리끝이 닿았습니다.

수닭놈은 발밑에 땅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미처 내려다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나비를 덮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훌쩍 뛰여올랐습니다.

온몸이 허공에 뜨는것 같더니 몸뚱이가 거꾸로 처박히며 거침없이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금시 뒤집히는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닭놈은 두날개를 푸득거리며 용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찔레나무가시에 긁히고 흙탕물에 범벅이 되여 천근무게로 무거워진 날개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짐이 될뿐이였습니다.

수닭은 그만 정신을 잃고 어디엔지 나가떨어졌습니다.

우지끈— 하고 대가리가 무엇에 부딪치는 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굳은 바위에 대가리를 짓찧은 수닭은 《꼬끼요—》 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너부러진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꽃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워온 노랑나비는 드디여 그 나쁜 수닭놈을 천길벼랑아래로 떨어뜨리고야말았습니다.

수닭놈은 나비를 삼키려다가 결국 나비에게 먹힌셈이 되였습니다.

몸은 비록 작지만 수닭놈과 같이 큰 놈을 쳐없앴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새힘이 솟아올라 노랑나비는 춤을 추며 하늘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꿀떡을 따며 노래부르던 아름다운 꽃마을이 그지없이 정답게 한가슴에 안겨왔습니다.

알락나비는 너무도 기뻐 《야—》 하고 환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앓고있던 범나비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노랑나비를 축하하려고 달려나왔습니다.

버드나무에서 만났던 베짱이와 청개구리도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솟구쳐오르는 감격을 쏟을길 없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래하자 동무야 착한 동무야
우리는 꽃마을 지켜냈다네
팔랑팔랑 날개는 작고작지만
큰 날개 가진 놈 물리쳤다네

해님도 기뻐 웃으며 따스한 볕을 뿌려 축하해주고 시내물도 기뻐 졸졸 노래하며 흘러갔습니다.

통쾌하고도 기쁜 이날의 소식은 삽시간에 멀리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뒤부터 나비네 꽃마을에는 그 어떤 놈도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나비네들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더욱 즐겁고 보람찬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범을 타고 온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서 두 사내아이가 한날한시에 태여났습니다.

그들은 신통히도 둘다 3대독자 외아들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서발막대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는 가난뱅이 농부의 자식이였고 다른 아이는 돈과 재산이 너무 많아 얼마인지도 모르는 부자집자식이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차돌같이 단단하라고 이름을 차돌이라고 지었고 부자집아들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덕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집에서는 다같이 때늦게 본 자식이라 손안에 든 구슬처럼 귀하게 길렀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애지중지 기른 덕에 두 집 아이는 병이 없이 무럭무럭 잘도 자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더니 어느덧 동네아이들과 뛰여다니며 놀게 되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도, 돈많은 부자집에서도 귀염둥이 자식을 두고 언제나 웃음이 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차돌이 어머니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황소만한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멍석우에서 자고있는 차돌이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애의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는것이였습니다.

그바람에 낮잠을 자고있던 차돌이가 깨여나 눈을 반짝 떴습니다.

차돌이는 호랑이를 보고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쌔물쌔물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웃는 차돌이를 안아일으켜 자기 무릎우에 앉히더니 앞발로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차돌이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 어쩌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차돌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난 범바위골에 사는 호랑이입니다. 이애가 크면 어진 사람이 되겠은즉 열다섯살까지만 잘 키우면 그해엔 알도리가 있을것입니다.》

《예?》

차돌이 어머니가 와뜰 놀라 깨여나보니 그것은 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날밤 복덕이 어머니도 차돌이 어머니와 신통히도 똑같은 꿈을 꾼것이였습니다.

부자인 복덕이 아버지는 로친의 꿈이야기를 듣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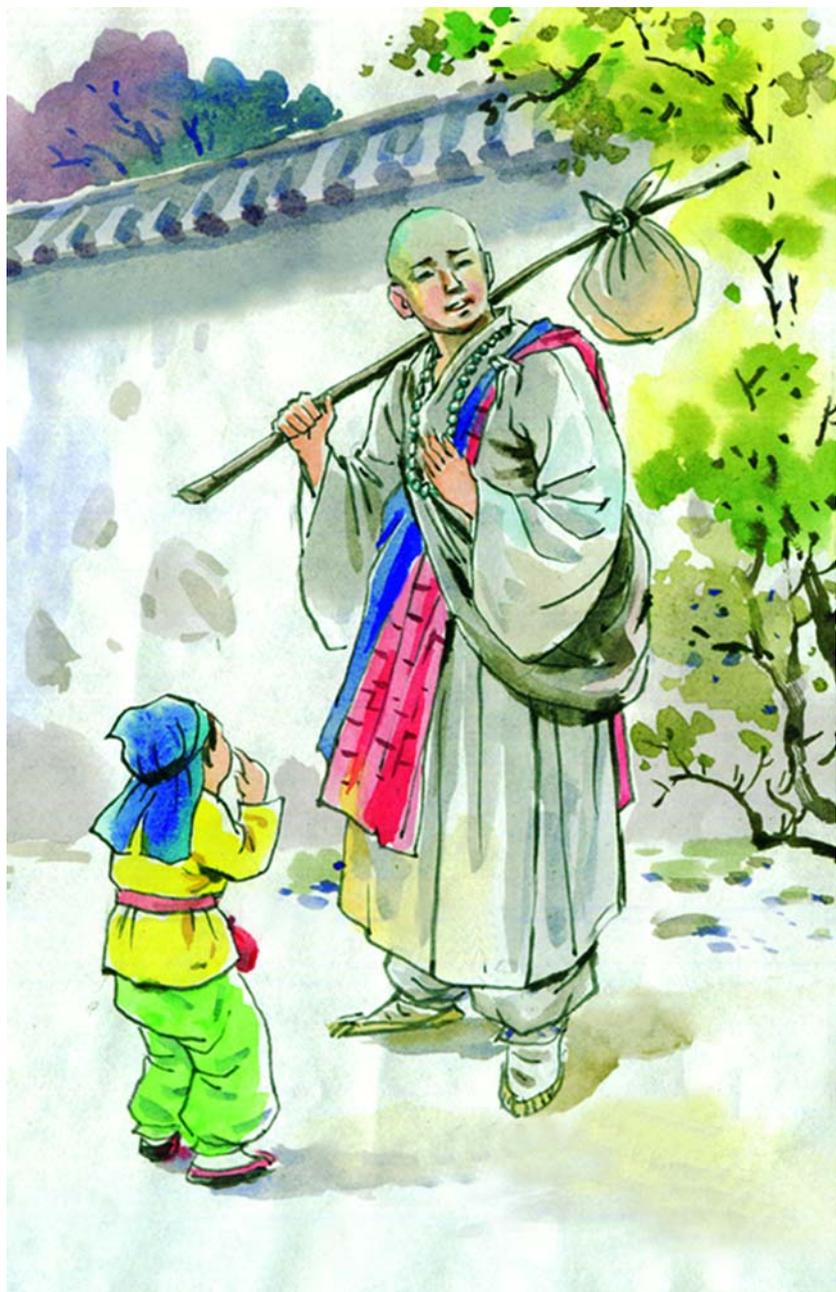
《예로부터 꿈에 범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 하였으니 그 꿈은 분명 우리 복덕이가 열다섯살이 되는 해에 장원급제한다는 뜻일거요. 허허허.》

범꿈을 꾼 두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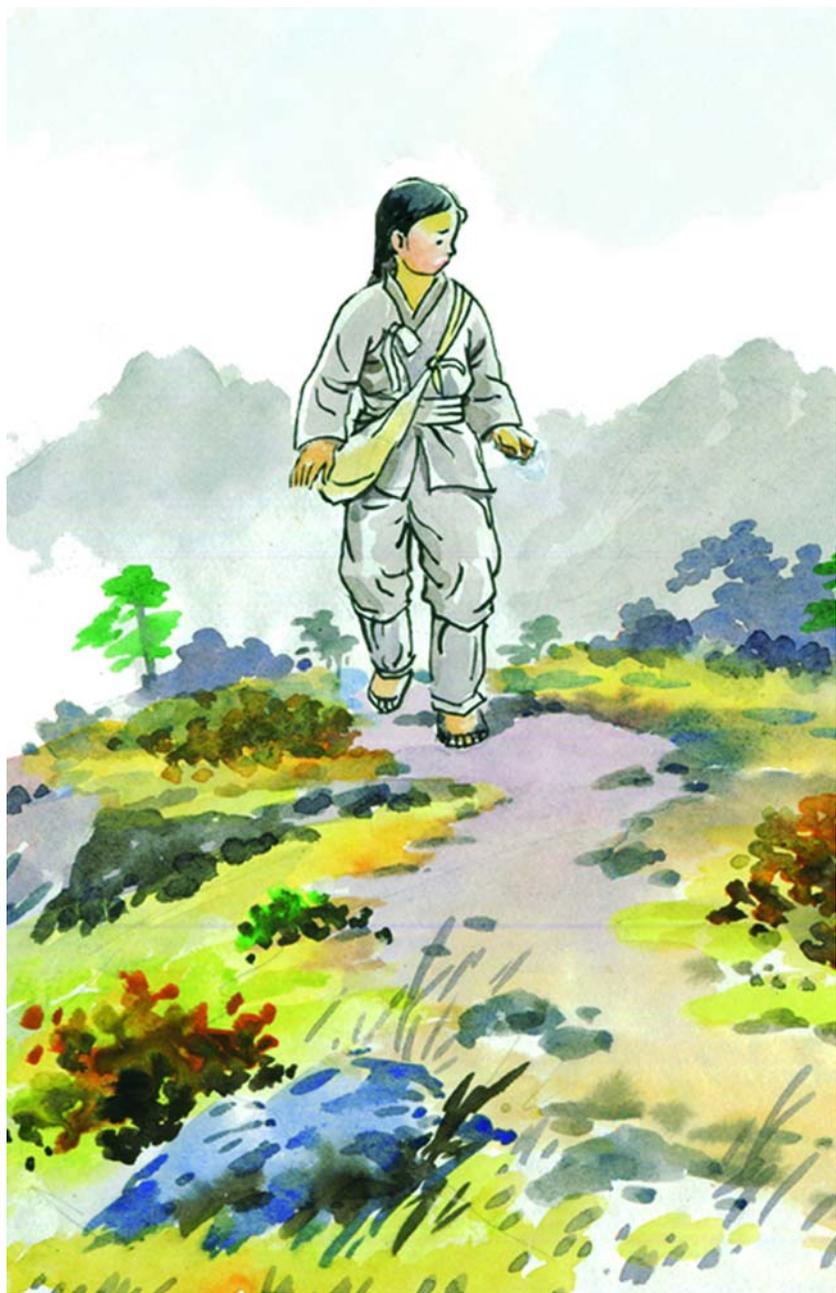
마을에 검은 장삼을 입고 붉은 가사를 걸친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타났습니다.

부자집에서는 그 중을 청해들여 엊그제 꾼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꿈이겠지만 해몽을 잘한다는 중의 말을 듣고싶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중은 꿈이야기를 잠잠해듣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는것이였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참 기이한 일도 있구나.》
중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상한 생각이 든 복덕이 아버지는 중에게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중은 한동안 목에 건 념주를 만지작거리더니 슬쩍 말을 돌려 딴전을 부렸습니다.
《이 댁 도련님의 관상을 보니 참으로 호남아로소이다. 머리는 범대가리같고 팔은 원숭이팔이요, 곰의 허리에 봉의 눈섭이라, 장차 천하를 다스릴 큰 인물이 되겠은즉 말그대로 들어오면 재상이요 나가면 장수가 될 인재로소이다.》
명주실꾸레미 풀리듯 슬슬 엮어나가는 중의 말에 복덕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 입이 귀밑까지 벌어졌습니다.
헌데 중은 또 한숨을 푹 내쉬였습니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복덕이 아버지, 어머니는 겁난 눈길로 중의 입만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의 관상은 나무랄데없이 좋으나 어머니가 꾼 꿈이 하도 불길하니 차마 이 입으로 번지기가 어렵소이다.》
《뭐라구요?》
복덕이 부모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습니다.
《꿈에 범이 나타난것은 좋은 일이나 그 범이 아이를 안고 어진 사람이 될것이라 하였은즉 사람인(人)자에 어질량(良)자를 합치면 먹을식(食)자가 되옵니다. 그러니 호식— 즉 범의 먹이라는 뜻인데 나이 열다섯살이 되는 해

생일날에 범에게 잡혀먹힌다는 예고를 미리 내린것이옵니다.》
《예? 그럼 저 차돌이네도 같은가요?》
《차돌이라니요?》
《우리 동네에 복덕이와 한날한시에 낳은 차돌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애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게 아닙니까. 다른 동네에도 이 댁마님과 똑같은 꿈을 꾼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해몽을 해주었는데 또 이 동네에서 같은 꿈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신기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중의 말이 끝나자 복덕이네 집에서는 높은 곡성이 울렸습니다.
《아이고ㅡ 이게 웬일이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범에게 잡혀먹히게 된단 말이요? 아이고ㅡ》
한동안 울고불고하던 복덕이 어머니는 중의 가사자락을 붙잡고 애걸복걸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액풀이를 할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복덕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은 복덕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절 부처님은 령험한분이여서 무엇이나 빌어서 안되는 일이 없고 원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절에 시주를 크게 하고 지성으로 비시면 액풀이를 할것이외다.》
복덕이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고마와 중에게 많은 돈과 금붙이를 시주하였습니다.
복덕이네 집에서 중이 꿈을 해몽한 소식을 들은 차돌이 아버지, 어머니는 마주앉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차돌이네는 중의 등에 진 자그마한 바랑에 넣어줄 쌀 한되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차돌이의 액풀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이닥칠 화를 뻔히 알면서도 그 화가 오길 기다려야만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인 복덕이네는 다음날 또 더 많은 돈과 금붙이를 시주하고 그날부터 매일 절간에 올라가 불공을 드리였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복덕이 아버지는 머리를 싸쥐고 궁리하고 궁리하던 끝에 무쇠로 집을 지으면 범이 달려들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내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담. 허허허…》
령감은 좋아서 제 생각을 로친에게 말하였습니다.
로친은 령감의 말을 듣더니 펄쩍 뛰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 귀한 도련님을 그래 중한 죄를 진 놈처럼 무쇠집에 넣는단 말이요? 안될 말씀이외다. 황금집에 넣는다면 몰라도.》
로친의 말에 펀뜻 생각이 떠오른 령감은 《옳지, 그러면 황금집을 지읍시다그려. 복덕이를 위해서라면야 무엇이 아깝겠소. 황금으로 집을 지으면 아마 범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것이 아니겠소. 허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집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복덕이가 들어가있을 집을 금으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목수와 금, 은세공사들을 불러다가 금기둥에 금지붕을 얹고 금으로 문을 해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가난한 농부인 차돌이네는 근심만 하다가 돌로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돌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마당에는 돌담을 두르고 돌대문을 해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쪽에는 금집이 솟아나게 되였고 다른쪽에는 돌집이 솟아나게 되였습니다.
부자집에서는 금집을 지어놓고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

아 안절부절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금으로 갑옷을 해입히면 범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집에서는 또 금갑옷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금집을 짓는데 많은 재산을 쓰다나니 그렇게 많던 돈도 모자라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집에서는 돈을 꿔오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자집에서는 많은 빚을 지면서도 복덕이에게 금으로 갑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는사이 세월은 퍼그나 흘러 두 집 아이들의 나이가 어느덧 열다섯살이 가까와왔습니다.
그동안 차돌이네는 겨우 돌로 오두막을 지어놓고 범한테 잡혀먹히우게 될 아들의 운명이 걱정스러워 늘 수심에 잠겨있었습니다.
나이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한숨만 자주 쉬는것을 이상하게 여겨오던 차돌이는 어느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한숨만 쉬십니까?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인젠 철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더 숨길수 없어 차돌이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차돌이는 모든 사연을 다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디엔가 갔던 아버지가 급히 집으로 달려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차돌아, 내 말을 듣거라. 그 어디엔가에 신기한 참대숲이 있는데 거기서 자란 참대로 만든 창만 있으면 그 어

면 범도 범접하지 못한다누나. 그 요술참대창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있어 저절로 날아다니며 달려드는 범을 요정낸다누나.》

《정말이예요? 당장 그 신기한 참대숲을 찾아가겠어요.》

이튿날 차돌이는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차돌이는 신기한 숲이 있는 고장을 찾기 위해 정처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려 알아보고 저 마을에 들려 물어보았습니다.

《신기한 참대숲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을에 들려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도 역시 《옛말로는 들었는데 실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무연한 들판을 걸어가던 차돌이는 길가에 있는 한 농가집 앞마당에서 빈 바가지를 들고 한숨만 쉬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차돌이는 웬일인가 하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알고보니 왕가물이 들어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물이 없어 온 가족이 모두 죽게 되였다는것이였습니다.

마을도 아닌 한집밖에 없는 외딴 고장이라 그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대숲을 찾기 위해 갈길이 바빴으나 마음착한 차돌이는 차마 그냥 지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네 식구들을 도와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물을 한길두길 깊이 파들어갈수록 흙을 퍼내는 일과 우물벽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돌을 쌓는 일이 여간 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돌이는 힘든 내색을 조금도 하지 않고 도르래를 만들어 흙을 밖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돌을 깎아 하나하나 쌓아올리면서 계속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애써 공들인 보람이 있어 마침내 땅속에서는 맑은 물이 솟구쳐올랐습니다.

할머니와 그 가족들은 모두 물을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차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이 신세를 어떻게 갚겠나? 그런데 젊은이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차돌이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참대숲이야긴 나도 언젠가 들은것 같네. 여기서 저 남쪽으로 아흔아홉고개를 넘어가면 있다고 하던데 잘 모르긴 하겠네. 난 임자에게 아무것도 도울것이 없으니 우리 가문이 대대로 물려오는 이 바가지나 가져가게. 그곳까지 먼길을 가느라면 요긴하게 쓸데가 있을걸세.》

차돌이는 할머니가 주는 바가지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 바가지는 쇠처럼 단단하여 절대로 깨질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차돌이는 할머니와 그 가족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물을 파준 다음부터 온몸에서는 힘이 부쩍부쩍 솟았습니다.

참대숲을 찾아 걷고 또 걸어가던 차돌이는 어느 높은 령밑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번엔 소발구를 앞에 세워둔채 지팡이를 쥐고 시름에 잠겨 령마루를 쳐다보고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차돌이는 령마루를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있는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나? 중병에 걸린 우리 손자녀석을 태우고 의원을 찾아가는 길인데 어제밤 소낙비에 사태가 져서 령을 넘는 외통길이 막혔다네. 병이 위급해 래일아침전으로 손쓰지 않으면 우리 손자녀석은 죽은 목숨일세. 하늘땅이 꺼진들 이보다야 더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가긍하였습니다.

소발구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손자애의 신음소리는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차돌이는 갈길이 바빴으나 이번에도 할아버지를 도와 묻혀버린 령길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깎아지른듯한 두 절벽사이에 난 길은 바위가 무너져내려 돌로 가득 메워져있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돌을 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팔을 걷고 도와나섰습니다.

차돌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땀을 철철 흘리며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돌은 들어내여 멀리로 집어던지고 큰 바위돌은 어깨를 들이밀어 안깐힘을 써서 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맨손으로 일을 하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느라니 손톱은 다 닳고 어깨에선 살가죽이 벗겨져 피

가 흘렀습니다.

어느덧 밤은 퍼그나 깊었습니다.

아직도 쌓인 돌은 절반도 쳐내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쳐 쓰러졌고 차돌이도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묻혀버린 저 길을 아침까지 다 쳐낼수 있을가?)

차돌이는 큰돌우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였습니다.

사방은 괴괴하였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만이 하늘중천에 높이 떠서 차돌이네를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돌돌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람타고 들려왔습니다.

차돌이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개울에 꿇어엎디여 물을 꿀꺽꿀꺽 마시였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에 찬 바가지생각이 나서 그것으로 물을 떠서 마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가요?

그 바가지로 물을 떠마셨더니 갑자기 가슴이 쩡— 열리고 물이 달고 향기로와지는것이였습니다.

온몸에서는 피곤이 일시에 풀리고 새힘이 솟구쳐올랐습니다.

(보통바가지가 아니로구나.)

차돌이는 그 바가지로 개울물을 한가득 떠다가 할아버지에게 드리였습니다.

물을 마시자 할아버지도 새힘이 솟는지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나 일손을 잡았습니다.

차돌이와 할아버지는 일을 걸싸게 해댔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준 신기한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면 금시 피곤이

사라지고 새힘이 용솟군 하였으니까요.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해떠오를무렵 드디여 막혔던 령길이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정말 수고했네. 이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애녀석이 목숨을 건지게 됐네. 우리 가문이 대를 잇게 되였단 말일세. 헌데 젊은인 어디로 가는 길인가?》
차돌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뿔싸, 내가 그만 바쁜 길을 지체시켰구만. 그런 참대숲이 있다는 말은 내가 아이적에 들은 일이 있네. 여기서 아흔아홉고개 넘어가면 있다고 하던데 실은 잘 모르겠네.》
《또 아흔아홉고개요?》
《그렇네. 거기까지 가자면 아직도 먼길이니 이 지팡이라도 가져가게.》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 지팡이야 할아버지가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임자에게 무엇을 아끼겠나? 내 손에 쥔것이 없어 그러니 이거라도 어서 받게. 먼길을 가는데 필요할걸세. 나야 아무 막대기나 하나 꺾어짚으면 되지.》
할아버지가 간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차돌이는 할수없이 지팡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차돌이 손에 쥐여지자 신기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는 깃처럼 가벼운데 그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으면 아무리 멀리 가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차돌이는 그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굵은 나무와 이마를 지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마는 조금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굵은 나무가 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차돌이는 신기하여 팔다리를 움직여보았습니다.
령길을 내준 다음부터 힘은 또 곱절이나 세지였던것입니다.
그는 참대숲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집에 들려서는 장작도 패주고 일손이 바빠하는 사람을 만나면 밭일도 해주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은 더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차돌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참대숲에 대해 물었으나 그 누구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느라니 집을 떠난지 벌써 여러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날 산기슭을 걸어가던 차돌이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차돌이는 황급히 달려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등에는 질통을 지거나 목고채를 메였는데 입술은 마르고 터서 피가 내배였습니다.
차돌이는 할머니가 준 바가지로 샘터에서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먹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을 번쩍 뜨더니 하나둘 자리를 차고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돌이가 영문을 몰라 그들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들중 제일 나이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고맙네. 임자같은 귀인을 만났기망정이지 참으로 큰일날번 했네. 우리 마을은 기름진 고장이라 해마다 곡식이

잘되긴 하는데 바다바람이 불어와 농사를 망쳐놓군 한다네. 그래 이 산을 저 바다가에 옮겨놓아 바람을 막자고 온 마을이 떨쳐나섰는데 죽기내기로 일을 하다나니 모두 쓰러지고말았네. 젊은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나? 아무래도 사람힘으론 이 산을 옮길것 같지 못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도와드릴테니 다같이 힘을 합쳐 산을 옮깁시다.》

차돌이는 이렇게 말하고 제먼저 팔을 걷고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차돌이를 따라 일손을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차돌이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름드리나무를 처음엔 한그루씩 통채로 떠서 나르고 그다음엔 두그루씩 나르고 그다음엔 세그루씩 단번에 날랐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은 점점 더 세지였습니다.

마을사람들도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고 팔뚝에 기운이 뻗쳐 일을 억척같이 해나갔습니다.

한달동안 흙을 나르고 돌을 쳐내니 이번엔 굉장히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끔쩍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위를 앞에 놓고 어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때 차돌이가 할아버지가 준 지팽이로 그 바위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지팽이에 맞은 그 바위가 쩍 뻐그러지는것이였습니다.

또 한번 내리치자 이번엔 더 작게 깨여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달라붙어 깨여진 바위들을 져날랐습니다.

차돌이도 마을사람들도 모두 힘을 합쳐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해대니 석달열흘만에 드디여 산을 바다가에 옮겨놓고야말았습니다.

바위는 바위대로 그냥 옮겨놓았고 흙은 흙대로 그우에 그 모양으로 덮어놓았습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조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통채로 옮겨놓았습니다.

마을로 불어오던 바다바람은 산에 부딪쳐 다시 바다로 불어갔습니다.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인 마을은 아늑한 고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덧 차돌이는 집채같은 바위도 씽씽 들어올리는 힘장사가 되였습니다.

《인젠 우리 마을에 대풍이 들게 됐네.》

《그게 다 이 젊은이의 덕일세.》

마을사람들은 차돌이를 둘러싸고 저마다 수고가 많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차돌이를 위해 큰 잔치를 차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차려준 상을 받고보니 차돌이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생각이 나고 떠나온 고향마을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집을 떠난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손가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아차, 이제 사흘만 있으면 열다섯살이로구나.)

차돌이는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제 생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신기한 참대숲을 찾아다닐 기일이 더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참대숲을 찾다가 끝내 찾지도 못하고 범에게 잡혀먹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부모님들을 볼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섬찍했습니다.
이때 《아저씨! 힘장사아저씨! 어서 잡수세요.》 하는 아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에서 깨여난 차돌이는 그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힘장사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힘이 세졌나요?》
그애는 머루알같은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습니다.
차돌이는 그저 씽긋 웃어보였습니다.
《아저씬 힘장사니까 무서운게 없겠어요.》
그애는 차돌이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구. 난 무서운게 하나도 없단다.》
이렇게 대답한 차돌이의 머리속엔 무엇인가 펀뜻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렇지, 힘장사인 내가 무서울게 무엇인가? 무서운게 없다면 신기한 참대창은 해 무엇하겠는가? 그래 나의 이 힘으로 범과 맞서볼수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점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범과 싸워 결판을 내자. 산도 옮긴 내가 아닌가!)
갑자기 그의 온몸에선 힘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한시바삐 고향으로 돌아가고싶어졌습니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바다가마을사람들은 떠나려는 차돌이를 붙들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차돌이는 그들에게 모든것을 사실그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럼 참대숲을 찾아가는 바쁜 길에 우리를 도와주었단 말인가? 그 참대숲은 바로 저기 고개를 세개만 넘으면 있

다네.》
마을의 좌상로인이 탄복한 얼굴로 차돌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돌이에게 어떻게 인사를 차렸으면 좋을지 몰라하다가 자기들이 신기한 참대숲에 가서 참대를 베여오겠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차돌이는 그러는 그들을 굳이 말리였습니다.
《일없습니다. 이젠 요술참대창이 없어도 제힘으로 범을 이겨낼수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차돌이를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정이 들었던 바다가마을사람들과 헤여져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손에는 지팽이를 쥐고 허리에는 바가지를 차고 범이 달려들면 요정을 내리라 마음다지며 숲속길을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차돌이는 천길벼랑우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게 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폭포앞 흰 바위우에 웬 처녀가 속치마바람으로 앉아 물 한사발을 떠놓고 비는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웬 처녀일가?)
차돌이가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저쪽에서 처녀의 어머니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올라오더니 칼끝으로 그 물을 휘젓다가 딸의 머리우에 뿌리는것이였습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차돌이는 갈길이 바빠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어머니가 먼저 차돌이를 발견하고 화뜰 놀라더니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아이고— 이젠 우리 딸은 영낙없이 죽었구나. 하늘도 무심하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을 범한테 잡혀먹히게 하다니. 아이고—》

자기를 보자 어머니가 통곡을 하니 차돌이는 웬 영문인지 알수 없어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 외딸이 운수가 사나와 열다섯살되는 해 생일날에 범바위골범한테 물려가 죽을 팔자를 타고났네. 그래 백날치성을 드리면 그 액풀이를 하여 화를 면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마지막치성을 드리는데 외간남자가 난데없이 치성터에 나타났으니 이젠 부정을 탈대로 탔네. 그러니 백날치성 드린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이고— 우리 딸은 이젠 죽었구나.》

차돌이는 너무도 억이 막혀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등뒤에서 《따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나는쪽을 돌아보니 맞은켠 절벽우에 황소만한 큰 범 한마리가 떡 버티고앉아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처녀를 노려보고있었습니다.

범의 아가리는 산도 통채로 씹어삼킬듯싶었습니다.

《이놈, 마침 잘 만났다!》

불을 내뿜는듯한 범의 성난 눈길과 마주치자 차돌이는 조금도 겁을 먹지 않고 지팽이를 허리에 지른채 맨주먹바람으로 범을 맞받아나갔습니다.

《이놈아! 나와 한번 겨뤄보자!》

차돌이는 벽력같이 소리질렀습니다.

범은 《따웅!》 하고 울부짖으며 사나운 발톱으로 차돌이를 덮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날쌔게 몸을 피하며 손을 뻗쳐 범의 멱살을 쥐려고

하였습니다.
범은 앞발로 차돌이의 손을 탁 치며 머리우로 휙 날아넘어갔습니다.
차돌이는 바위돌을 들어 범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범은 어느새 몸을 피했습니다.
바위돌은 절벽에 가 부딪쳐 산산쪼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엔 량손으로 두개의 바위돌을 들어 동시에 집어던졌습니다.
바위돌은 쏜살같이 날아갔으나 범은 또 요리조리 몸을 빼며 차돌이에게 달려들 기회만을 노리고있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번 거듭하니 범도 차돌이도 지칠대로 지쳐버리고말았습니다.
차돌이가 숨을 돌리려고 잠간 서있는데 어느새 범이 달려들어 팔을 물었습니다.
《아이쿠…》
차돌이는 팔을 싸쥐였습니다.
이때 범이 다시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차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차돌이는 할아버지가 준 지팽이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옆으로 몸을 피하면서 허리에 찼던 지팽이로 범의 정수리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지끈하고 호되게 얻어맞은 범은 한동안 그자리에서 요동을 치다가 다시 기를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범바위골범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범과 맞붙어 싸우던 차돌이는 이번엔 할머니가 준 바가지생각이 나서 그것을 범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바가지는 범의 대가리에 씌워져 눈을 딱 가리웠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차돌이는 바람처럼 범의 잔등에 올라타

턱살을 잡고 힘껏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사람과 범이 한덩어리가 되여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하여 어느것이 사람이고 어느것이 범인지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드디여 차돌이한테 숨통을 눌린 범은 기가 꺾여 더는 달려들지 못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말았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범은 마치도 길들인 강아지처럼 차돌이한테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처녀와 그의 어머니는 너무도 무서워 눈을 꼭 감고 바위우에 앉아 오돌오돌 떨고있었습니다.

사위가 조용해지자 눈을 뜬 처녀의 어머니는 범을 이기고 잔등에 타고앉아있는 차돌이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얼없이 서있었습니다.

얼마만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처녀의 어머니는 차돌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였습니다.

처녀는 자기 옷을 찢어 범한테 물린 차돌이의 팔을 처매주었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차돌이가 없으면 언제 또 범이 달려들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꼭 함께 데리고가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범을 탄 차돌이는 처녀를 자기뒤에 태우고 고향마을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쏜살같이 달려간 차돌이는 잠간사이에 마을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마을사람들은 범을 보자 《범이다!―》하고 소리치며 모두 허겁지겁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한편 생일날이 되자 부자집에서는 복덕이에게 금갑옷을 입히고 금집에 들어앉히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범이다!》 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황소만한 범이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마을로 달려내려오는것이

보였습니다.
복덕이는 그것을 보자 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범이 무서워 복덕이가 쓰러져있는 금집으로 들어갈념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얼마만에 마을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차돌이가 고운 처녀와 함께 범바위골범을 타고앉아 말처럼 마음대로 부리며 뛰여다니는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차돌이는 범의 잔등에서 뛰여내려 어쩔바를 몰라하는 아버지,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너는 신기한 참대숲을 찾은게 분명하구나. 그 요술창을 좀 보자꾸나.》
《아버지, 저에겐 요술창이 없습니다. 저는 참대숲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대숲을 찾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타고왔느냐?》
아버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제힘으로 호랑이와 맞서싸워 이겼습니다.》
차돌이는 집을 떠난 후 자기가 겪은 가지가지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제야 모든것을 자세히 알게 된 부모들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과시 장하다. 신기한 요술참대창이 너를 구원해준게 아니구나. 제힘으로 제몸을 지키려는 너의 굳센 마음이 무서운 호랑이를 이기게 했구나.》
아버지는 만족하여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장수가 났다.》
마을사람들은 저저마다 소리치며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차돌이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덕이는 금으로 지은 집안에서 종시 펴나지 못하고 자기 생일날에 범때문에 죽고말았습니다.

《아이고― 부처님도 황금도 우리 복덕이를 살려내지 못했구나!―》

귀한 아들을 잃고 빚만 잔뜩 진 부자집에서는 슬픈 통곡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그후 차돌이는 범을 타고다니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일까지 시키면서 범바위골범을 말이나 소처럼 부렸습니다.

차돌이에게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범의 화를 없애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해에 범한테 잡혀먹힐 아이가 모두 열두집이나 되였던것입니다.

범을 부리는 용감한 장수가 된 차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처녀와 함께 오래오래 잘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한 나라에 두 친구가 살고있었습니다.

한사람은 명의로 소문난 의원집손자였고 다른 사람은 명망이 높은 학자의 아들이였습니다.

그들은 한마을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늘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무척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서로 반대였습니다.

의원집손자는 아는게 많아 고을원도 자주 찾아와 물어보군 하는 학자를 부러워하였고 학자의 아들은 앓는 사람들을 침 한대나 뜸 한장으로 고쳐주는 의원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원집손자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의술공부를 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고 글공부를 하여 학자가 되였고 학자의 아들은 반대로 의술을 공부하여 의원이 되였습니다.

학자가 된 의원집손자는 후에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된 학자의 아들은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치지 못하여 명의로 이름을 날리기는 고사하고 병을 보이려 찾아오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의원이 된 사람은 머리를 싸쥐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가? 의술을 다 배우지 못해서 그럴가?)
의원이 된 사람은 한숨을 푹 쉬며 맥을 놓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왕의 신하가 된 친구가 마을에 내려왔다가 의원을 만나 그의 사정을 알게 되였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는 먼 조상때부터 가보로 물려오는 의서들이(의술이 적힌 책) 있는데 내 그것을 임자에게 주겠으니 그 책들을 가지고 의술을 익히게나. 나야 의원이 아니니 그 책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그리하여 의원은 그날부터 친구가 준 그 의서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서들은 방 한칸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는데 그 책들은 참으로 신비하였습니다.
그 책에 씌여있는 글자들은 낮에 보면 한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 별빛 한가닥 흘러들지 않는 방안에서 문을 꼭 닫고 보아야만 글자가 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나타나는것이였습니다.
책에는 병을 알아내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처방들이 적혀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방들이였습니다.
의원은 그 책들에 적힌 의술을 전부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에만 읽다나니 빨리 볼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은 생각하다못해 깊은 동굴속에 들어갔습니다.
컴컴한 동굴속에 들어가니 의서에서는 찬란한 빛발이 뿜어져나왔습니다.
그 빛발을 받아 동굴안은 보석처럼 번쩍거렸고 글자들은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옳지, 됐다.)

의원은 의서에 온 정신을 쏟아부어 한장한장 책장을 번지며 읽어나갔습니다.

책장을 번질 때마다 그안에서는 향기까지 풍겨나와 온 동굴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원은 동굴안에 들어간 다음 한번도 바깥에 나오지 않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꼬박 열두해를 읽으니 의서에 적혀있는 글을 몽땅 그대로 외우게 되였습니다.

동굴속에서 오래동안 있다나니 의원은 가뜩이나 체소한 몸집이 더 작아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둠속에 너무도 오래 있은탓으로 밖에 나와서도 석달이 지나도록 눈을 뜨지 못하다가 백날이 지나서야 겨우 앞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그 많은 의서들을 뜬금으로 외우게 된 그는 책에 씌여있는대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가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말끔히 낫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날개를 달고 파다하게 퍼져갔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병을 보이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명의가 된 그는 그 많은 환자들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다 치료해주었습니다.

의원은 환자가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그 즉시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이 신통히 맞아서 모두 깜짝 놀라군 하였습니다.

의원의 처방은 언제나 명처방이여서 그대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붙이고 약을 쓰면 아무리 중한 병도 씻은듯이 낫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집안의 가보인 의서들을 넘겨준 친구가 한없이 고마왔습니다.

언제건 한번 단단히 신세를 갚아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응당한 도리이고 의리이니까요.

의원은 늘 이런 마음을 안고 사람들을 치료하여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원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요란하게 퍼져갔습니다.

한사람이 전하면 들은 사람이 그것을 더 보태서 전하고 또 다음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보태군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명의라고 부르다못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라느니, 동굴안에 들어가 도를 닦은 《도사》라느니 하면서 높이 존대해 불렀습니다.

한번은 의원에 대한 신기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많고 의심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원에게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원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침을 놓으려고 동침을 뽑아들었습니다.

(옳지, 이번엔 나한테 영낙없이 속았구나.)

그 사람은 속으로 깨고소해하며 의원이 어쩌나 보려고 아픈체 하면서 순순히 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침을 놓자마자 그사람은 갑자기 배를 싸쥐고 죽는다고 뱅글뱅글 돌아갔습니다.

의원은 그런 모양을 보고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그사람에게 다시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신음소리를 그치고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픔이 멎자 오히려 제편에서 의원에게 투덜거렸습

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허허, 배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했으니 배를 아프게 해줘야 거짓말을 안한것으로 될것이 아니겠소.》

의원의 말에 그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말도 못하고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그사람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명의의 놀라운 의술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산골에서 한 선비가 알지 못할 병으로 오래동안 앓고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먼길을 찾아가 명의의 치료를 받으면 단박에 나을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시골선비는 하늘소를 메운 자그마한 발구를 타고 소문난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어디가 아픈지 이마살을 펴지 못하고 안해에게 업히워 의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의원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긍히 여겨 목숨을 구원해주십시오. 나이 서른도 되기 전에 몹쓸 병에 걸려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으나 치료는 고사하고 여직 무슨 병인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자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의원은 그를 한참동안 유심히 살펴보고나서 여느때없이 손맥도 짚어보고 입안과 눈까풀도 들여다보며 특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의원은 진찰을 하고나서 《그대의 병이 중하기는 하나 그

리 고치기 힘든것은 아니니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소. 배웃부분 장기에 생긴 탈인데 침 한대면 알도리가 있을거요.》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의원은 심부름군아이를 시켜 뒤울안 샘터에서 물 한동이를 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선비와 그의 안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이 퀭해서 의원의 행동거지만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의원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방금 길어온 물 한동이를 선비의 앞가슴에다 쏟아부으라고 귀속말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원이 시키는대로 찬물 한동이를 선비의 가슴에 갑자기 쏟아부었습니다.

《이크!》

선비는 깜짝 놀라 펄쩍 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의원은 커다란 동침을 환자의 옆구리에 날쌔게 꾹 찔렀습니다.

조금 있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옆구리에 꽂은 동침이 저절로 흔들흔들 움직이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것이였습니다.

환자는 숨결이 점점 고르로와지고 이마살이 펴지면서 얼굴에 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후 침대를 뽑자 선비는 언제 앓았던가싶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가셔지고 생기가 돌면서 그의 온몸에 힘이 뻗쳤던것입니다.

선비는 너무 좋아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소문에 듣던바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시야말로 명의에 명의이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의 긴병을 침 한대로 고치십니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 선비는 타고 온 하늘소와 발

구를 내버리고 안해와 함께 먼길을 그냥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원의 이 치료법도 다 의술책에 있는것인데 책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찬물 한동이를 앞가슴에 갑자기 쏟아부어 환자를 깜짝 놀래우면 그 순간 장기들이 우로 밀리면서 아래부위에 공간이 생기는데 바로 거기에 동침을 놓을것이니라.》

의원이 선비의 병을 침 한대로 고쳤다는 소문은 또 사방으로 퍼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보이려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퍼져 왕궁에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때 마침 왕궁에서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대장수가 심하게 앓고있었습니다.

갑자기 말발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고을에서 원의 편지를 가지고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왕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중한 병으로 앓아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였으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여 왕궁의 신하가 직접 왕에게 친구의 놀라운 의술에 대해 아뢰였더니 급히 불러들이라는 어명이 내렸다는것이였습니다.

의원은 몹시 기뻤습니다.

자기의 의술을 한번 뽐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구의 신세를 갚게 되였으니 더욱 기뻤던것입니다.

의원은 서둘러 차비를 하고 왕궁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의원들이 왕궁으로 모여들고있었습니다.

벌써 왔다가 돌아가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웬일인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가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장수의 병을 못고치면 곤장 서른대를 맞고 내쫓긴다는것이였습니다.
의원은 속이 섬찍하였으나 (아무렴, 내가 못고칠 병이 있겠는가?) 하고 자신만만하여 궁성으로 말을 몰아갔습니다.
얼마간 가는데 굉장히 멋진 가마를 멘 사람들의 일행이 마주오는것이 보였습니다.
의원은 왕의 행차가 아닌가 하여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마를 메고온 사람들은 의원앞에 이르자 모두 땅에 꿇어엎디여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명의님! 상감마마께서 명의님을 모셔오라고 친히 이 가마를 보내셨소이다.》
의원은 왕이 보낸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명의를 몰라볼가?)
의원은 마음이 흐뭇하여 슬렁슬렁 부채질을 하면서 가마를 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궁성대문앞에는 명의를 마중하느라고 여러 신하들이 나와 기다리고있었는데 그들가운데는 자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보게, 상감마마께 임자에 대해 자세히 아뢰였으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높은 의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친구가 하는 말에 의원은 《너무 걱정말게. 내 있는 힘껏 해보겠네. 아마 하늘이 도와주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의원을 왕한테로 데려갔습니다.
왕은 몸집이 작은 촌의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대의 용한 의술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은즉 지혜와 재능을 아끼지 말지어다.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나라의 대장수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날마다 외적의 침입이 그칠새 없는 이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노라. 어서 대장수를 치료할지어다.

대장수의 병을 고쳐 전장에 다시 나가게 하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후한 상을 주겠노라.》

《상감마마, 페하의 신임과 믿음을 받으니 감격스럽기 그지없나이다. 저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그 은덕에 보답코저 하오니 대장수님의 병을 두고 더는 념려하지 마옵소서.》

왕은 그의 자신에 넘치는 대답을 듣고 안도의 숨을 후 내쉬였습니다.

의원은 왕과 함께 장수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누워있는 장수를 보자 흠칫 놀랐습니다.

장수는 키가 구척이요 기골이 장대한데 눈섭은 범의 눈섭과도 같이 한뽐이나 치솟아있었습니다.

의원은 장수를 보자 자기의 작은 몸집이 더 줄어드는것 같아 저도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써 위엄을 보이며 장수의 온몸을 살펴보고는 맥도 짚어보고 눈과 입안도 들여다보며 진찰을 하였습니다.

왕과 신하는 의원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원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어쩌면 이렇게도 신통히 그 시골선비와 꼭같은 병일가!)

그는 속으로 쾌재를 올렸습니다.
바로 언젠가 이런 병에 걸린 시골선비를 침 한대로 고쳐 주었으니 이번에도 그대로만 한다면 장수의 병도 문제없이 나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보게, 대장수님의 병은 손쉽게 고칠수 있으니 조금도 근심하지 말게. 내 그대의 덕으로 능하게 된 의술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여 참으로 기쁘네.》
의원은 이렇게 다시한번 장담을 하고나서 친구에게 찬물 한동이를 길어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웃옷을 벗긴 다음 눈을 감고 누워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의원은 동침을 뽑아들고 장수의 앞가슴에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원은 장수의 옆구리에 날쌔게 동침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쿠!》
대장수는 비명을 지르더니 까무라치고말았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어찌나 크던지 대청의 서까래가 무너져내렸습니다.
장수에게 꽂은 침대는 빙글빙글 돌지 않고 왜 그런지 훌떡훌떡 올리뛰였습니다.
장수의 입술은 푸들푸들 떨었고 얼굴은 새까매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왕과 신하는 영문을 몰라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다름아닌 의원이였습니다.
의원은 손을 와들와들 떨며 환자의 옆구리에서 동침을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장수가 침을 뽑지 못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 침대를 뽑으면 나는 죽소. 당신의 침은 지금 내간을 찔렀단 말이요.》

대장수는 아픔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구요?》

의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전에 이 치료법으로 선비를 치료하여 효과를 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원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친구는 안타까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아, 대장수로 말하면 창검과 화살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늙어온 백전로장인데 어찌 선비와 같이 물한동이로 놀래울수 있겠는가?》

이때 겨우 정신을 차린 장수는 안깐힘을 쓰며 의원을 꾸

짖었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거늘 백천사람모두가 얼굴생김이 같지 않은것처럼 사람의 체질 또한 각각 다른데 병을 다룬다는 의원이 그것도 모르는가?》

장수의 말은 비수처럼 의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찬물 한동이를 쏟아부어 선비는 놀래울수 있었으나 천만군사를 쥐락펴락하는 대장수는 놀래울수 없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자의 옆구리에 찌른 동침은 침혈에 들어간것이 아니라 간을 꿰뚫었던것입니다.

그는 의서에 있는대로 졸졸 따라가며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한 자신을 원망하였으나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수로 하여 숨지게 된 환자를 앞에 놓고 여직껏 어리석게도 명의라고 생각해온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의원을 무섭게 노려보며 푸들푸들 떨었습니다.

의원은 땅을 치며 한탄하였으나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장수는 죽었고 의원은 귀양을 가게 되였으며 나라는 더욱더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물이 났을 때 있은 일입니다.

창대같은 비가 주룩주룩 열흘낮 열흘밤 쏟아져내리더니 푸른 곡식이 너울거리던 벌판도, 닭이 울고 소가 영각을 하던 마을도 모두 물속에 잠기고말았습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덩실하니 지어놓고 거들먹거리며 잘살던 황지주놈은 온 벌판이 물에 잠기는것을 보자 부랴부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떠메고 갈수도 없고 아흔아홉간 방마다 으리으리하게 차려놓은 세간들과 고간마다에 가득찬 보물들과 비단필들을 다 꾸려가지고 갈수도 없었습니다.

지주놈은 이 방문을 열어잡고 휘 한바퀴 둘러보며 한숨을 쉬고 저 고간문을 열어잡고 휘 한바퀴 둘러보며 한숨을 쉬군 했습니다.

방마다 가득가득 쌓여있는 값진 물건들과 보물들을 그 어느 하나도 버리고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놔두고는 차마 발길을 뗄수 없었습니다.

이때 큰 벌판을 눈깜박할사이에 삼켜버린 시뻘건 물은 황

지주놈이 살고있는 산기슭으로 쏴쏴 소리치며 밀려왔습니다.

바빠맞은 지주놈은 이 방으로 뛰여들어가 보물꾸레미를 안아내오고 저 방으로 달려들어가 비단필들을 메여내왔습니다.

어느새 시뻘건 물은 황지주놈의 집대문턱을 넘어 안마당으로 쏴 밀려들었습니다.

《아이쿠, 인젠 망했구나!》

지주놈은 토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후닥닥 뛰여일어나 자기 방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금고자물쇠를 절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보따리를 꺼내들고 씨근벌떡 달려나와 대돌우에 성큼 내려섰습니다.

《다른건 다 못가져가도 이것만은 들고뛰여야지!》

황지주놈은 산으로 올리뛸 생각을 하며 훌쩍 마당으로 뛰여내렸습니다.

첨버덩…

시뻘건 물결이 지주놈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쿠!》

그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금보따리가 흙탕물에 젖을가봐 두 손으로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으로 물살을 헤치며 대문밖으로 나섰습니다.

물살이 어찌도 세찬지 걸음을 빨리 옮길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손으로 금보따리를 높이 추켜들고 다른 손으로는 물살을 헤치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걸음 걸어나갔다가는 서너발자국 뒤로 밀려나군 했습니다.

이번엔 금보따리를 등에 걸머지고 두손으로 물살을 헤치며 걸어나갔습니다.

뽀얀 물안개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가려볼수 없었습니다.

보이는것은 소용돌이치는 물뿐이요, 들리는것은 아우성치는 소리뿐이였습니다.

황지주놈은 어떻게 하든 산으로 올라가야 살수 있다는 생각으로 첨벙첨벙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것만 같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는 틀렸구나. 이젠 어쩐다?…)

잠시 생각하던 지주놈은 동구밖에 서있는 큰 나무우에라도 올라가려고 허둥지둥 그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버드나무와 느티나무도 물속에 잠겨있었습니다.

지주놈은 오래 생각할 사이도 없이 버드나무를 와락 부여안고 엉기적엉기적 기여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기여오른 지주놈은 높은 가지에 금보따리를 걸어놓고 그 아래가지에 척 걸터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쏴—처절썩 소리치며 흐르고있었습니다.

《에키, 저놈의 물 봐라.》

황지주놈은 점점 불어나는 물이 금시 덮치며 달려드는것

갈아 엉뎅이를 들썩하다가 금보따리를 벗겨서 더 높은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자기도 좀더 높은 가지에 올라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큰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마루만 간신히 물우에 드러나보일뿐 고간들도 외양간도 모두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엇이 와르르 첨벙하고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물우에 드러나보이던 그 지붕마저 사라지고 아름드리기둥, 큰 궤짝, 가지가지 항아리들이 둥둥 떠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느새 황지주놈이 앉아서 내려다보는 버드나무밑을 감돌아 저 멀리로 쏜살같이 떠내려갔습니다.

《어이쿠 망했구나, 망했어. 저것들이 날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황지주놈은 기가 막혀서 가슴을 쾅쾅 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보따리를 흘깃쳐다보고는 얼나간 사람처럼 허허 웃으며 그것을 와락 벗겨 가슴에 꽉 그러안았습니다.

《흥, 망하긴 내가 왜 망해. 이렇게 황금덩이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쌀도 비단도 나오고 또 큰 기와집도 솟아나지. …》

이때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지주놈은 깜짝 놀라 금보따리를 얼른 나무잎속에 감추고 옆에 있는 느티나무쪽을 살펴보았

습니다.

나무가지사이로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습이 건너다보였습니다.

지주놈은 어험어험 헛기침을 하고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거 느티나무우에 올라간게 누군가?》

《저올시다.》

《저라니, 음, 갑돌이 애빈가?》

《예.》

느티나무우에 앉은 갑돌이 아버지는 황지주네 땅을 얻어부치는 마을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가난한 소작인이였습니다.

그래서 황지주놈은 비웃는 말투로 넌지시 말을 건늬였습니다.

《그래, 임잔 무얼 좀 꿍져들고 올라왔나?》

《저야 뭐 꿍져들고 올라올게 있습니까?》

《하긴 그렇지. 임잔 정말 알몸뚱이지.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서 좋겠네. 물속에 두고온게 없으니 가슴아픈 일도 없을게구…》

《뭐라구요? 물속에 두고온게 없어 마음이 편안할거라구요?》

갑돌이 아버지는 지주놈을 흘깃 건너다보며 좀 거칠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사람, 대답이 왜 그리 거친가?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나?!》 하고 지주놈은 계속 위엄을 부렸습니다.

《없이 산다고 너무 업신여기지 마슈. 하긴 알몸뚱이밖에 없다보니 물속에 큰 기와집은 못두고왔수다. 하지만 죽은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근근히 살아오던 초가집이나마 물에 띄운게 가슴터지게 아프웨다.》

지주놈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쩝쩝 다시더니 저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구 말대답을 다 하누나. 어디 두고보자. 난 아직도 부자란 말이야. 금보따리를 들고 올라왔으니까. 흥, 그까짓 게딱지같은 초가집 한칸 물에 띄운게 가슴이 아프면 얼마나 아플텐가.》

비는 그냥 쫙쫙 퍼부었습니다.

사품치며 소용돌이치는 물살은 두그루의 나무밑에서 그냥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날이 환히 밝아왔습니다.

밤새 찬비를 맞으며 우들우들 떨던 황지주놈은 비가 좀 멎는것 같아 흘깃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만큼 굵던 비줄기가 저가락만큼 가늘어지고 다시 실오리만큼 가늘어지더니 보슬보슬 보슬비로 변했습니다.

황지주놈은 장마가 걷히는가 해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큰물이 달려드는통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꼬박 두끼를 굶었던것입니다.

날마다 상다리가 휘도록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배를 두드리며 먹던 황지주의 배에서는 연방 쪼르륵소리가 났습니다.

느티나무우에서 밤을 샌 갑돌이 아버지는 나무가지에 걸어두었던 누런 꾸레미를 벗기여 부스럭부스럭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응, 이제 보니 저놈도 무엇인가 꿍져들고 올라왔댔구나.)

지주놈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꾸레미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고 넌지시 건너다보았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그 꾸레미속에서 누런 덩어리 한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주놈은 눈이 휘둥그래지며 《아니, 그게 뭔가? 금덩이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금덩이가 아니라 강낭떡이웨다.》

《뭐, 강낭떡? 그래 임잔 기껏 그런걸 꿍져들고 올라왔나?》

지주놈은 이렇게 비웃으며 이마살을 찌프렸습니다.

《뭐요?》
갑돌이 아버지는 밸이 울컥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사람이 먹겠나. 량반은 얼어죽어도 곁불은 안쪼인다구 했네.》 하고 지주놈이 점잔을 뺐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이놈이 아직 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어디 두고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요. 이거야 우리같은 사람이나 먹을거지요. 그래서 권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나서 강냉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주놈은 슬그머니 돌아앉아서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는 나무잎들사이에 걸어놓았던 금보따리를 벗겨 가슴에 안고 금덩이들을 슬슬 쓸어보면서 마른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암, 그렇구말구. 이것만 있으면 배가 부르구말구. 여기서는 밥도 나오구 떡도 나오구 고기도 나오지. … 어서 장마만 걷혀라.)
바로 이때였습니다.
번개불이 번쩍하고 검은 하늘을 쫙 가르더니 우르릉 쾅하고 우뢰가 울며 대줄기같이 굵은 비가 다시 쏟아져내렸습니다. 세찬 바람까지 휘몰아치며 나무가지를 마구 흔들어놓았습니다.
물은 다시 불어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지주놈은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자기가 자리잡은 버드나무까지 삼켜버릴것만 같아서 나무가지를 꽉 부여잡고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창대같은 굵은 비는 계속 퍼붓고 물은 더욱 세차게 소용돌이치며 불어올라왔습니다.
어느새 밤이 가고 또 날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버드나무가지우에서 떨며 두밤이나 지새운 황지주놈의 배는 고프다못해 쓰리고 쓰리다못

해 쑤시는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집에서 처먹던 기름진 음식들이 자꾸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음식상이 앞에 놓인것 같아서 손을 내미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쪼르륵소리가 나고 정신은 핑핑 돌았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꾸레미를 풀어헤치고 또 강냉떡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주놈은 자기도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이사람 갑돌이 애비, 뭐 좀 남은게 없나?》 하고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흥, 저놈도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는 배가 좀 고파오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예, 남은게 좀 있수다. 그런데 왜 그러슈?》 하고 무뚝뚝하게 되물

었습니다.

《이사람, 거 내게 몇덩이 보내게나. 임자가 그런걸 먹구 어떻게 사는지 나도 좀 맛을 볼가 해서…》

지주놈은 닭알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채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굴 놀리시우? 언제는 사람이 못먹을거라고 하더니 인젠 맛을 좀 보겠다구! 량반어른이 한입으로 두 말이야 할수 없지 않소!》

갑돌이 아버지는 비꼬는 투로 툭 쏘아주었습니다.

지주놈은 펄쩍 뛰며 《아 아닐세. 입은 하나지만 어떻게 한가지 말만 하고 살겠나. 이거 정말 배고픈건 견디지 못하겠구만. 그러지 말구 아직 좀 남아있거든 어서 몇덩이만…》 하고 죽는 시늉을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에서는 연방 쪼르륵소리가 나고 허기가 지다못해 온몸이 나른해져서 체면이고 무엇이고 생각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량반어른이 먹을게 못되는데요.》

《아니 이사람, 제발 몇덩이만 나누어주게나. 그저 달라는것도 아닐세. 장마가 걷히면 꼭 값을 치르어주지. 엉!》

지주놈의 이 말에 갑돌이 아버지는 그만 화가 벌컥 치밀어올라 《뭐 값을 치르겠다구요? 걷어치우슈. 몇덩이는커녕 한덩이도 못주겠수다!》 하고 단마디로 딱 잘라맸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황지주놈한테 당하던 뼈에 사무친 가지가지의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황지주놈때문에 굶어죽은 갑돌이생각을 하면 더욱 참을수 없었습니다.

갑돌이네는 이날이때까지 등이 휘도록 농사를 지어왔지만 황지주놈에게 다 빼앗기고 뜯기워 언제나 굶주리며 살

아왔습니다.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낟알구경 한번 못하고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에워온 어린 갑돌이는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팔다리가 대꼬치처럼 마르더니 끝내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쌀죽이라도 한번 쑤어먹일 생각으로 황지주놈을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지주놈은 빚을 다 갚기 전엔 쌀 한되박도 꾸어줄수 없다고 하면서 대문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할수없이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이 집에서 한줌, 저 집에서 한줌, 겨우 쌀 한되박을 얻어가지고 해질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덮인 앞마당에 기여나온 갑돌이가 하얀 눈을 한아름 그러안고 중얼거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얀, 하얀 쌀 봐. 나 하얀, 하얀 쌀밥 먹고파.》

갑돌이 아버지는 억이 막혀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와락 달려들어 손발이 꽁꽁 언 어린 갑돌이를 안아다가 방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내려가 얼른 죽을 쑤어가지고 들어와서 흔들어 깨웠으나 갑돌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밤 어린 갑돌이는 죽 한술도 입에 대보지 못하고 그만 영영 눈을 감고말았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황지주놈은 《이 사람, 갑돌이 애비, 강냥떡맛을 좀 보자는데 임자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어서 한덩어리라도 보내라구.》 하며 손까지 내밀었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지주놈의 얼굴을 뚫어지게 건너다보며 《이거 왜 자꾸 이러슈?》 하고 눈을 흘기였습니다.

《왜 자꾸 이러느냐구? 그래 못주겠단 말이지. 이놈, 옛말에도 은혜는 은혜로 갚으랬어!》

《뭐요? 내 아들 갑돌이를 굶겨죽인 놈이 대관절 어느 놈인데 은혜란 말이요?》

갑돌이 아버지는 불이 펄펄이는 눈으로 지주놈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주놈은 제가 한짓이 있기때문에 감히 뭐라고 더 대들지는 못하고 정신나간 놈처럼 두눈만 꺼벅꺼벅하고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죽이 등에 붙은 지주놈은 눈을 뜰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겨우 반쯤 뜨고 건너다보니 갑돌이 아버지의 보자기는 나무가지에 그냥 걸려있었습니다.

지주놈은 눈을 번쩍 뜨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순간 그놈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금보따리를 끌어내려 거기서 제일 작은 금덩이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을 쑥 내밀며 뭐라고 소리치려다가 손을 다시 가드라뜨렸습니다.

막상 금덩이를 주고 강낭떡을 바꾸자니 아깝기도 하고 자기가 바보처럼 생각되여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황지주놈은 금덩이를 손에 든채 행여나 비가 멎을가 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줄 모르고 그냥 쏟아져내렸습니다.

검붉은 물은 더욱 세차게 마을과 벌판을 휩쓸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뢰가 무섭게 울었습니다.

황지주놈은 하늘을 원망하며 하는수없이 금덩이를 든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 여기를 좀 보게.》

갑돌이 아버지는 의아한 눈길로 황지주를 바라보며 《왜 그

러슈?》 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줄테니 강낭떡 한개만 주게.》

《그게 뭐요?》

《이 사람, 이걸 줄테니 강낭떡 하나만 주게. 황금덩일세. 황금덩이란 말이야.》

그러나 뜻밖에도 갑돌이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싫수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싫다니? 황금덩이가

싫단 말인가? 별사람 다 보겠군.》

지주놈은 어리벙벙해졌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 금덩이가 싫다니? 이거 하나면 쌀두 산더미처럼 쌓아놓구 살수 있어. 어서 이걸 받구 강낭떡 한개만 주게.》

지주놈은 금덩이를 어서 받으라고 손을 내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갑돌이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가지에서 베보자기를 벗기더니 더 꼭 싸서 다시 걸어놓았습니다.

행여나 금덩이와 바꾸려나보다 하고 닭알침을 꿀꺽꿀꺽 삼키고있던 지주놈은 그만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은 지주놈은 그 순간 정신이 아찔해져서 하마트면 나무에서 굴러떨어질번 하다가 겨우 나무가지를 붙잡고앉아서 갑돌이 아버지에게 또 사정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내 금덩이를 하나 더 줄테니 강낭떡 한개만 주게.》

지주놈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보자기를 풀더니 금덩이를 하나 더 꺼내들었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들은둥만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금덩이 두개를 주는데두 싫은가? 자, 좀 보라구. 이 황금덩이들을… 이거면 큰 부자가 돼. 적어서 그러나? 아, 그럼 내 세덩이를 주지.》

《싫다는데두 왜 자꾸 그러슈. 나는 흥정을 할줄 모르우.》

갑돌이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앉아서 비내리는 하늘만 쳐다보고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와서 버드나무

를 흔들어놓았습니다.

지주놈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금시 물속에 떨어질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 정 그러면 내 이 금덩이들을 통채로 다 줄테니 제발 강냥떡 한개만 주게나. 어서—》

지주놈은 금덩이들을 통채로 쑥 내밀며 사정사정했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싫수다. 내게는 금덩이가 소용없수다. 그것은 당신이나 두었다가 써먹든지 하시우. 난 강냥떡이 제일이외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덩이들을 앞으로 내밀고있던 지주놈의 맥풀린 손이 차츰 아래로 드리워지더니 황금덩이들이 첨벙첨벙 물속에 떨어졌습니다.

《야, 금덩이, 내 금덩이…》

지주놈은 정신없이 그 금덩이들을 잡으려고 두손을 내젓다가 그만 곤두박혀 물속에 풍덩 떨어져들어갔습니다.

그놈은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휩싸여 몇번 허우적거리며 푸푸— 하더니 그만 영영 가라앉고말았습니다.
억수로 퍼붓던 비는 어느덧 멎고 어디선가 청개구리가 객객— 울고 동켠하늘이 훤히 트이기 시작하더니 해가 방긋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그 한끝에 쌍무지개가 곱게 걸렸습니다.
《야, 이젠 장마가 걷히려나보군!》
하늘을 쳐다보던 갑돌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넓은 벌에 차고넘쳤던 물이 점점 찌기 시작했습니다.
높은데 물은 낮은데로 흘러가고 낮은데 물은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황지주놈이 올라가있던 버드나무를 흘깃 쳐다보며 《황금덩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데 강낭떡은 사람을 살려주었구나.》하고 말하였습니다.

불씨를 찾은 아왕녀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이 아직 불을 쓸줄 모르던 때에 있은 일이랍니다.

아마도 동무들이 력사책에서 배운 그 원시시대의 이야기일거예요.

그러니 정말 옛날도 오랜 옛적에 있은 일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동굴에 모여살았는데 어느 한 동굴에는 아왕녀라고 부르는 소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습니다.

산열매를 따고 짐승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것은 범이나 맘모스 같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추위였습니다.

바로 아왕녀도 추위한테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던것입니다.

사람들은 밝은 빛과 따스한 볕을 주는 은혜로운 해님을 생명의 신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어느해 추운 겨울이였습니다.

아왕녀는 동굴 한켠구석에서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겨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 밖에는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천정에 뚫린 구멍으로 바오래기같은 한가닥 해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아왕녀는 꽁꽁 언 조그마한 손을 거기에 가져다대였습니다.
차디찬 손은 대번에 온기가 도는듯 따스했습니다.
《해님이시여! 고마운 해님이시여!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여주옵소서.》

아왕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따뜻해진 손으로 할머니의 언손을 꼭 그러쥐였습니다.
할머니의 언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또 인차 얼어들었습니다.
아왕녀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왕녀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있는 할머니는 기특한듯 손녀의 머리를 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왕녀야, 별수 있느냐? 그저 이렇게 사는수밖에…참아라. 참으면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시 올

게다.》

할머니는 아왕녀를 더 꼭 그러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태양신을 우리 집에 모셔올수 없을가요?》

《아서라. 무슨 당치 않은 생각을 하느냐? 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태양신을 찾아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너까지…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아.》

할머니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이해의 겨울날씨는 유별나게 춥고 맵짰습니다.

어느날 추위는 아왕녀와 제일 친한 정다운 동무의 목숨을 또 앗아갔습니다.

아왕녀는 그날 온종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왕녀는 할머니에게 자기 결심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난 태양신을 꼭 찾아가겠어요. 태양신한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해보겠어요.》

《안된다. 정신있느냐? 녀자의 몸으로 네가 어떻게 태양신을 찾아간다고 그러느냐?》

할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아왕녀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람들도 위험한 일이라면서 말리였지만 아왕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마을어른님들, 우리 할머니를 잘 돌봐주세요.》

아왕녀는 할머니와 이웃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태양신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동쪽에 태양신이 사는 집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그쪽을 향해 가고 또 갔습니다.

눈보라가 윙윙 휘파람을 불어대는 벌판을 지나고 얼음이 번쩍거리는 강도 건느며 가고 또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추운 겨울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는 눈석이물이 흐르는 깊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 어느 한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우중충한 수림이 하늘을 가리운 깊은 숲속에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리였습니다.

아왕녀는 가슴이 섬찍하고 머리칼이 쭈빗 일어섰습니다.

이때 숲속에서 와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키도 크고 몸집이 우람찬 웬 젊은 사나이가 문득 나타나 아

왕녀앞을 막아섰습니다.

두사람은 마주보는 순간 서로 놀라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대는 뉘시오?》

먼저 몸집이 큰 사나이가 아왕녀를 쳐다보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얼마나 큰지 우뢰소리같았습니다.

아왕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머리를 들고 당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태양신을 찾아가는 아왕녀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뭐? 태양신을 찾아간다구? 돌아가오. 괜한 고생만 하지 말구. 난 노루메에서 사는 사람이요.

나도 태양신을 찾아 삼년석달을 헤매다가 이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예? 태양신을 찾아다녔다구요?

그럼 저하고 같이 다시 찾아갑시다.》

아왕녀는 그 젊은이에게 무턱대고 같이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안되오. 맨손으로 범과 메돼지를 때려잡는 나도 지쳐서 돌아가

는데 연약한 어린 처녀가 어떻게 태양신을 찾는다고 그러오?》

노루메에 사는 젊은이는 아왕녀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보기엔 무섭게 생긴 사람이였으나 퍽그나 인정이 깊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태양신을 찾아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또 길을 떠났어요.

지금 마을사람들과 내 동무들이 추위에 얼어죽고있어요.

나와 같이 태양신을 찾아갑시다. 예?》

아왕녀는 노루메젊은이에게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정 안가겠다면 좋아요. 저 혼자서라도 가겠어요.》

아왕녀는 혼자서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애어린 처녀가 가는것을 보니 마음좋은 노루메젊은이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설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자구.》

끝내 노루메젊은이는 아왕녀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태양신을 찾아가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태양신을 찾아가고 또 갔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높고높은 산마루와 벼랑만 나질뿐 그처럼 안타깝게 찾는 태양신의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왕녀는 온몸의 맥이 다 빠져 겨우 다리를 옮겨놓았습니다.

노루메젊은이는 아왕녀를 부축하며 걷다가 얼마만에는 아예 그를 등에 업고 갔습니다.

노루메젊은이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열매를 딸 때에도 굵은 나무를 줄기채로 뚝 꺾어서 툭툭 털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루메젊은이도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자 힘이 진해져 나중엔 땅에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아왕녀, 인젠 돌아가자구. 괜히 헛고생만 하지 말구.》

《아니예요, 기어이 찾아야 해요.》

아왕녀는 조금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막아나설수록 오히려 아왕녀의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기어이 태양신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주게 할테다.)

며칠을 쉬면서 기운을 돋군 그들은 또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아무리 가도 태양신의 집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어디로 갈가 망설이였습니다.

그러던 아왕녀는 발밑에 흐르는 내물을 보자 소리질렀습니다.

《내물아, 시내물아! 넌 모르니? 태양신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나에게 좀 대주렴.》

시내물은 아무말없이 그냥 졸졸 흐르기만 하였습니다.

이번엔 시내물우에 가지를 드리운 아름드리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아름드리나무야! 넌 모르니? 태양신이 어디 있는지?》

바람에 잎새 많은 가지를 우수수 흔들던 나무는 파아란 잎사귀 하나를 물우에 뚝 떨구었습니다.

파아란 나무잎은 둥둥 물결을 타고 떠내려갔습니다.

어느쪽으로 갈지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아왕녀는 혹시 저 나무잎이 길잡이를 하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왕녀는 노루메젊은이와 함께 그 나무잎을 따라갔습

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나무에 찔리우면서도 아픈줄을 모르고 냅다 달려갔습니다.

맥이 진해진 그들은 점점 걸음발이 떠지더니 나중에는 그자리에 멈춰서고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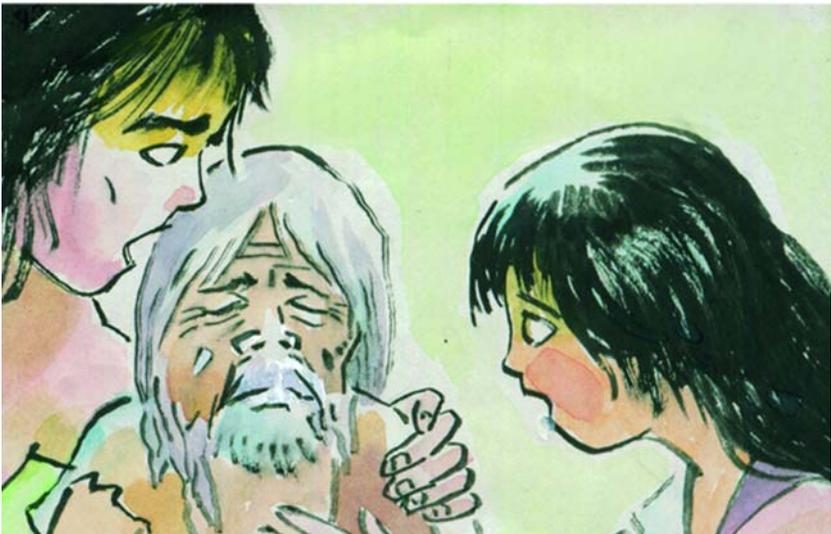
그바람에 나무잎은 멀리 떠내려가 영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

아왕녀는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겼던지 사위에 어둠이 스며들어 밤이 된것도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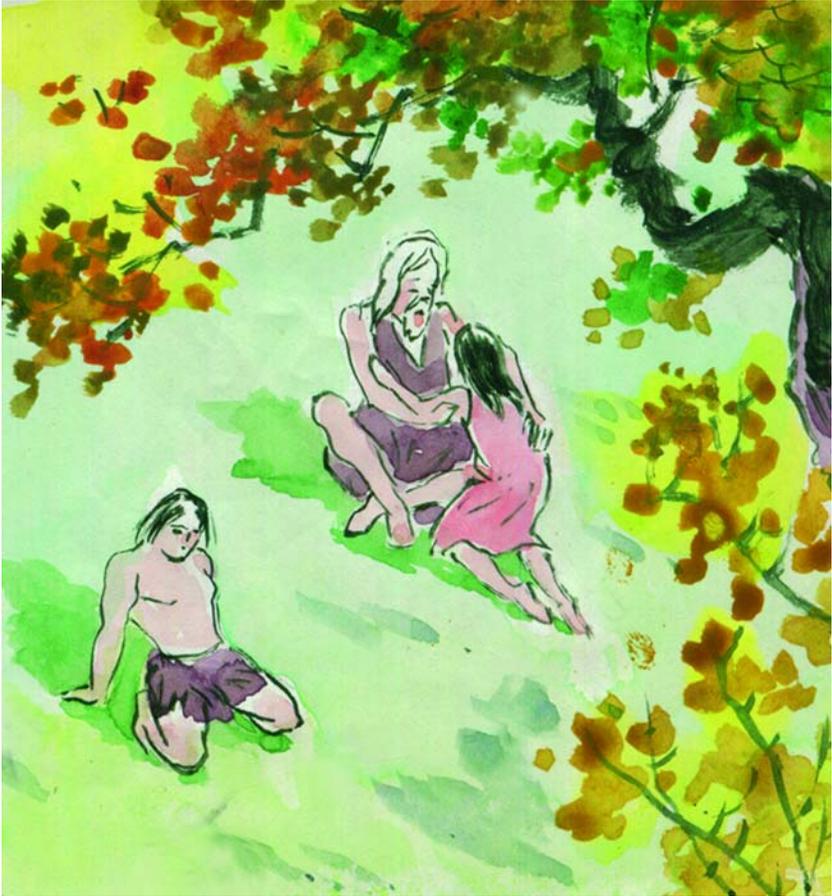
이때 어디선가 《으—응》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사람일가?》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신음소리가 나는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염이 더부룩한 웬 로인이 개울가에 쓰러져있었습니다.

그 로인의 손에는 푸른빛을 뿌리는 신기한 나무가지가 쥐여져있었습니다.

노루메젊은이는 로인을 안아 무릎우에 눕히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차리세요.》

아왕녀는 넓은 나무잎으로 고깔을 만들어 개울물을 떠다가 로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만에 정신을 차리자 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난 태양신을 찾아 아홉해를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니는 곰골에 사는 늙은이다. 그런데 태양신은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했단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 개울가에서 환한 빛을 뿌리는것이 있기에 태양신이 보내준 보물인가 하여 달려가보니 썩은

버드나무그루터기더구나.

아홉해만에 찾은것이 썩은 나무그루터기였으니 나는 억이 막혀 그만 정신을 잃었구나.》

세상풍파를 다 겪은 곰골로인은 모르는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와 함께 태양신을 찾아갑시다.》

아왕녀가 곰골로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늙은 몸이라 더는 기력이 없구나.》

곰골로인의 말에 노루메젊은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왕녀, 곰골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자구.》

아왕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노루메오빠! 곰골할아버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린 한뉘 이렇게만 살수 없지 않아요.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어달라고 태양신에게 찾아가 말합시다. 그럼 태양신이 우리를 구원해줄거예요.》

아왕녀의 뜨거운 마음에 노루메젊은이도 곰골로인도 머리가 숙어졌습니다.

《네 마음에 나도 어쩔수 없구나.》

아왕녀는 끌끌내 힘이 세고 용감한 노루메젊은이와 지혜

와 경험이 많은 곰골로인을 돌려세워 셋이 함께 태양신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셋이 같이 가니 아왕녀의 마음은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가고 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태양신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태양신을 찾아 벼랑을 톺아오르고 골짜기를 내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한 동굴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였습니다.

그날밤 갑자기 번개가 일고 우뢰가 꽈르릉거렸습니다.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일가요?

번개불이 번쩍 하고 땅으로 내리꽂히자 앞산너머 하늘이 대낮처럼 환히 밝아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저기가 태양신이 계시는 곳이 아닐가?)

이렇게 생각한 아왕녀는 일행과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달려가니 갑자기 숨이 콱콱 막혀왔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마주 불어왔습니다.
더는 앞으로 나갈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와 털코끼리들과 원숭이들이 다급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것이 보였습니다.
아왕녀는 하늘에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태양신이시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우리를 보살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옵소서.》
아왕녀가 애타게 빌고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바로 태양신이다. 가련한 사람들아, 내 그대들에게 불을 줄테니 받으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하늘을 날으는 태양신은 온몸이 온통 새빨간데 입에서는 세찬 불길을 확확 내뿜고있었습니다.
《아, 태양신. 고맙습니다. 태양신이시여, 고맙습니다!》
아왕녀와 노루메젊은이 그리고 곰골로인은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더위를 맞받아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찾고찾던 태양신입니까!
노루메젊은이와 곰골로인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더위는 점점 더 뜨겁게 그들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숨막힐듯한 더위에 가슴이 터질듯 답답해진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태양신가까이로 가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길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센 불길을 안고있어 태양신은 그들에게 맞는 작은 불씨를 도저히 줄수가 없었던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왕녀는 지난밤에 태양신을 만났던 일이 새록새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태양신이 내린 그곳으로 또 한번 찾아가보고싶었습니다.
《노루메오빠, 곰골할아버지, 태양신을 다시 찾아가봅시다.》
노루메젊은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몸이 온통 불에 끄슬린 곰골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감은채 머리를 저으며 알릴듯말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왕녀야, 이젠 돌아가자. 태양신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데 괜한 고생을 하지 말고.》
《돌아가자구, 아왕녀, 할아버진 운신도 못하는데 어떻게 또 찾아간다고 그래.》
노루메젊은이도 할아버지의 말에 같이 응해나섰습니다.
아왕녀는 어떻게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였습니다.
《노루메오빠, 그럼 여기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리다가 몸이 추서면 돌아가세요. 나 혼자 태양신을 찾아가겠어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노루메젊은이는 아무리 아왕녀를 달래였으나 종시 그

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곰골로인과 노루메젊은이는 동굴에 남고 아왕녀는 또 태양신을 찾아 홀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외롭게 걷는 아왕녀의 마음은 몹시도 쓸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태양신을 만났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양신은 보이지 않고 다만 중둥이가 부러진 나무들과 더위에 죽은 짐승들만 여기저기 널려있을뿐이였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던 아왕녀는 큰 바위밑에서 무엇인가 별처럼 반짝이는 밤알만 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꺾어진 수삼나무가지끝에서 흰안개를 피워올리는 그것은 따스한 빛을 뿜으며 아왕녀를 어서 오라고 부르는것 같았습니다.

소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신비로운 빛을 더 세게 내뿜는 보배— 거기서 뿜어져나오는 따스한 온기는 아왕녀의 온몸을 감싸주는듯 하였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태양신이 나에게 주고간 보물이로구나!)

아왕녀는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불씨였습니다.

아왕녀는 조심스레 불씨가 붙어있는 나무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불씨에서는 불길이 확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신비로운 빛을 뿌렸습니다.

《찾았다!—》

아왕녀는 산발이 찌렁찌렁 울리게 소리쳤습니다.

아왕녀는 불씨를 가지고 노루메젊은이와 곰골로인이 있는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도 기뻐 나는듯이 숲을 헤치며 달려가던 그는 아뿔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디여 물살 빠른 산골물에 풍덩 빠지고말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 내여 간신히 기슭으로 기여나오긴 했

으나 그의 손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가지뿐 그처럼 귀중히 여기던 보배— 불씨는 간데온데없이 꺼져버렸습니다.

글쎄 그게 어떤 보배인가요. 아왕녀가 어떤 고생을 치른 대가로 얻은 불씨였던가요.

《인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왕녀는 땅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왕녀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게 울렸던지 숲도 잎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슬방울을 눈물마냥 조용히 떨구었습니다.

흐르던 내물도 발치에서 감돌며 좀처럼 흐르지 못했습니다.

아왕녀는 몇날몇밤을 괴로움속에서 모대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싶었으나 빈손으로 갈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태양신을 만났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귀중한 보배를 한번 더 찾아보자.)

아왕녀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섰습니다.

태양신을 만났던 곳에 다시 찾아간 아왕녀는 그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더는 불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신이시여! 죄많은 이 소녀를 용서해주옵소서. 저를 가긍히 여겨 한번만 더 보살펴주옵소서.》

아왕녀는 하늘을 우러러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불을 안고있는 태양신은 그에게 불씨를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양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왕녀의 굳은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태양신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골짜기로 오르고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온 숲이 쐬쐬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왕녀는 날려가지 않으려고 커다란 바위를 붙안고 바람이 멎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줄을 몰랐습니다.

바람은 온 숲을 통채로 떠갈듯 미친듯이 불어대며 나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맞부딪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였습니다.

아왕녀는 그런 경황에서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바람에 흔들거리며 오래동안 서로 마주 비벼대는데 거기서 알수 없는것이 반짝거리더니 마침내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왕녀는 날쌔게 불길이 이는 그 나무우로 기여올라 가지 하나를 꺾어들었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아왕녀는 기뻐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태양신이여! 고맙습니다. 참말 고맙습니다!》

아왕녀는 해님을 우러러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쪽 나무우에서도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기도 태양신이 보물을 내려보내주었구나!)

아왕녀는 그 나무우에도 올라가 불붙는 가지를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그는 빨간 불찌가 달려있는 나무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찌는 서로 마주 비벼대는 그속에 있었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 자주 맞비빌수록 더 빨개지는것이였습니다.

아왕녀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진 광풍, 나무들의 요동, 세찬 쓸림과 번쩍이는 빛, 타오르는 불길!…

나무에서 내려온 그는 불씨가 달린 나무를 땅우에 놓고 마른 나무가지 두개를 량손에 쥔 다음 힘껏 마주 비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에 대였는데 나무가 뜨거워 흠칠 놀랐습니다.

아왕녀는 열심히 나무를 맞비비였습니다.

그러나 불씨를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맞비비던 아왕녀는 드디여 불씨를 얻어내고야말았습니다.

《불씨다! 불씨를 얻었다!―》

아왕녀는 저도모르게 소리지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웃어보는 웃음이였습니다.

이 불씨만 있으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구원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일시에 몰렸던 피곤이 달아나고 온몸에 새힘이 솟구쳤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하고 천둥이 울었습니다.

올려다보니 온몸이 새빨간 태양신이 불길을 펄펄 날리며 하늘을 날고있었습니다.

《얘야, 기특한 얘야. 내가 주지 못한 불씨를 네가 기어이 찾아냈구나. 장하다!》

태양신의 우렁찬 목소리는 천둥이 우는듯 하였습니다.

불씨의 비밀을 알게 된 아왕녀는 더는 태양신을 찾지 않

았습니다.
그는 기쁜 걸음으로 노루메젊은이와 곰골로인이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벌써 눈꽃이 날리는 초겨울이여서 날씨가 몹시 쌀쌀했지만 아왕녀의 얼굴에선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동굴에 이르니 노루메젊은이와 곰골할아버지는 둘이 꼭 그러안은채 꽁꽁 얼어있었습니다.
아무런 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노루메오빠. 불씨를 찾았어요. 눈을 뜨세요.》
아왕녀는 엎드려울며 그들을 애타게 찾았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왕녀는 얼음장처럼 찬 그들의 시신이 죽어서라도 따뜻한 빛을 쬐게 하려고 그옆에 자그마한 모닥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동굴안은 봄날처럼 따뜻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요?
죽어가던 노루메젊은이와 곰골할아버지가 동굴안이 훈훈해지자 얼굴에 화기가 돌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것이였습니다.
아왕녀가 찾은 불씨는 노루메젊은이와 곰골로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왕녀야!》
그들은 서로 붙안고 한동안 떨어질줄을 몰랐습니다.
두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였습니다.
《아왕녀야, 너의 굳센 의지가 태양신도 주지 못하는 불씨를 끝내 찾아내게 했구나.》

곰골로인과 노루메젊은이는 아왕녀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였습니다.
아왕녀가 더없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으나 그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불씨의 비밀을 찾은 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제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헤여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행복의 보물— 불씨를 안겨주기 위해 헤여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왕녀는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니 파파늙은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아왕녀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왕녀야! 네가 왔구나.》
할머니는 아왕녀를 껴안고 두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져주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은 참으로 많이도 흘렀습니다.

아왕녀가 떠날 때 철부지였던 마을아이들은 그사이 모두 어른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이렇게도 세월이 빨리 흘렀을가?》

아왕녀는 새삼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네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온 아왕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직껏 안돌아오니 사나운 짐승들에게 잘못된줄로만 알고있었던것입니다.

그들은 아왕녀를 둘러싸고 모두 반가와하였습니다.

아왕녀는 그들앞에서 나무를 맞비비여 불씨를 얻어내고 그것으로 불길을 지펴놓았습니다.

대번에 따뜻한 온기가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아왕녀의 굳센 의지가 찾은 한점의 불씨는 이렇게 점차 여기저기서 불길로 타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루메에서도 곰골에서도 방방곡곡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추위를 이겨내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불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보배로 되였습니다.

포수와 금하늘소

옛날 서해 어느 기슭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인적이 드문 고장이여서 그저 무명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명촌은 얼마나 궁색한 마을이였던지 새들마저도 깃들지 않았고 불어지나는 봄바람도 이 동네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불어가 꽃을 피우군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장쇠와 돌쇠라는 포수형제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척박한 무명촌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 짐승사냥을 하여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는 언제나 의가 좋아 화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토질병까지 생겨 마을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무명촌을 뜨기 전에는 그 화근을 면할수가 없었습니다.

한집, 두집 마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명촌엔 빈집이 늘어났고 마을은 초라해져 인적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형과 함께 사냥을 갔다 돌아오던 돌쇠는 장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마을을 뜨고맙시다. 물이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찾아가잔 말이예요. 어떻게 장창 이렇게야 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형은 펄쩍 뛰였습니다.

《아니 뭐라구? 그게 무슨 말이냐?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들이 나서자란 이 땅을 어떻게 떠난단 말이냐?》

형제는 난생처음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그냥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땅과 물이 나빠 병이 생기는데다가 농사가 안되지, 바람이 세차서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여기서 어떻게 산다구 그래요? 봐요. 다들 떠나가는데 왜 우리만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동생의 푸념을 듣는 장쇠는 몹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의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모든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사랑하는 장쇠는 차마 마을을 뜰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무명촌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자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끝까지 도리질을 하였습니다.

《네 결심이 정 그렇다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너 혼자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 떠나거라. 이 이상 더 말리지는 않겠다. 》

형은 동생을 달래다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돌쇠에게 사정하다싶이 하였으나 그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돌쇠는 저 혼자 무명촌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친형제가 서로 작별한다는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였습니다.

더우기 나서 처음 헤여지게 되는 그들의 마음은 칼로 에이는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럴수록 장쇠의 가슴속에서는 무명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꾸려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생도 다시 찾아와 모두 함께 모여살수 있지 않겠는가!)

동생이 떠나간 다음부터 형 장쇠는 이렇게 마음먹고 안해와 함께 매일 이른새벽에 새벽별을 이고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밤늦게 달빛을 지고야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그는 밭의 돌들을 추어내고 뚝을 쌓고 과일나무를 떠다심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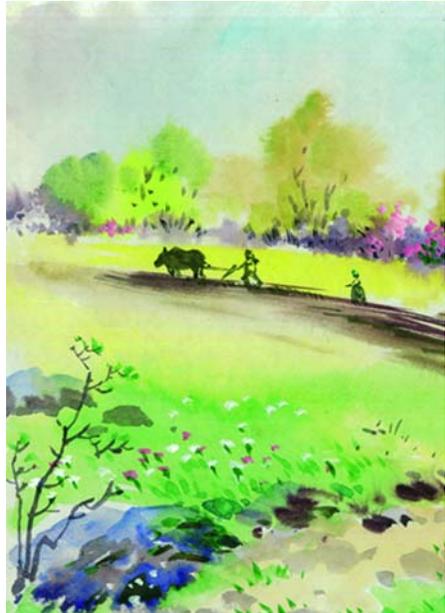
이따금 짐승사냥을 하여 장에 내다팔아 쌀과 소금도 사왔습니다.

그러느라니 장쇠내외는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너희들이 꽤 해내겠느냐?》

어머니도 걱정이 되여 이렇게 묻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정신을 오직 마을꾸리는데만 쏟았습니다.

그런데 엎친데덮친격으로 돌쇠가 떠나간 뒤 시

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병이 더 심해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해는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고 장쇠 혼자 일하러 나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졌습니다.

장쇠도 할수없이 안해와 함께 어머니곁을 떠나지 못하고 병구완을 하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마을에 있는 의원에게 찾아가 어머니병을 보였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올방자를 틀고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한 약재로는 삼과 록용이 있는데 임자 어머니의 병증세를 보니 삼중에서도 비삼이 맞을것 같네. 그 비삼인즉 바로 까마귀열인데 까마귀 세마리를 잡아서 열을 내여 쓰면 차도가 있을걸세.》

장쇠는 의원의 말을 듣고 그길로 달려가 까마귀 세마리를 잡아 열을 내여 어머니에게 드리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너무 깊은지라 어머니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장쇠는 이번엔 고개너머 먼 마을에 있다는 용한 의원을 찾아가 어머니병에 쓸 약방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의원은 장쇠의 말을 끝까지 다 듣더니 천길벼랑우에 돋는다는 불로초를 캐여다 쓰면 효험이 있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쇠는 손톱발톱이 다 닳도록 천길벼랑우에 톺아올라가 불로초를 캐여 써보았으나 그것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지어는 오동지달에 산딸기를 따다가 쓰면 즉효가 있을것이라 하여 한달열흘동안 눈속을 뒤지고뒤지여 겨우 딸

기 한줌을 구하여 어머니에게 드렸으나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어머니병은 쇨대로 쇠여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마을이나 꾸려라.》

장쇠는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못이겨 낮에는 나가 마을을 꾸리고 저녁이면 들어와 병구완을 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도 감동되여 하나, 둘 장쇠를 도와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돌쇠가 마을을 떠나간지 몇해가 지나갔습니다.

그사이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돌밭에 과수원이 생겨나고 꽃들이 피여나고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위중해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봄 장쇠는 꿀처럼 달디단 능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나무모를 얻으러 갔다가 봄에 잡은 사슴의 피나 록용이 어머니병에 좋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장쇠는 얻어온 능금나무모를 뒤산에 심고는 활을 메고 숲속에 들어가 사슴을 잡으려고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이고장엔 사슴이 몹시 귀했습니다.

며칠을 오르내리였으나 도저히 사슴을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장쇠네 집 마당에 초라한 한 로인이 꼬부랑지팽이를 짚

고 나타났습니다.
그 로인은 주인을 찾더니 《길가던 나그네 해가 저물어 더 갈수 없어 그러니 댁에서 하루밤 쉬여가게 해주실수 없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가물거리는 등불아래서 약탕관에 초약을 달이던 마음어진 장쇠는 그 로인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집안형편이 너무도 한심하여 손님을 어떻게 모실지 몰라 머뭇거리던 장쇠는 로인에게 《우리 집은 몹시 루추한데다가 어머니까지 앓아누워계셔 손님을 편히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생각마시고 다른 집에 드심이 어떠하올지. 제가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벌컥 성을 냈습니다.
《아무리 인심이 박하기로서니 밤중에 힘들게 찾아온 길손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소?》
장쇠는 그 로인에게 쩔쩔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손님이 일없으시다면 열흘이라도 묵어가십시오. 저는 그저 손님이 불편하실가봐 짧은 생각에서 한 말이니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장쇠와 안해는 로인을 따뜻한 아래목에 모시고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로인은 상한 기분이 채 풀리지 않았는지 별로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차려준 음식을 다 없애고는 아무 말도 않고 그자리에 덤덤히 앉아있었습니다.
장쇠는 밖에 나가 장작을 한아름 안아다가 손님을 위해 군불을 때고 아래목에 자리를 펴드리였습니다.
로인은 자리에 눕자마자 집이 떠나가게 드릉드릉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코를 어찌나 세게 골았던지 앓는 어머니는 물론 장쇠

내외도 온밤을 꼬박 새우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장쇠내외는 조금도 다른 티를 내지 않고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로인은 차려주는 아침상을 말끔히 다 비우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장쇠내외는 로인을 동구밖까지 친절히 바래주었습니다.

로인을 바래주고난 장쇠는 자신을 몹시 원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손님의 노여움을 샀던고? 떠나갈 때까지도 노여움을 푸시지 못한걸 보니 내 언행이 얼마나 바르지 못하고 무례했던가?)

장쇠는 그날도 또 활을 메고 뒤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며칠을 오르내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사슴은커녕 그림자도 볼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장쇠는 산에 올라가 과일나무를 심다가 숲속에서 무엇인가 언듯 나무가지같은 뿔을 인 짐승이 뛰여가는것을 보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따라가보니 그 짐승은 사슴이 아니라 노루였습니다.

장쇠는 맥을 놓고 내려오다가 그만 나무에 걸채여 벼랑밑에 굴러떨어지고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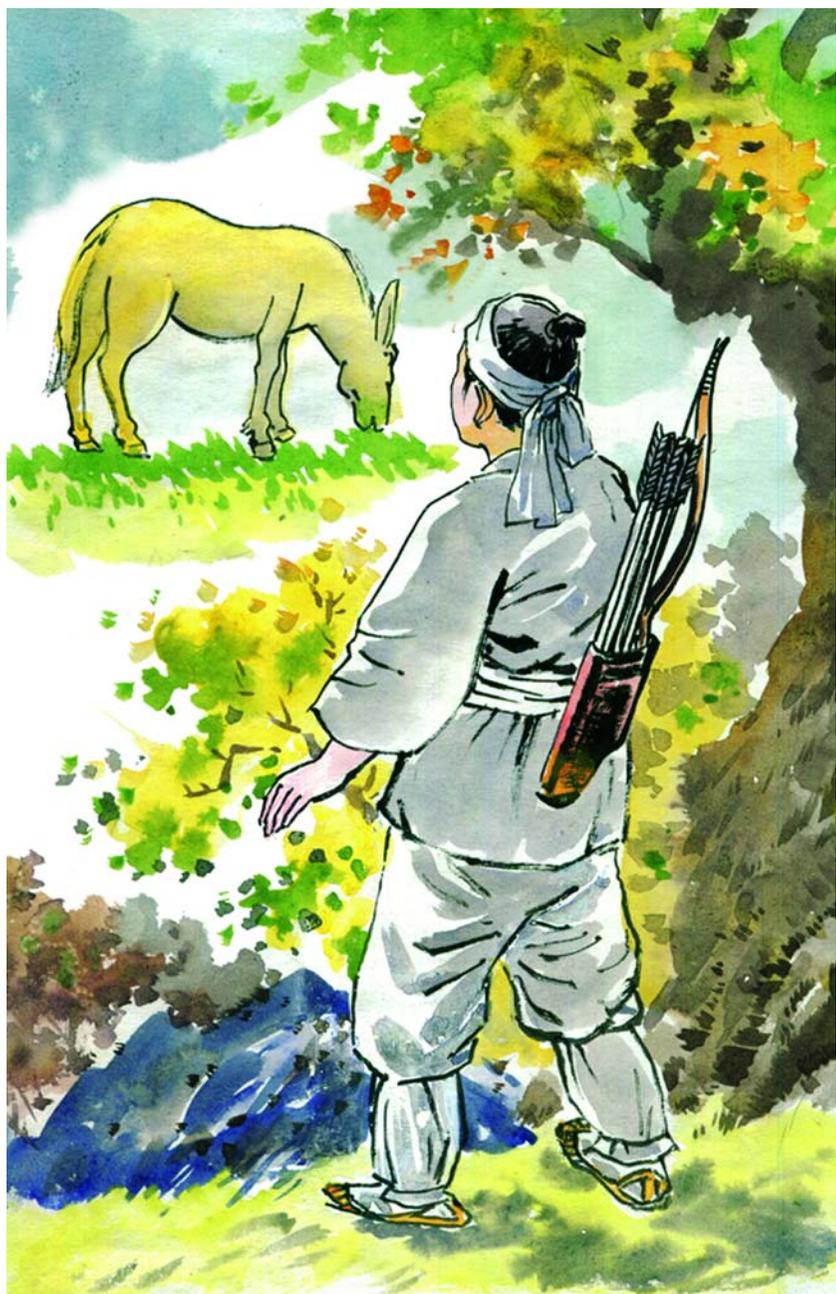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장쇠가 무슨 소리에 놀라 깨여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쇠앞에 안개가 뽀얗게 서리였는데 점차 걷히더니 자그마한 하늘소를 타고앉아있는 한 로인이 나타났습니다.

장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여 눈만 껌벅거리고있

였습니다.
《무명촌의 젊은이, 머리를 들고 나를 자세히 보라!》
로인이 장쇠에게 말했습니다.
장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가요?
그 할아버지는 얼마전에 장쇠네 집에 들렸던 바로 그 로인이였던것입니다.
《할아버지!》
장쇠는 그제야 알아보고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대는 마음도 어지고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지극하니 참으로 내 느끼는바가 크다. 모두가 마을을 떠나는데 그대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꾸리니 그 정성 하늘에 닿았노라. 진짜명약을 대줄테니 명심하여 들으라. 내 그대에게 금하늘소를 주겠노라. 그 금하늘소를 따라가면 금빛사슴 한마리가 나타날것인즉 무작정 그 사슴을 쏘라. 그러면 자연 알도리가 있으리라.》
《정말 고맙습니다.》
장쇠는 무릎을 꿇고 엎디여 몇번이고 몇번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타고온 하늘소에서 훌쩍 뛰여내려 꼬부랑지팽이로 하늘소잔등을 툭툭 세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하늘소는 갑자기 눈부신 빛을 뿌리는 금하늘소로 변했습니다.
장쇠가 넋을 잃고 멍하니 서있는 사이에 금하늘소는 껑충껑충 뛰여 산말랭이로 올라가 숲속으로 사라지고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장쇠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저 금하늘소를 따르라. 금하늘소는 세상에서 제일 경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다니는 짐승이니 그런 곳만 찾으면 만날수 있을것이다. 어서 그런 고장을 찾아내여 어머니약을 구하도록 하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장쇠가 또다시 땅에 엎디여 절을 하고 머리를 드니 할아버지는 간데온데없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장쇠는 그길로 금하늘소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날아가는 새에게도 길을 묻고 길가에 피여난 꽃에게도 길을 물으며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금하늘소를 못보았나요?》
《예, 금하늘소요?》
그 어디에도 금하늘소의 행처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금하늘소를 찾아다니는 장쇠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장쇠는 할수없이 마을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멀리 갔던 그는 마을로 돌아오자니 지칠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장쇠는 어느 한 산마루에 이르자 락엽우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른아침 새들의 우짖음소리에 깨여난 장쇠는 해가 방금 떠오를무렵 노을이 비낀 숲속에서 무엇인가 번쩍! 하고 빛을 뿌리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금하늘소가 맑은 이슬이 맺힌 풀잎을 뜯으며 숲속에서 나오고있

었습니다.
《금하늘소다!》
장쇠는 저도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허둥지둥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하늘소주위에 뽀얗게 안개가 서리였습니다.
금하늘소는 안개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쇠는 금하늘소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안개속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후 안개가 걷히자 다시 보니 금하늘소는 없고 난데없이 금빛사슴 한마리가 발로 땅을 텅텅 구르며 서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금빛사슴이로구나!》
장쇠는 중얼거리며 화살을 먹인 활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피르릉! 화살은 면바로 날아가 금빛사슴의 다리를 맞혔습니다.
장쇠는 좋아서 사슴있는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주위에 또다시 안개가 뽀얗게 피여났습니다.
금빛사슴은 안개속에 묻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쇠는 영문을 몰라 눈을 비비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쪽 숲속에서 화살에 맞은 금빛사슴이 피가 흐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것이 보였습니다.
사슴은 겨우 몇발자국 걸어가더니 앞에 있는 샘물에 머리를 박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로 피가 흐르는 상처를 깨끗이 씻었습

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죽어가던 사슴이 상처입은 다리를 쭉 펴더니 땅을 짚고 름름한 자세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운이 뻗치는지 그자리에서 껑충껑충 몇번 뛰여오르는것이였습니다.

장쇠는 너무도 놀라와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금빛사슴은 장쇠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금빛사슴의 두눈에서는 《번쩍!》 하고 밝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사슴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껑충껑충 산으로 올리뛰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일이여서 장쇠는 사슴을 잡을념도 못하고 그저 멍청하니 서있었습니다.

얼마만에 제정신이 든 장쇠는 (아차! 이를 어쩌나? 사슴을 놓쳤으니.) 하고 소스라쳐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금빛사슴도 금하늘소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쇠의 머리엔 사슴이 마시던 그 샘물에 대한 생각이 번개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샘물터로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샘물에선 보석을 깔아놓은듯 칠색무지개빛이 뿜어져나왔습니다.

아침노을을 담고있는 그 샘물우엔 사슴의 피방울인듯 빨간 꽃잎 세송이가 동동 떠다니고있었습니다.

장쇠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자기도 끓어엎디여 그 샘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 물맛은 얼마나 향기롭고 달콤하던지 아무리 마셔도 그냥 마시고싶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고나니 온몸에선 새힘이 솟구치는것이였습니다.
(금하늘소가 찾아오고 신기한 샘물이 있는 이고장은 대체 어떤 마을일가?)
장쇠는 사위를 둘러보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요?
글쎄 그 마을은 무명촌이 아니겠습니까!
장쇠가 있는 그 산은 바로 무명촌의 뒤산이였습니다.
(그럼 우리 무명촌이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란 말인가?)
장쇠는 자기 마을을 다시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였습니다.
장쇠는 마을을 꾸리느라고 예전엔 미처 제고장의 아름다움을 느낄수가 없었던것입니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몇해를 두고 꾸리고 가꾼 무명촌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였던것입니다.
장쇠는 아름다운 자기 마을을 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였습니다.
장쇠는 신기한 샘물을 떠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자 얼굴에 피기가 돌고 생기가 나더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았습니다.
《애야, 웬일이냐? 그 물을 마시니 아픔이 다 사라지는구나.》
장쇠는 그날로 그 샘물옆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이사를 하였습니다.

매일 그 샘물을 마시고 그 물로 밥을 지어먹으니 어머니의 병은 다시 도지지 않았습니다.
장쇠도 그 물을 마시니 점점 힘이 세지였습니다.
아침에 그 물을 마시면 두팔에 힘이 솟고 점심에 그 물을 마시면 두다리에 힘이 솟고 저녁에 그 물을 마시면 온몸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물을 석달열흘 마시니 어머니의 병도 말끔히 가셔졌습니다.
안해도 그 물을 마시자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몰라했습니다.
그후부터 장쇠와 그의 안해는 힘을 합쳐 금하늘소가 나타났던 무명촌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해 직심스럽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벌가운데 있는 산을 허물어 옥답을 만들고 뒤산을 허물어 바다바람막이로 앞에다 쌓아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명촌은 아담하고 오붓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였습니다.
벌에선 낟알이 쏟아지고 산기슭 과수원에선 향기가 넘쳐났으며 숲속에선 갖가지 약초들이 자라났습니다.
고운 새들이 찾아와 무명촌숲속에 보금자리를 잡았고 노루며 사슴이며 산토끼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무명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습니다.
새들이 이 소식을 즐거이 날랐고 불어지나는 바람도 이 소식을 기쁘게 날랐습니다.
《무명촌이 살기 좋은 마을로 됐어요!》
《무명촌에 신기한 샘물이 났어요!》
그러자 무명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

니다.
마을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번 들려보고는 아예 무명촌에 눌러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커지고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장쇠만은 늘 수심에 잠겨있었습니다.
마을에 행복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높아갈수록 장쇠의 수심은 더 짙어만갔습니다.
그것은 동생때문이였습니다.
고향을 떠나갔던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돌쇠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쇠는 기다리다못해 돌쇠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려 알아보고 저 마을에 들려 동생의 행처를 물었으나 그 누구도 아는이가 없었습니다.
장쇠가 들린 마을은 백개인지 이백개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장쇠는 드디여 동생이 사는 마을을 찾아내고야말았습니다.
《돌쇠야!—》
장쇠는 돌쇠가 산다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집마당에 들어서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장쇠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돌쇠네 온 식솔은 모두 자리에 누워 앓고있었습니다.
돌쇠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가 하여 장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 장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쇠도 돌쇠가 너무도 변하여 동생이 분명하기나 한지 얼떠름해있었습니다.
돌쇠는 머리칼이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되였던것입니다.
남이 보기엔 형인 장쇠가 동생처럼 보였고 동생인 돌쇠가 형인것만 같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일이예요?》
《돌쇠야!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 서로 물으며 붙안은채 놓을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도 기막힌 일이였습니다.
돌쇠는 그사이 무명촌을 떠나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으나 꼭 마음에 드는 고장을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걸려 아무데나 주저앉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있었던것입니다.
돌쇠는 고생이 겹칠 때마다 어머니와 형님이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무명촌으로 다시 찾아가고싶지는 않았습니다.
장쇠는 동생에게 그동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의 말을 다 듣고난 동생은 너무도 놀라와 입을 딱 벌리고 말도 못하고있었습니다.
돌쇠는 형님을 다시 찬찬히 보았습니다.
구리빛얼굴, 이글거리는 두눈, 우람한 몸집… 그 모든것은 형이 장수가 되였음이 분명하였습니다.
《형님, 그럼 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던 그 신기한 샘물이 우리 무명촌에 있나요?》
돌쇠가 형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도 소문은 들었구나. 바로 그 샘물이 우리 마을뒤산에 있단다.》
《난 그런 샘물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돌쇠는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자책의 눈물이였습니다.
《돌쇠야,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장쇠는 동생을 데리고 무명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돌쇠에게는 모든것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무명촌은 산천이 변하여 잘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없던 산도 새로 생기고 있던 산도 없어졌는가 하면 맑은 강물이 물길을 따라 벌로 찰랑찰랑 흘러들고있었습니다.
이때 장쇠의 안해가 샘물을 한동이 가득 떠이고와서 돌쇠의 식구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자 돌쇠와 그의 안해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 얼굴에 피기가 돌면서 생기가 넘치였습니다.
돌쇠는 아름답게 꾸려진 무명촌을 돌아보면 볼수록 머리가 수그러졌습니다.
고향을 꾸리는데 땀 한방울 바치지 않은 자신이 몹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그 누구에게나 다같이 신비한 조화를 부렸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앓던 사람들은 병이 나았고 젊은이들은 장수가 되였으며 늙은이들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돌쇠도 돌쇠의 자식들도 그 물을 마시여 어느덧 장수가 되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어찌나 세졌던지 한번 도끼질에 아름드리나

무가 찍혀넘어지고 활을 쏘면 화살이 300리를 날아갔습니다.

나라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쇠와 돌쇠는 전장에 달려나가 몇백근짜리 철퇴를 공다루듯 마음대로 휘둘러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눕혔습니다.

그후 장쇠와 돌쇠는 백살이 훨씬 넘도록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인 장쇠가 동생 돌쇠보다 언제나 젊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샘물이 신비로운 조화를 부린다고 하여 그것을 신덕샘물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 동화를 읽은 여러분들도 온천군을 찾게 되면 오늘도 그 신비한 물이 쉴새없이 퐁퐁 샘솟는 신덕샘물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것입니다.

1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한 로인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세상과는 까마득하게 떨어져있는 산속에서 나무와 새들을 벗삼아 숲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로인은 자기가 가꾸는 산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제 살붙이처럼 사랑하였고 그 숲속에 깃들이고사는 새와 착한 짐승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 로인의 손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로인의 손길이 한번 가닿기만 하면 꽃은 여느 꽃들보다 더 곱게 피여나고 열매는 더 많이 달리고 향기로왔습니다.

로인은 자기가 가꾸는 이 산을 보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나어린 소년들이였습니다.

세 아들은 나이는 어렸으나 효성이 지극한 효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싱갱이를 하였습니다.

맏이는 맏이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제일 위한다고 생각했고 둘째는 둘째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제일 잘 돌봐드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만은 늘 자기에겐 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맏이가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루만이라도 좀 쉬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보배산을 가꾸겠어요.》

《그래, 참 기특두 하구나. 그럼 오늘은 너희들이 한번 보배산을 가꿔봐라.》

로인은 선선히 어깨에 걸쳤던 망태기를 맏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대신 산에 올라가 정성을 다해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숲을 가꾸었으나 웬일인지 꽃들은 하나, 둘 스러지기 시작했고 열매들은 향기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아들은 이상하여 아버지에게 죄다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로인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더니 《얘들아, 내 말을 명심해듣거라. 난 앞으로 장차 너희들에게 이 보배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헌데 너희들이 보배산을 가꾸면 꽃이 시들고 열매가 향기를 풍기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아무래도 너희들에겐 보배산을 가꿀 힘이 부족한즉 저 인간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키워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하는 뜻밖의 말에 어정쩡해서 선뜻 대

답을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날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이윽고 로인은 결심을 내린듯 말했습니다.

《자고로 효자는 아버지를 위하는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잇는것을 더 중히 여기거늘 지체말고 오늘 당장 집을 떠나도록 해라.》

그리하여 삼형제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곧 집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괴나리보짐을 하나씩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서 처음 집을 떠나는 그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향방을 알수가 없어 머뭇거리고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거동을 지켜보던 로인은 《애들아, 내 너희들을 데려다줄 새를 부를테니 게 잠간 섰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로인은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더니 보배산을 향해 삘리리삘리리 하고 세번 불었습니다.

그러자 보배산의 숲속에서 눈처럼 하얀 해오라기 세마리가 급하게 날아와 로인앞에 나래를 접고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해오라기들은 로인에게 물었습니다.

로인은 해오라기들에

게 삼형제를 태워다주라고 일렀습니다.

그 어디에나 못가본 곳이 없는 해오라기들은 알겠다는듯 긴 목을 주억거리더니 허리를 낮추는것이였습니다.

삼형제는 해오라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얘들아, 해오라기를 타고가느라면 인간세상이 나질 것인즉 마음드는 고장에서 힘을 키우도록 해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보배산을 가꿀 힘을 키워가지고 돌아오겠어요.》

삼형제는 아버지앞에서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푸드득》

해오라기들은 삼형제를 태우고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2

삼형제를 태운 해오라기들은 흰 날개를 펴고 끝없이 날고 또 날았습니다.

련련히 뻗은 산발들과 넓은 들을 수없이 지나고 댕기오리같은 푸른 강줄기와 거울같은 호수와 그리고 파도사나운 바다도 그냥그냥 지나갔습니다.

(보배산을 가꿀 힘을 어떻게 키울가?)

삼형제의 머리속에선 줄곧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발밑에서 뚝딱뚝딱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내려다보니 아담한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무쇠로 지은 집들이였습니다.

마을뒤산에 내린 삼형제는 깜짝 놀라 눈이 휑해 서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짜르릉!》 하고 또 우뢰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말짱 개이고 해님이 상공에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습니다.

해오라기들도 이상하여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짜르릉!》 하고 또 우뢰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삼형제는 산에서 내려 소리나는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코바람은 얼마나 셌던지 숨을 쉴 때마다 쇠로 만든 문이 열렸다닫겼다 하였습니다.

(굉장한 힘장사로구나!)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여 눈을 흡뜨고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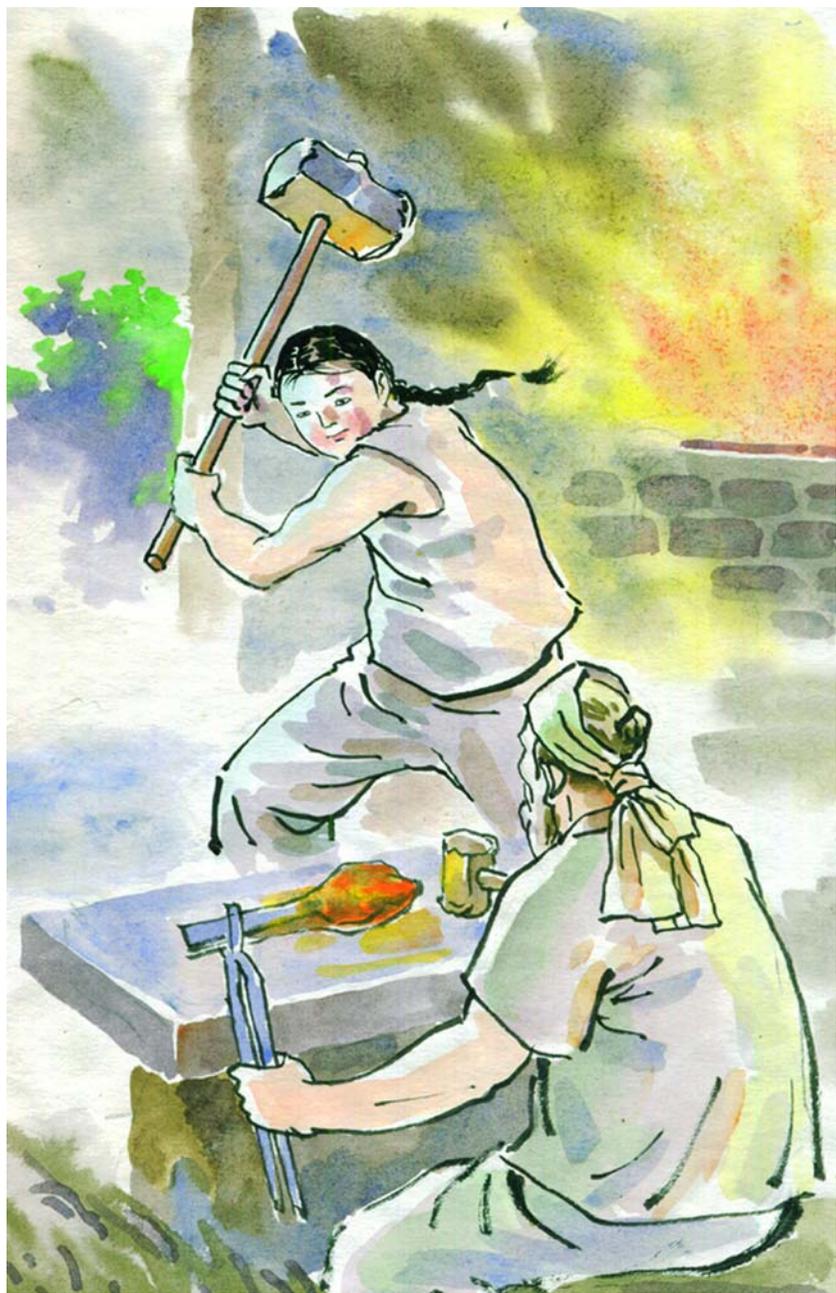
그러는데 힘장사가 잠에서 깨여나 뼈마디들이 우쩍우쩍 소리를 낼 지경으로 기지개를 켜더니 한손으로 쇠지붕을 척 들어올리고 훌쩍 밖으로 뛰여나오는것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삼형제를 보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 애들이냐?》 하고 제편에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맏이는 자기들이 떠나게 된 사연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힘장사는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마침 잘 왔다. 여긴 대장간마을인데 우리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힘장사들이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
《놀랄게 없다. 너희들도 여기서 같이 일을 하면 다 힘장사가 된단다. 나도 대장간에서 메질을 하여 이렇게 장사가 되였단다.》
맏이는 힘장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힘장사가 되였으면 하고 늘 꿈꾸던 맏이였으니까요.
《우리들도 여기서 일을 할수 있나요?》
《있지 않구. 저 마을쪽에 있는 대장간에 가면 할아버지 한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 할아버지는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있단다.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지 않겠니? 그 할아버지가 시키는대로 메질을 하면 나처럼 힘장사가 된단다. 힘만 세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무서울것이 하나도 없단다.》
맏이는 좋아서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같이 여기서 힘을 키우자꾸나.》
《아니, 난 싫어요. 땀흘리며 메질만 하는게 뭐가 좋아요?》
둘째가 볼부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다른 고장을 더 찾아가보겠어요.》
막내도 깊이 생각하다가 왜 그런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힘만 세면 보배산을 얼마든지 가꿀수 있을텐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나무를 떠옮기고 김을 매고 물을 주자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지 않니?》
맏이는 동생들을 달래다못해 제 혼자 여기 신기한 대장간마을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또다시 해오라기를 타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맏이가 타고온 해오라기는 보배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들과 헤여진 맏이는 마을끝에 있는 대장간으로 달려

갔습니다.
대장간에는 머리칼과 수염과 눈섭이 온통 새하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맏이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맏이는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갑구나.》
할아버지는 맏이에게 다짜고짜로 쇠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메는 어찌나 무거운지 두손으로도 겨우 들어올렸습니다.
《허허, 넌 꽤 약골이구나. 그러나 일없다.》
하더니 할아버지는 이번엔 그보다 더 작은 메를 주었습니다.
맏이는 그것도 힘에 부쳤지만 그런대로 들수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속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덩이를 모루우에 올려놓더니 맏이에게 메로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맏이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메로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쇠붙이는 할아버지가 집게로 요리조리 돌리는데 따라 떡반죽처럼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한참 두드려대니 쇠붙이들은 호미로도 되고 낫과 보습으로도 되는가 하면 새와 소모양으로도 되고 손달구지로도 되였습니다.
쇠로 벼린 새들은 금시 살아나 깃을 치며 날아가고 쇠로 만든 소들은 영각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히야!―》

맏이는 그 모든것이 신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맏이는 신이 나서 메질을 해댔습니다.
온몸을 땀으로 미역감으며 얼마동안 메질을 하니 지칠대로 지쳐 나중엔 메를 더 들어올릴 힘조차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할아버지는 연방 불길속에서 시뻘건 쇠덩이를 꺼내여 그것을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맏이는 안깐힘을 써가며 또 메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종시 쓰러지고말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엄한 눈길이 맏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다시 일어나 메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솜처럼 나른하던 맏이의 온몸에서 부쩍부쩍 새힘이 생겨나는것이였습니다.
그는 메질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은 점점 더 솟구쳐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석달열흘 그냥 메질을 해대니 그렇게도 무겁던 쇠메가 나무망치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이 메로 두드려라!》
할아버지는 맏이에게 전보다 더 큰 메를 주었습니다.
그는 큰 메로 열심히 메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맏이의 온몸에선 힘이 빠지고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메질은커녕 서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한 눈길로 맏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그는 비칠거리며 겨우 다시 일어나 메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른하던 맏이의 온몸에선 무서운 힘이 용솟아오르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메질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은 점점 더 솟구쳐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석달열흘 그냥 메질을 해대니 또 그렇게 무겁던 쇠메가 나무망치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이 메로 두드려라.》
할아버지는 맏이에게 전보다 더 큰 메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번 거듭하니 어느덧 떡메만한 쇠메도 한손으로 휘둘러댈만한 장사가 되였습니다.
쟁강쟁강 뚝딱!
대장간에서는 메질소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봄에도 겨울에도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메질소리는 힘차게 울리였습니다.
힘장사가 된 맏이는 그 어떤 쇠덩이도 한번 메질에 지짐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네. 이젠 내가 메질을 할테니 임자가 벼려보게.》
어느날 할아버지는 맏이에게 집게를 넘겨주고 대신 메를 받아들었습니다.
집게를 받아든 맏이는 이리저리 쇠덩이를 굴리며 간단한 농쟁기를 벼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땐 별것이 아닌것 같았는데 정작 해보니 여간만 까다롭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속을 태우던 맏이는 종시 집게를 땅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쓰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겠는데 이 일만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허허, 임잔 통 머리쓰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구만.》

그리하여 맏이는 몇해동안 대장간에서 고스란히 메질과 풀무질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맏이는 집채같은 바위도 단매에 부서뜨릴수 있는 힘장사가 되였습니다.

글쎄 얼마나 힘이 세졌던지 처음에 만났던 그 힘장사도 맏이와의 힘겨루기에서는 지군 하였으니까요.

3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그들은 해오라기를 타고 그냥 하늘을 날아갔답니다.

사흘만에 그들의 발밑에 마을이 또 나타났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마을뒤산에 내렸습니다.

마을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들은 금시 쓰러질듯한 초가집이였고 길은 얼마나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지 풀이 한길이나 자라 겨우 오솔길이 나 있을뿐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앉아 책을 들고 궁둥방아를 찧으며 무엇인가 중얼중얼 외우고있었습니다.

둘째가 길가는 한사람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마을입니까?》

그 사람은 둘째와 셋째의 아래우를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여긴 글만 읽는 서당마을이란다. 그래서 글마을이라고도 하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글마을이요? 글은 배워서 뭘합니까?》

《하참, 이런 답답한 친구라구야. 글을 배우면 슬기가 생겨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단다.》

《그래요?》

워낙 오륙을 놀리기 싫어하던터라 둘째는 그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다 말하고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글만 읽으면 보배산을 얼마든지 가꿀수 있겠군요?》

《암 물론이지. 글만 배우면야 세상만물리치가 환해져 못하는 일이 없구말구.》

그래서 둘째는 좋아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여기 서당마을에서 같이 글을 배우자꾸나.》

그러나 셋째는 깊이 생각하더니 왜 그런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형님, 난 좀더 다른 고장을 찾아가보겠어요.》

《넌 무슨 고생을 못해서 그러니? 방안에 앉아서 글만 외우는게 좀 좋으냐?》

둘째는 동생을 달래다못해 혼자 남고말았습니다.

셋째는 해오라기를 타고 또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막내와 헤여진 둘째는 그 사람이 대주는 어느 한 집을 찾아가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글을 배워주십시오.》

훈장은 둘째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캐여묻더니 그를 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난생처음 해보는 글공부라 여간만 힘들지 않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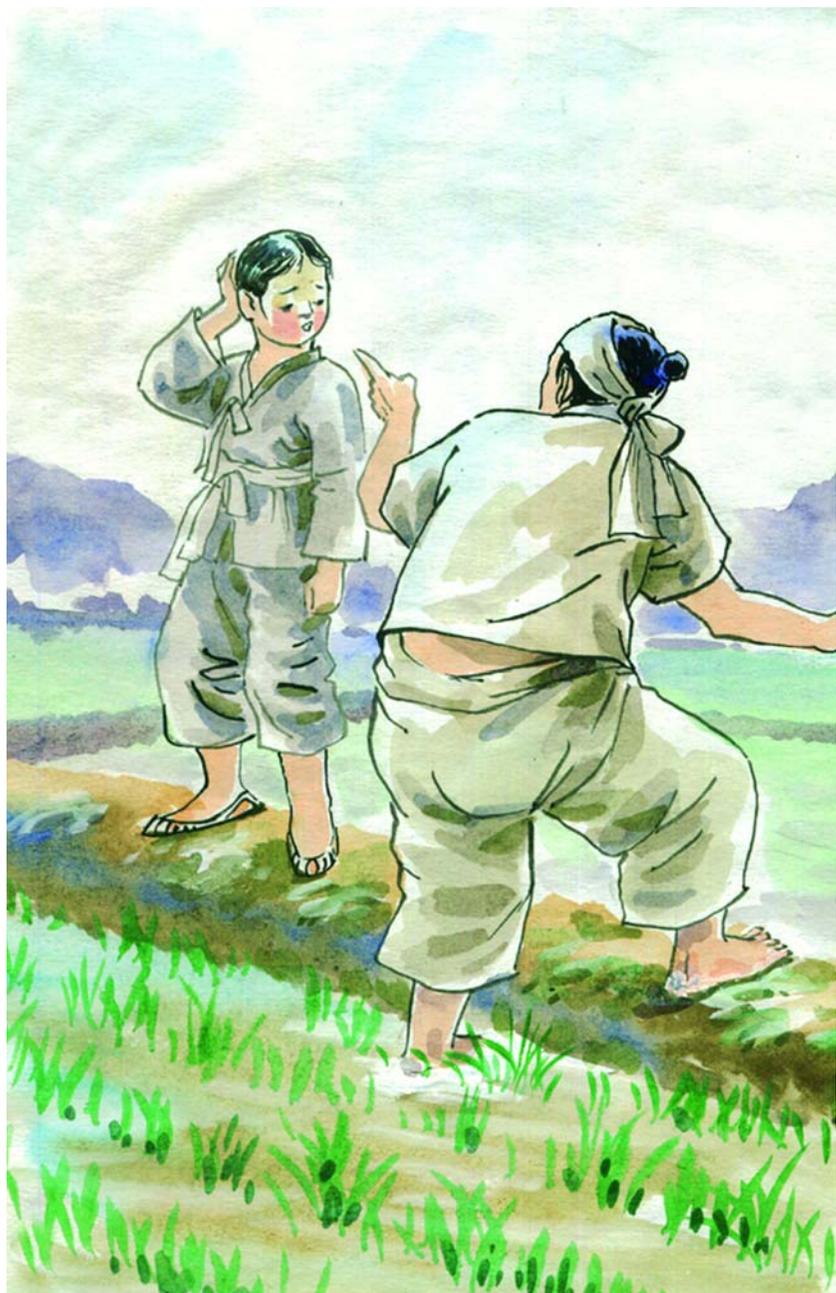
니다.
다리를 꼬부리고 진종일 앉아 글을 외우느라니 발이 가드라들고 눈앞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어느날 둘째는 공부를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훈장이 이것을 보고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훈장은 둘째를 내다세워놓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게 하고는 사정없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습니다.
《너 이놈! 글을 배우겠다는 녀석이 시퍼런 대낮에 졸다니? 어디 회초리맛을 좀 봐라.》
휙— 휙— 회초리를 휘둘러대는 소리가 귀가에 아츠럽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눈을 꾹 감고 입술을 깨물며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내 이러다가 아버지뜻을 잇지 못하게 되지 않을가.)
그다음부터 둘째는 졸지 않기 위해 머리끄뎅이에 줄을 매고 그것을 용마루에 잡아매였습니다.
그래 졸기만 하면 잡아맨 끈이 머리칼을 당기는 바람에 《이크!》 하고 번쩍 정신을 차리군 하였습니다.
그는 바깥세상과는 담을 쌓고 무릎이 닳도록 꿇어엎디여 글공부만 하였습니다.
그래 언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날 둘째는 글을 외우다가 퇴마루에서 내려 소풍을 하려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방금 외운 글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자 지붕우에서 묵은 가랑잎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땅에 날아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그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추풍락엽이다. 가

을바람에 락엽이 지니 오곡을 거둬들일 때가 되였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뒤뜰안 과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과수원의 능금나무들은 잡초속에 묻혀 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흔들고있었습니다.
《엉?! 왜 능금이 한알도 없을가? 벌써 다 땄나?》
둘째는 새빨간 능금이 가득 주렁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한알도 안보이니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는 춘삼월이여서 능금나무는 이제 방금 움이 트고 꽃망울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둘째는 해묵은 가랑잎 하나가 떨어지는것을 보고 가을인줄 알았던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내려와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뒤뜰안의 능금은 언제 다 땄습니까?》
훈장은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글쎄, 언제 다 땄을가?》
훈장은 물론 글배우던 사람들도 모두 책속에 파묻혀있다나니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서당마을에 뜻밖에도 큰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무더기비가 와서 골짜기가 메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바람에 서당마을이 통채로 물에 떠내려가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글읽던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달려나와 큰물을 막아보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지붕우에 올라가앉아 책을 뒤적거리며 《용산용수하려면 치산치수하나니라. 옛 성인께서 산을 쓰고 물을 쓰려면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라 하였

거늘…》 하고 중얼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비는 그치고 물은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둘째는 여전히 《용산용수하려면 치산치수하나니라.》 하고 중얼거리기만 하였습니다.
훈장은 큰물을 막으려고 바삐 덤벼치던 서당아이들을 한참 꾸짖고나서 《임자야말로 글을 배운 선비답네.》 하고 둘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후 둘째는 더 열심히 글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4

셋째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두 형과 헤여진 셋째는 해오라기를 타고 혼자서 끝없이 훨훨 날아갔답니다.
꼬박 사흘을 날아 어느 벌방을 지나가던 그는 자기 발밑에서 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해오라기야, 저 마을에 내려보자꾸나.》
셋째는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넓은 밭에 곡식포기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고여있었던것입니다.
《아니, 밭에 물이 저렇게 많고서야 어떻게 농사를 짓나?》
셋째는 밭으로 달려들어가 물곬을 막고 물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곡식들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가?)

셋째는 영문을 몰라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어데선가 한 농민이 뛰여오더니 다짜고짜로 그를 밭에서 잡아끌어냈습니다.
《넌 어디서 온 애냐?》
농민은 성이 나서 물었습니다.
셋째는 눈이 퀭해서 떠듬떠듬 제가 살던 고장과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제야 농민은 알겠다는듯 허구픈 웃음을 웃고나서 《이것은 벼라는 곡식인데 물에서 자란단다. 여기서 이삭이 나오고 가을에는 이삭에 알이 달리는데 그것은 낟알중에 으뜸이다. 그 낟알을 익히면 눈처럼 흰 쌀밥이 된단다.》 하고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산골에서만 살아온 그는 여기서 난생처음 곡식들이 물속에서 자라는것을 보았던것입니다.
농민은 물꼶을 터치더니 밭에다 물을 대였습니다.
그러자 시들었던 곡식포기들이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나 으쓱으쓱 자라올랐습니다.
《야!》
셋째는 너무도 놀라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긴 무슨 마을이나요?》
《우리 마을은 몇해전에 새로 생겼는데 농사짓는 마을이란다.》
셋째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을 갓 펴기 시작한 새로 생긴 마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여기 머물러 낟알중에 으뜸인 벼농사짓는 그 신기한 재간을 배우고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엔 아버지의 손처럼 신기한 힘이 깃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배산을 가꿀 힘을 키우리라.》
셋째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해오라기야, 이젠 돌아가렴.》
해오라기는 셋째와 작별인사를 하고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해오라기와 헤여진 셋째는 농민이 김을 매는것을 보자 자기도 바지를 걷어올리고 논에 들어가 함께 김을 맸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그 농민이 돌피를 뽑는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하였는데 잘 몰라 그만 벼포기를 마구 뽑았습니다.
《애야, 그건 돌피가 아니란다.》
셋째는 돌피와 벼를 분간할줄 몰라 또 웃음거리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까근까근하게 물어 일을 눈에 익히고 손에 익히였습니다.
어느덧 논과 밭에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풍년가을이 왔습니다.
셋째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신바람이 나서 풍년든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벼알들이 수북이 쌓이는것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외적들이 새 마을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졌다는 소문을 듣고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였습니다.
가을을 끝내자 마을사람들은 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마을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는 여기에도 발벗고나섰습니다.
마을사람들과 같이 성을 쌓으면서 그는 여러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돌을 쪼아 다듬는 일도 배웠고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높이 쌓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며 열심히 일을 하다나니 셋째는 저도모르게 점점 힘이 세지여 장사가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셋째가 무거운 돌을 겨우 들어 힘내기로 성을 쌓고있는데 난데없이 머리가 훌렁 벗어지고 풍채좋은 수염이 가슴우에까지 내리드리운 한 할아버지가 공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잡이에 룡대가리가 새겨진 지팽이를 짚고서서 셋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돌을 재간있게 쌓는것을 한참이나 유심히 살펴보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습니다.

《힘과 재간은 있는데 궁냥은 트지 못했구나. 참으로 아쉽도다.》

하더니 그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를 찾았으나 그 어디서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힘과 재간은 있는데 궁냥이 트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뜻일가?)

그날밤 셋째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들지 못하고 이리궁

싯 저리궁싯 돌아누우며 밤새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셋째는 기어이 알아보리라 마음먹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며칠동안 깊은 산속에서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벼랑밑에서 안개가 자오록이 피여오르더니 한 할아버지가 안개를 걷어차며 훨훨 걸어가고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찾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셋째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찾아온 사연을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저에게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셋째를 그윽한 눈길로 한참동안 내려다보더니 《힘과 재간은 있는데 궁냥이 트지 못했다는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인즉 그 지혜를 키우려면 글공부를 해야 하네. 그대는 여기서 글공부를 할 의향이 없는고?》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힘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 무슨것이나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오늘부터 여기서 글을 배우도록 하게.》
그날부터 셋째는 할아버지와 초막에서 같이 살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령리한 셋째는 하나를 배워주면 둘을 알았고 둘을 배워주면 넷을 깨쳤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세상리치를 배우는것이 점점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드디여 글을 다 배운 셋째는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마을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힘겹게 들어 성을 쌓

는것을 보니 무엇인가 번개치듯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활차를 만들어주어 그들이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셋째를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궁냥이 트지 않았다는것은 힘내기로만 일을 하려는것을 두고 한 말이였구나.)
셋째는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힘과 슬기를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먹만한 벼알이 달리는 신기한 벼도 만들어냈고 백리밖에까지 향기가 풍기는 신기한 과일나무도 키웠습니다.
그중엔 한 나무에 열두가지 과일이 열리는가 하면 겨울에 꽃이 피고 겨울에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셋째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셋째는 어느덧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느날 셋째의 머리우에서 새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올려다보니 자기를 태워다준 바로 그 해오라기가 마을우를 날아돌고있었습니다.
《해오라기야, 어떻게 왔느냐？》
셋째는 반가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셋째아저씨,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뭐, 아버지가 부르신다구？》
셋째는 급히 길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곡식종자들과 신기한 과일나무씨앗들을 잊지 않고 싸넣었습니다.
셋째는 못내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마을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다음 해오라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5

대장간마을에서 힘장사가 된 첫째와 서당마을에서 글만 읽은 둘째도 해오라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떠나올 때 떡메만한 쇠메를 가지고왔고 둘째는

세상만물치리가 다 적혀있다는 책들을 한짐 지고왔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보배산을 가꿀 힘을 키워가지고 왔느냐? 》
《예. 》
삼형제는 모두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이 어떤 힘을 키워왔는지 알고싶어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하늘에서 벼락을 치더니 보배산 옆산에 큰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세 아들을 불러앉히였습니다.
《얘들아, 그간 너희들이 키워온 힘으로 저 산불을 끄거라. 》
《예, 제가 산불을 끄겠습니다. 》
맏이가 큰소리로 대답하고 대장간마을에서 가져온 쇠메를 들고 산불이 붙는 산으로 뛰여올라갔습니다.
사나운 불길은 온 산을 다 태워버릴듯 기승을 부리며 세차게 타번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맏이는 쇠메를 들고 불길을 맞받아나가 덮어놓고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길은 오히려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맏이는 할수없이 메를 들고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메로 바위를 까내여 불길주변에다 담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그 돌담장을 훌쩍 뛰여넘었습니다.
지팽이를 짚고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습니다.
《쯧쯧, 저렇게 미욱해서야 아무리 힘이 센들 뭘하겠니?》

아버지는 맏이를 보고 실망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뒤주가 되여 온 둘째는 바위우에 올라앉아 자기가 지고온 책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뒤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벌컥벌컥 뒤져보다가는 저 책을 뒤져보고 그다음엔 또 다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점점 더 넓게 번져 보배산기슭에 가닿았습니다.
둘째는 어느 한 책을 펴들더니 《옳지, 여기 있었구나!》하고 무릎을 철썩 치는것이였습니다.
《수화상극이니 용수소화라, 물과 불은 서로 반대이니 물로 불을 끄나니라.》
둘째는 물이 있는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는 없고 저 멀리에 저수지가 있어 그곳의 물로는 도저히 불을 끌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은 아버지가 한생 바쳐 가꾼 보배산을 단숨에 태워버릴듯 세차게 타번져 향기론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가지에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난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거렸습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또 쯧쯧 혀를 차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셋째가 나섰습니다.
그는 산꼭대기로 달려올라가 정황을 침착하게 살펴보더니 맏형에게 말했습니다.
《큰형님, 같이 입바람을 불어 저기 있는 나무들을 빨리 뽑아버립시다.》
맏이는 영문도 모르고 셋째와 함께 바람을 세게 내뿜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배산과 불이 난 옆산사이에 있던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멀리로 날려가버렸습니다.

보배산과 옆산사이에는 넓은 길이 나졌습니다.
《둘째형님, 빨리 저 옆산에다 불을 놓으세요.》
《불을 꺼야 할텐데 불을 놓다니?》
둘째는 영문을 몰라 멍청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불을 놓으세요.》
셋째는 미처 설명해줄 사이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동생의 말대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확 세차게 타오르더니 기승을 부리며 타번져오는 산불을 향해 마주 붙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산불과 마주치자 삼단같이 타번지던 산불은 그자리에서 맥없이 스러지고말았습니다.
《엉? 불로 불을 끄다니?》
첫째와 둘째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셋째는 해오라기를 타고 늘 구름이 걸려있는 저 멀리 높은 산봉우리로 날아가 비를 실은 시꺼먼 구름을 입바람으로 몰아왔습니다.
검은 구름이 불이 난 산우로 몰켜오더니 쏴쏴 비를 쏟았습니다.
그러자 칙칙, 산불은 순식간에 불티 하나 남지 않고 다 꺼지고 재만 남은 산에서는 신기하게도 푸릇푸릇 새 숲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셋째의 용맹과 슬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셋째가 아니였더라면 보배산은 불에 타서 벌거숭이산이 될번 하였습니다.
《셋째야, 너야말로 정말 쓸모있는 힘을 키워왔구나. 장하다. 내 인젠 마음놓고 너에게 이 보배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나 맏이와 둘째에게 보배산을 물려줄수 없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허나 어찌하겠느냐? 너희들은 오늘 당장 집을 떠나 다시 배워오도록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힘과 슬기가 없는 맏이와 둘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을수가 없었습니다.

맏이와 둘째는 늙으신 아버지를 어린 막내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셋째는 그날로 보배산에 올라가 자기가 가지고온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앗들은 보는 사이에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으쓱으쓱 자라올라 어느새 꽃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셋째의 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어루만지기만 해도 씨앗들은 더 빨리 싹트고 자라 고운 꽃을 피우고 향기 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신기한 힘이 있었던것입니다.

보배산은 일년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나고 향기론 열매가 열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산으로 꾸려졌습니다.

셋째의 일솜씨를 보는 아버지의 얼굴엔 노상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습니다.

산중대왕의 죽음

옛날 어느 나라의 깊은 밀림속에 호랑이가 왕노릇을 하는 동물왕국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크고작은 모든 짐승들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용맹하여 대왕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왕이 된 호랑이는 아첨쟁이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세월을 보내며 세상에 자기를 당할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왕님, 정말 대왕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호걸이십니다.》

《대왕님의 그 용맹과 슬기를 누가 감히 당하오리까.》

신하들은 저저마다 아침저녁으로 호랑이앞에 나서서 연방 추어올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첨쟁이들의 간사하고 달콤한 말을 귀에 젖도록 들어온 호랑이왕은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렸고 벌컥 성을 내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그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신하들속에서는 아첨이 더 심해졌고 저마다 발라맞추지 못해 안달이나 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룡상에 나와앉아 신하들의 문안을 받던 호랑이왕은 커다란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고나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참,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 글쎄 꿈에 황소가 쥐

구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야.》
호랑이왕은 수염을 내리쓸며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신하들은 호랑이왕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감히 어쩌지 못하고 《참으로 훌륭한 꿈이옵니다.》하고 일제히 합창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그것도 부족하여 염소신하가 채머리를 흔들며 호랑이왕앞에 난딱 나섰습니다.
《대왕님, 대왕님이 꾸신 꿈은 참으로 복꿈이로소이다. 황소란 놈은 원래 우직한 짐승이라 그냥 앞으로 냅다 나가기만 하니 쥐구멍이라도 능히 들어갈수 있사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는 담이 크신 대왕님께서만이 꾸실수 있는 꿈이옵니다. 대왕님 만세!》
호랑이왕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기특하도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기특하도다!》
호랑이왕의 치하에 깊이 감동된 염소신하는 채머리를 흔들며 눈물까지 찔끔 흘렸습니다.
호랑이왕은 마음이 흐뭇해져 공작새시중군들이 부쳐주는 부채질에 몸을 맡긴채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다음날 염소는 대번에 벼슬자리가 더 높아져 재상자리에 올라앉게 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호랑이왕은 아침문안을 드리러 온 신하들앞에서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허참,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 꿈에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시 못들어가고말더란 말이야.》
신하들은 또 머리를 조아리며 《참으로 훌륭한 꿈이옵니다.》 하고 합창하였습니다.
이번엔 너구리신하가 아장거리며 호랑이왕앞에 나섰습니다.
《대왕님, 대왕님이 꾸신 꿈은 참으로 복꿈이옵니다. 황소란 놈은 몸집이 우람찬데다가 대가리에 뿔까지 나왔

으니 그것이 걸려 쥐구멍으로는 도저히 들어갈수 없사옵니다. 이것은 세상만사를 오로지 리치에 맞게 하시는 대왕님께서만이 꾸실수 있는 꿈이옵니다. 대왕님 만세! 만만세!》

호랑이왕은 너구리의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기특하도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기특하도다!》

다음날 너구리도 벼슬이 더 높아져 참의자리에 올라앉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앉은 신하들이라 저마끔 호랑이왕을 찾아가 아양을 떨었습니다.

의술은 없으나 아첨으로 궁중의사가 된 토끼의원도 병치료는 하지 않고 매일아침 호랑이대왕에게 이런 문안만 드리였습니다.

《대왕님! 대왕님의 그 윤기나는 수염과 붉은 입술은 만년장수의 기상을 떨치옵니다. 대왕님 만세! 만세! 만만세! 》

그러면 왕은 흐뭇하여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군 하였습니다.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튼튼한 호랑이왕은 그런 말을 듣는것이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뭇짐승들을 제 발밑에 두고 부려먹는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머나먼 사막의 나라 상인들이 락타에 짐을 싣고 이곳 동물왕국을 지나게 되였습니다.

동물왕국은 다른 나라로 가는 지름길목에 있었는데 호랑이왕이 무서워서 웬만해서는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동안 지나가는 길손들이 뜸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 사막의 나라 상인들이 나타나 호랑이대

왕에게 많은 선물을 바치고 여기를 지나가게 되였던 것입니다.
호랑이왕은 먼곳에서 온 상인들의 후한 선물을 받고보니 마음이 흐뭇하여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상은 갖가지 음식들로 풍성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저저마다 호랑이왕에게 축배를 올리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왕님, 대왕님의 덕망에 산천초목도 실로 눈물을 흘리고있사옵니다.》
《대왕님, 천세만세 만년장수하옵소서.》
신하들이 이렇게 연방 떠받드는 가운데 꾀꼬리합창단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울리고 공작새의 꼬리춤이 펼쳐졌습니다.
호랑이왕은 한껏 흥이 올랐습니다.
초대된 상인들 일행에는 명의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있는 호랑이왕의 안색을 한참이나 살피더니 웬일인지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신하들과 상인들은 모두 술에 취해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틈을 타서 호랑이왕앞에 다가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대왕님, 오늘 이처럼 기쁜 좌석이지만 뒤로 미룰수 없는 긴요한 일이여서 꼭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소인이 보건대 초롱불같은 대왕님의 눈빛엔 한가닥 그늘이 비껴있사옵니다. 그것은 대왕님의 몸에 병이 침습한 징조인즉 속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것이니 침한대면 제꺽 고칠수 있사옵니다.》
《뭐? 병? 하하, 그래 용맹으로 세상을 놀래운 이 대왕이 그까짓 병을 겁낸단 말인가. 하하… 괴이한 소릴랑 말

고 어서 술이나 마시게.》
호랑이왕은 산등성이처럼 밋밋하고 늘씬한 허리와 통나무같이 굵고 억센 다리를 으쓱해보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의는 더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요망한 소리옵니다. 무쇠같은 대왕님의 몸에 병이 들다니 허참.》
토끼의원이 귀를 쫑긋거리며 말하자 염소재상이 《아무렴, 그렇구말구. 대왕님이 어떤분이라구 감히 병이…》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명의는 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다음날 상인들과 함께 떠나가고말았습니다.
호랑이왕은 춤과 노래속에 묻혀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서쪽나라로 장사하러 갔던 상인들이 다시 이곳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상인들은 이번엔 멀고먼 나라에서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대왕의 옷을 선물로 올리고 호랑이왕의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였습니다.
거기에는 상인들과 함께 온 그 명의도 있었습니다.
명의는 호랑이왕을 만나자 흠칫 놀랐습니다.
그사이 호랑이왕의 병이 더 심해진것이 느껴졌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왕국의 신하들은 여전히 《대왕님은 천세만세 만년장수할 기상》이라고 귀맛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명의는 다시 호랑이왕을 찾아가 조심스레 아뢰였습니다.
《대왕님, 소인이 들으니 대왕님의 목소리는 우뢰같으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왕님의 병이 더 깊어

진 징조인즉 소인이 약 한첩을 드리겠으니 빨리 고쳐 후환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번에도 호랑이왕은 펄쩍 뛰였습니다.

《그 무슨 당치 않은 소리인고? 전번에도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하였지만 짐은 이렇게 한해가 넘도록 건강하고 무탈하다. 헌데 오늘 또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하는건 무슨 심보인고? 그건 내 자리를 탐내서 짐을 놀래워죽이려고 함이 분명하도다. 하지만 그대는 오늘 나의 손님인지라 관대히 용서하니 어서 여기서 썩 사라지라.》

명의는 노한 호랑이왕앞에서 황황히 자리를 뜨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토끼의원은 그 명의가 가버리자 호랑이왕앞에 나서서 이렇게 아뢰였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처사이옵니다. 무엄하게도 전번에는 대왕님의 밝으신 눈빛을 흠하더니 오늘은 또 대왕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탓하니 이것은 깨끗치 못한 마음이 속에 있는게 틀림없는줄로 아옵니다.

대왕님의 바위같은 몸엔 절대로 그 어떤 병도 침습하지 못하옵니다. 》

그 말에 호랑이왕은 인차 마음이 풀려 상인들과 함께 또 술을 들며 즐기였습니다.

상인들은 호랑이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돌아간지 몇달후 호랑이대왕은 웬일인지 온몸이 지긋지긋하고 입맛이 점점 떨어지면서 몸이 수척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토끼의원에게 맥을 보게 하였습니다.

의술이 없는 토끼의원은 호랑이왕의 맥을 보고나서 또 아첨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산악처럼 억세고 웅자하신 대왕님, 대왕님의 맥은 돌격하는 군사의 북소리처럼 거세차고 우렁차옵니다. 몸이 지긋지긋하신것은 힘이 분에 넘게 용솟음치는것이옵고 입맛이 떨어지는것은 우리 왕국의 굶주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대왕님의 어지신 마음때문이옵니다. 몸이 수척해지시는것은 날렵하신 대왕님에게는 오히려 더 좋으신줄로 압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호랑이왕은 토끼의원의 말을 듣고나니 마음이 즐거워서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또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고향땅에서 물건을 마련한 상인들은 다시 이곳을 거쳐 장사길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에 대왕을 노엽힌 죄를 씻으려고 많은 뢰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명의는 호랑이앞에 나서지도 못하였습니다.

호랑이왕은 예전처럼 상인들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호랑이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차렸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은 상인들은 떠날 때 대왕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들뜬 호랑이왕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지난해에 왔던 그 의원은 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래동안 먼길을 다니기때문에 의원을 데리고다니지 않을수 없어 이번에도 실은 그 의원과 걸음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 노여워하실가봐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허허, 내가 그렇게도 무서운가? 일없네, 일없어.》

호랑이왕은 껄껄 웃으며 명의를 불러들이라고 하였습

니다.

호랑이왕은 명의를 보자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의원, 임자가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구.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 이젠 그따위 허튼 소릴 하지 않겠지?》

의원은 안타까운 눈길로 호랑이왕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고나서 또 이렇게 아뢰였습니다.

《대왕님, 이번엔 말없이 떠나려고 대왕님앞에 나서지도 않았으나 이렇게 뵙고보니 의원으로서 차마 량심이 허락치 않아 한마디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온몸에서 빛을 뿌리던 대왕님의 아름답던 털은 빛을 잃었은즉 이것은 지난해보다 병이 더 중해진 징조이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인이 칼만 한번 대면 고칠수 있사오니 깊이 통찰하시고 후회가 없도록 하옵소서.》

호랑이왕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대신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그래도 저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 너그러이 용서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이젠 짐의 몸에 칼까지 대겠다? 이놈, 네놈에게 가벼이 속을 내가 아니다. 여봐라. 이 놈을 끌어내여 멀리 내쫓고 다시는 우리 왕국지경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명의는 억울하게도 쫓겨나고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 명의는 상인들과도 같이 다닐수 없게 되였습니다.

상인들은 명의의 말이 옳은것을 알면서도 호랑이왕을 또 노엽히면 이 지름길로 다시는 오갈수 없고 큰 화를 입을가봐 겁이 나서 그를 배척하였던것입니다.

명의는 할수없이 홀로 이곳저곳 떠다니며 병을 보아주었습니다.

이럭저럭 또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웬일인지 호랑이왕은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서 늘 기분이 언짢아했습니다. 그러나 토끼의원은 매일아침마다 《천세만세 길이 만년장수할 기상》이라고 문안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호랑이왕은 토끼의원과 신하들의 이런 문안이 듣기도 싫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뒤늦게야 대왕의 병이 심해진것을 알고 별의별 진귀한 약을 다 썼으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상인들이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되였습니다.
앓는 호랑이왕은 그들을 만나자 명의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 명의가 간곳을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후 호랑이왕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드디여 몸져눕게 된 호랑이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그 명의를 당장 찾아오라고 령을 내렸습니다.
염소재상도 토끼의원도 너구리참의도 모두 떨쳐나서 산지사방을 다니며 찾아보았으나 그 의원의 행처는 도저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종달새전령이 어느 한 농가에서 병을 보고있는 그 명의를 찾아냈습니다.
종달새는 숨도 돌리지 못하고 할딱거렸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지금 우… 우리 대왕님의 벼… 병이 중하오니 급히 가…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종달새는 대왕이 앓는 증상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종달새의 청에 명의는 난색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참 안됐구나. 그러나 이젠 나도 별수가 없단다. 처음 내가 대왕님을 뵈올 때는 병이 살갗에 있었으니 침 한

대면 고칠수 있었고 다음 대왕님을 뵈올적에는 병이 피속에 있었으니 약 한첩으로도 쉬이 고칠수 있었다. 세번째로 뵈올 때는 병이 오장에 번졌으므로 칼을 대여 고쳐보려 하였는데 대왕님이 나의 권고를 뿌리쳤다. 허나 지금은 병이 골수에 들어갔은즉 고칠 방도가 더는 없구나. 그리 알고 나의 말을 대왕에게 여쭈어라.》

명의의 말을 듣고보니 종달새는 더 청을 댈수가 없었습니다.

종달새는 그길로 날아가 명의가 한 말을 호랑이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호랑이왕은 《아이쿠!》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달콤한 말에 빠져 명의의 권고를 마다하고 병을 제때에 고치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고말았구나.》

호랑이왕은 머리를 싸쥐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모로 벌렁 넘어지고말았습니다.

자기의 그릇된 처사를 못내 후회하며 안타까와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것입니다.

그리하여 용맹을 자랑하며 우쭐대던 호랑이왕은 끝내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천년바위를 이긴 물방울

높낮은 산발들이 연줄연줄 뻗어있는 깊은 산속 어느 한 봉우리에 푸른 하늘을 떠이고 우뚝 솟아있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여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다고 해서 이 바위를 천년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천년바위는 먹장구름이 번뜩이는 무서운 불칼을 휘둘러대거나 무더기비를 퍼부어도 끄떡없이 살아왔습니다.

날아가던 새도 꽁꽁 얼어떨어진다는 맵짠 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고 억세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나니 천년바위는 점점 코대가 높아져 자주 천하를 굽어보며 호통을 치군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넓으나넓은 이 세상에서 나를 당할자가 없지. 아무렴 없구말구,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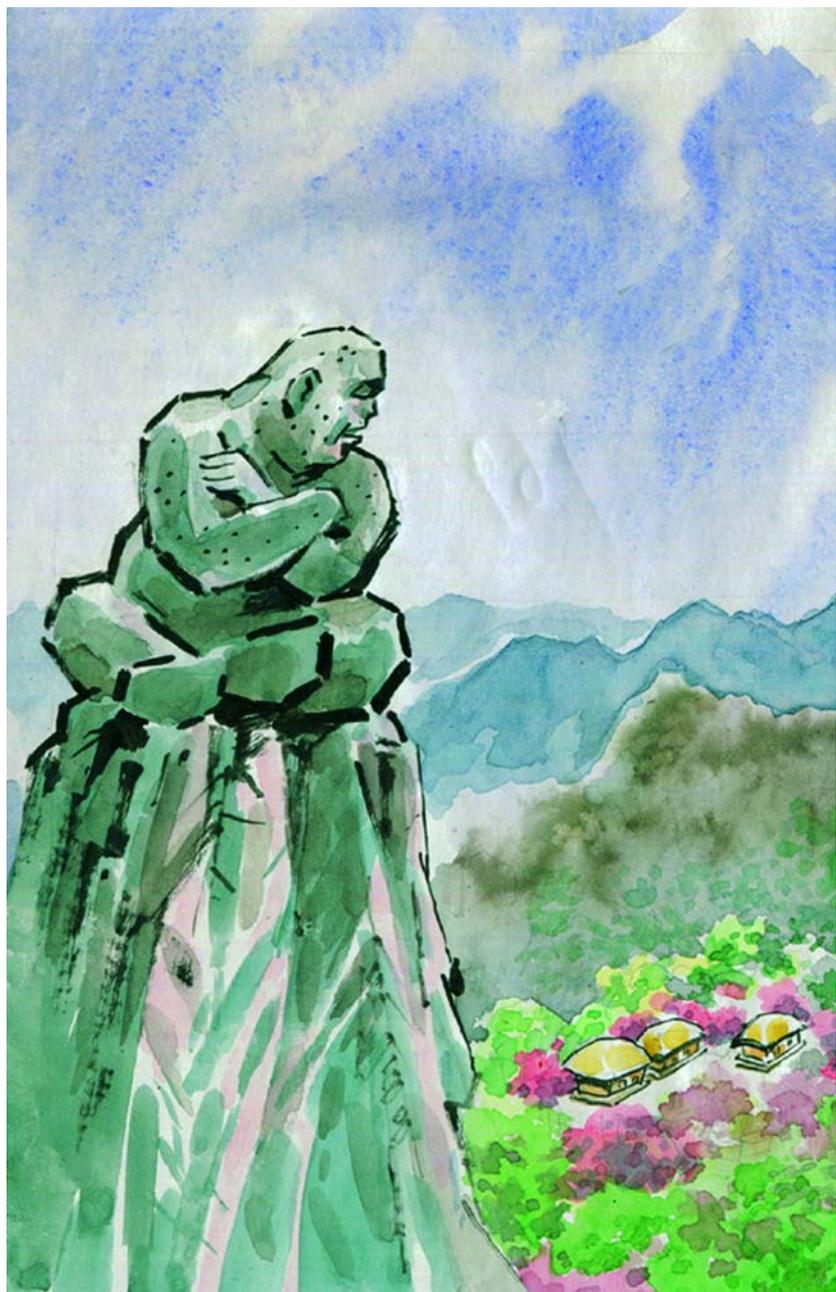
자기의 목소리가 메아리되여 멀리멀리 울려갈수록 천년바위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천년바위는 몸이 지긋지긋해지면서 이따금 몸살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천년바위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천년바위는 불어오는 맵짠 바람을 맞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번대수리가 내려앉으며 넌지시 말을 걸었

습니다.
《천년바위님은 감기에 걸리셨군요.》
《뭐? 내가 감기에 걸렸다구?》
위엄을 돋구며 으시대길 좋아하는 천년바위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체 하였습니다.
《이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몸조심하시라요.
괜히 산등성이에서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맞지 말구 아늑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금 세월엔 뭐니뭐니해도 편안히 지내는것이 장땡이라오.》
번대수리는 이런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버렸습니다.
천년바위는 번대수리가 가버리자 그의 말이 자꾸만 귀에 쟁쟁히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별치 않게 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으시시해지는걸 보아 번대수리의 말이 옳은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빼들고 사방을 두릿두릿 살피던 천년바위는 산으로 빙 둘러막혀있는 아래쪽 골짜기를 내려다보다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글쎄 골짜기에는 보기에도 부러워 견딜수 없는 아담한 동산이 펼쳐져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산비탈 한쪽에 정갈한 방울샘터가 있는데 샘터의 맑은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밑에는 아늑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굴어구에 토끼와 다람쥐며 사슴네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아있었습니다.
천년바위는 내려다볼수록 그 자리가 욕심이 났습니다.
(음, 저것들이 그래서 저기에 모여와 살았구나.
괘씸한것들,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이 어른도 바람받

이에서 사는데 보잘것 없는 조무래기들이 뭐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히 사는가 말이야.)

제혼자 두덜거리며 씩씩거리던 천년바위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요, 조무래기들아, 이제는 동굴앞에서 그만 살고 썩 물러들 가라.》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컸던지 동굴안까지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앉아 점심을 먹고 일터로 나가려던 짐승들은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습니다.

덩지 큰 천년바위가 험상궂은 얼굴로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바위어른, 물러가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엄마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가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듣고도 그 말뜻을 모르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그곳에서 살겠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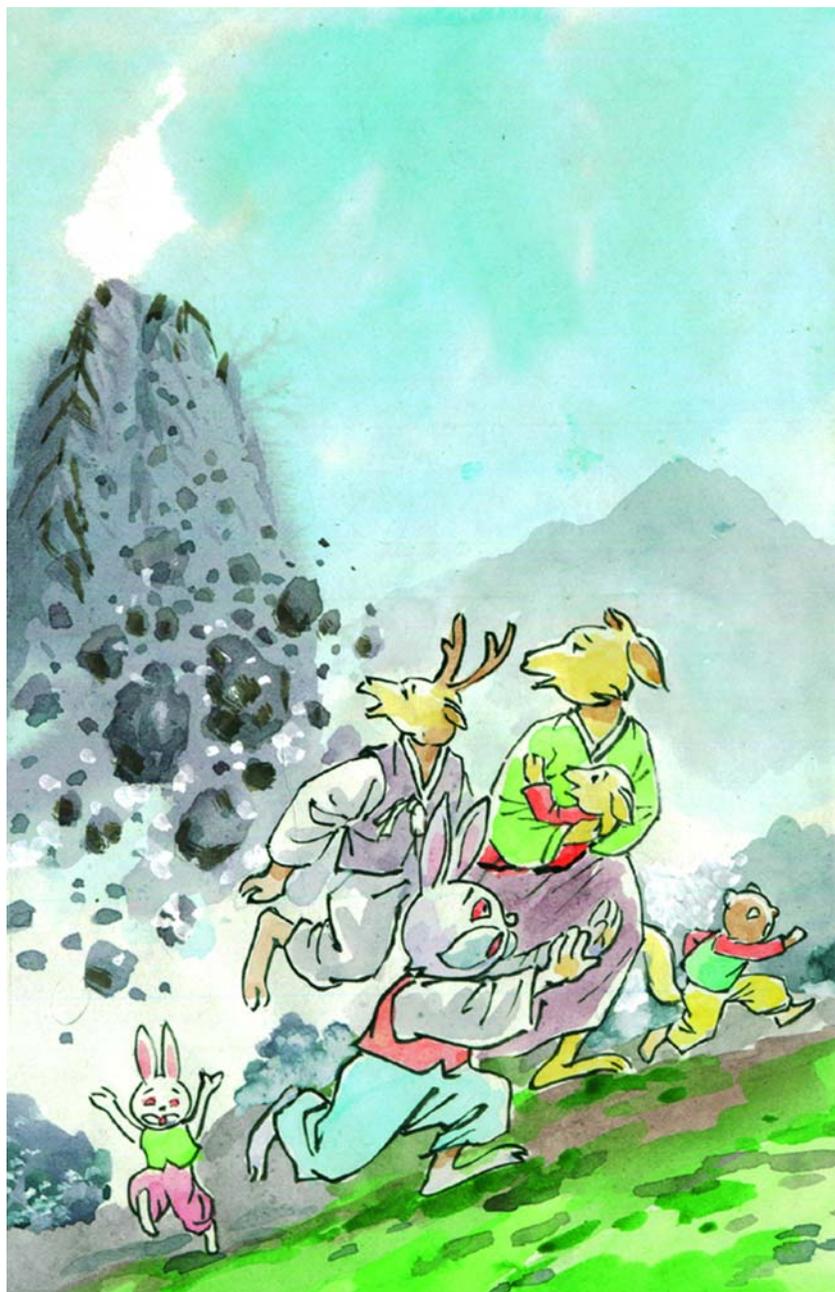
《바위어른이 살겠다구요? 이 동산은 우리 힘으로 꾸리고 사는 동산인데요. 우리를 내쫓고 살겠다는건 옳지 못한 처사인줄 압니다.》

《옳지 못한 처사라… 하하하. 이 좁버러지같은 놈들이 그래도 입은 살았다고 나불거리는구나. 목숨이 아깝거든 잔소리 말고 썩 사라들져라.》

《물러갈수 없어요. 이 동산의 주인은 우리란 말이예요.》

토끼와 사슴도 목소릴 합쳐 대답했습니다.

《흥, 넓은 세상에서 이 천년바위어른한테 맞서는 놈은 아직 없었다.

하물며 통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무래기들이 감히 대답질을 해? 좋다. 그럼 이 바위어른의 본때를 보여주마.》

천년바위는 《윽—》 하고 힘을 쓰며 밑뿌리를 들썩거리더니 동굴앞으로 쫘당탕 쫘당탕 굴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토끼와 다람쥐, 사슴네는 귀여운 새끼들을 불안고 사방으로 뛰쳐났습니다.

동굴어귀까지 굴러내려온 천년바위는 이리기웃 저리기웃 살펴보더니 군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시 명당자리로다.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벌써 바위어른한테 내주어야지 앙탈질은 왜 하는거야.》

그는 몸을 다시한번 뒤채기더니 동굴앞에 척 드러누웠습니다.

그바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꾸려놓은 토끼와 다람쥐, 사슴네 집들은 박산이 나고말았습니다.

동굴문까지 꽉 막아버려 농사를 지어 동굴속에 쌓아놓은 향기로운 풀이며 맛좋은 과일들을 꺼내먹을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원한 짐승들은 산등성이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천년바위를 원망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누운채로 히물거리며 그들을 올려다보던 천년바위가 호통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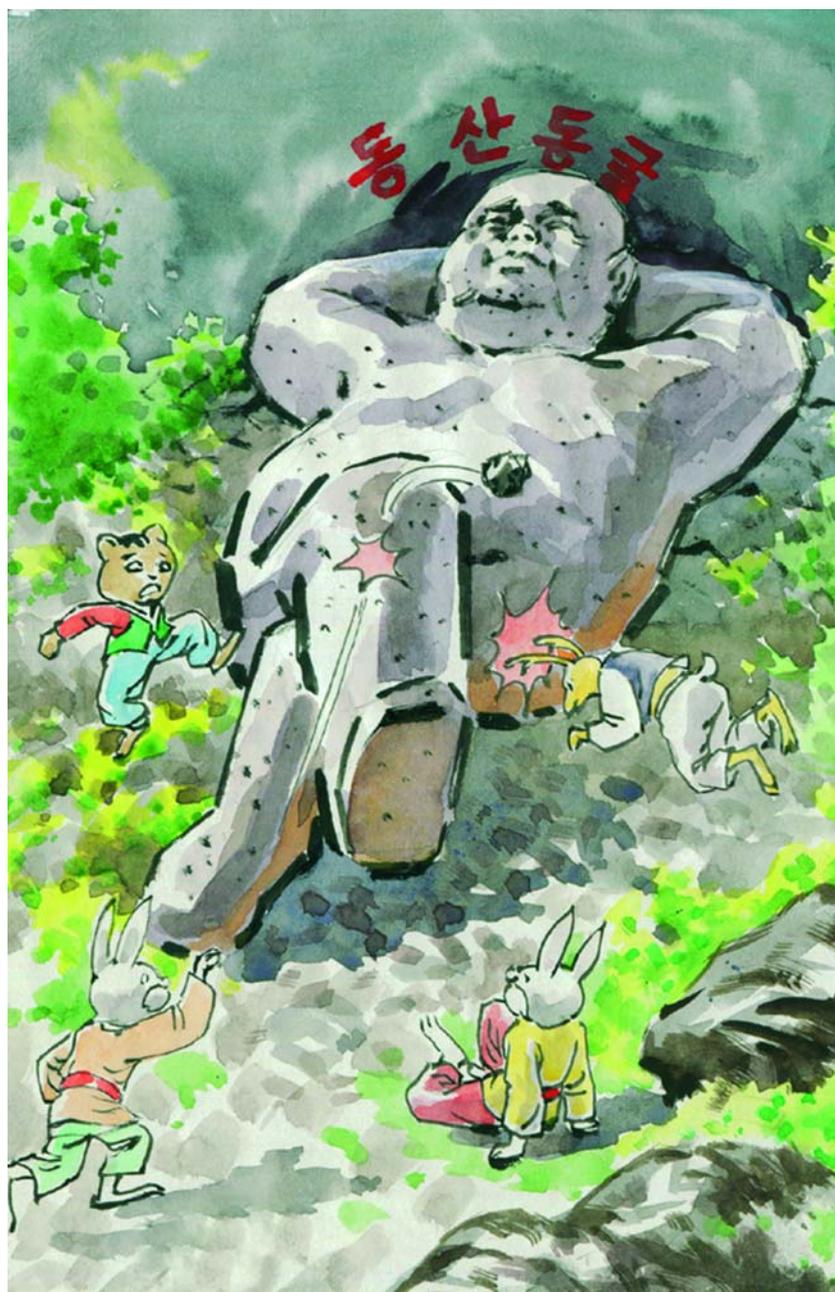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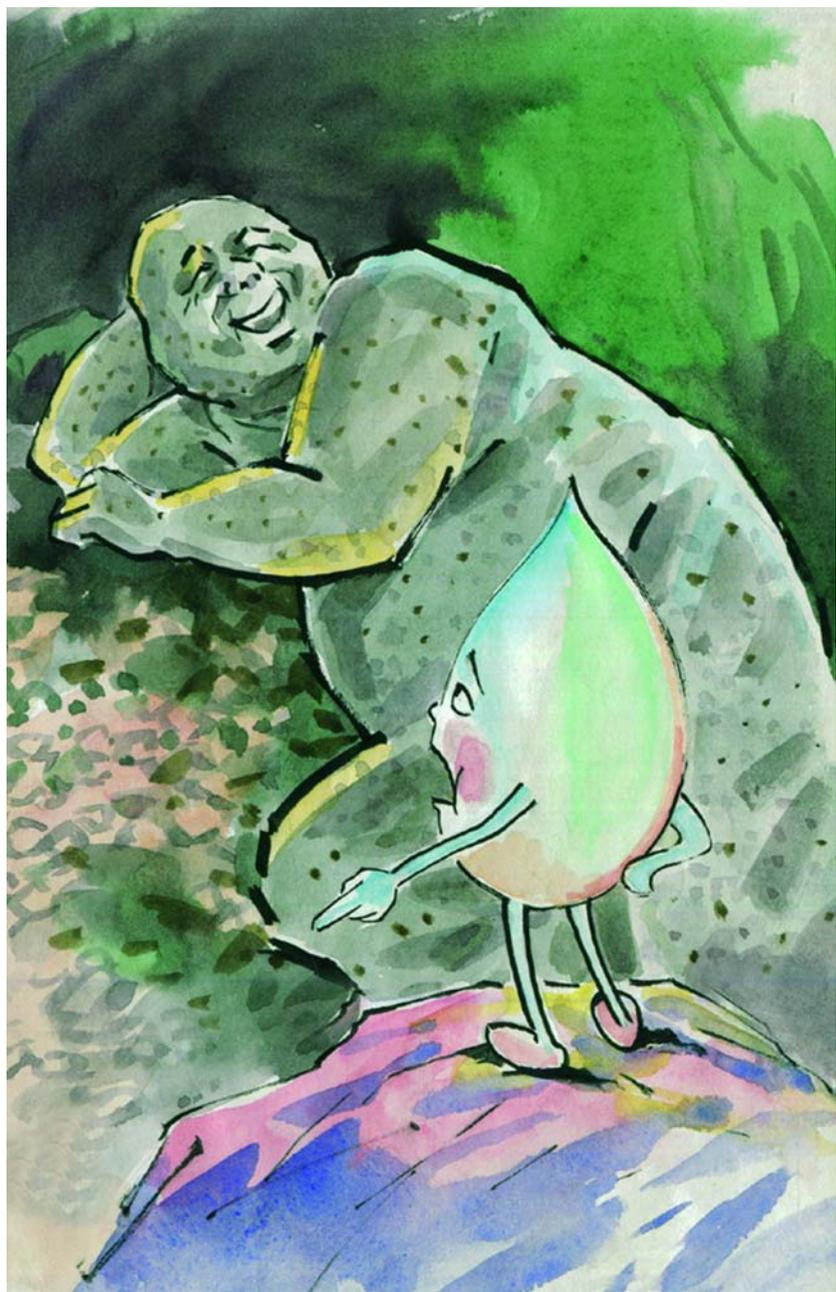
《요 맹충이들아, 이젠 여기가 내 땅이고 내 집이니 너희들은 어서 가고싶은데로 사라져라.》

《뭐라구?》

짐승들은 너무나 억이 막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치만 떨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묵묵히 내려다보던 방울샘이 천년바

동산동굴

위를 향해 당돌하게 웨쳤습니다.
《이 몹쓸 바위놈아, 여긴 우리 동산인데 네가 무엇때문에 뛰여들어 주인행세를 한단 말이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박살내고말테다.》
《뭐뭐, 나를 박살내겠다구? 금방 말한놈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이 천년바위어른과 맞서겠다는거냐? 어떤 놈이?… 썩 내앞에 나서라.》
천년바위는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네 머리우를 쳐다보아라. 나는 수억만개의 물방울을 거느리고 토끼네들과 함께 이 동산에서 살아오는 방울샘이다.》
그제서야 천년바위는 산중턱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방울샘을 알아보았습니다.
《응, 너 방울샘이로구나. 하두 오래 살면 손자가 늙어죽는걸 본다더니 나중엔 별 철딱서니 없는 놈의 꼴을 다 보는군.
힘만 세면 어디 가든지 주인이 된단 말이야.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잠자코 있는게 좋아.》
《힘이 세면 어디 가서든지 주인이 된다구?
천만에… 경우도 사리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네놈과는 맞서서 결판을 낼테다. 그래서 너의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것을 보여줄테다.》
《그럼 내가 너하고 결판을 내야 한다는거냐?
바위와 물방울의 싸움이라. 하하하, 세상엔 별난 싸움도 다 있구나.》
천년바위는 배를 들썩거리며 한참동안 너털웃음을 웃어댔습니다.
《크고작은건 대봐야 안다고 한번 견주어보자.
나는 마를줄 모르고 쉽없이 솟구치는 물방울로 네놈을 요

정내고 동산을 기어이 찾고말테다.》
《나와 겨뤄보는게 정 소원이라면 어서 네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난 잠이나 자야겠다.》
천년바위는 입이 쓰거워 더는 상대하고싶지 않은지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천년바위를 바라볼수록 방울샘은 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놈을 부쩍 들어 훌 던질수 있는 힘을 못가진것이 한스러웠습니다.
방울샘에게는 지나온 나날들이 가슴 사무치게 안겨왔습니다.
짐승들이 하루일을 끝마치고는 꼭꼭 찾아와 똘랑똘랑 떨구는 물방울을 받아먹으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던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든줄 모르고 달디단 시원한 샘물을 짐승들에게 자꾸자꾸 떨구어주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던 방울샘이였으니 오늘의 이 불행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런 방울샘에게서 용기를 얻은 엄마토끼가 먼저 나섰습니다.
《애들아, 우리도 저놈과 맞서싸우자. 돌멩이 세례를 안겨 몰아내자.》
그러자 짐승들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짐승들은 천년바위놈을 향해 돌을 힘껏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천년바위는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었습니다.
《으하하하, 꽤 용감무쌍들한데. 그런데 좀더 힘껏 때려라. 막 간지러워죽겠다.》
《뭐라구, 이놈아… 》

어진 사슴할아버지도 격분을 참지 못해 천년바위의 가슴팍에 뛰여올라 딱딱한 발톱으로 차기도 하고 삐죽한 뿔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짐승네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 영차영차 힘을 합쳐 천년바위를 떠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모두의 힘도 어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으나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겠구나.》
사슴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자 모두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했는지 다람이네 막내가 발딱 일어섰습니다.
《저 건너산 곰골에 가서 힘장수로 소문난 큰곰아저씨를 데려오겠어요. 큰곰아저씬 저 바위놈을 내쫓을수도 있을거예요.》
얼마 있어 몸집이 우람찬 큰곰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짐승들을 숙보는거냐. 내 본때를 보여주마.》
큰곰은 숨을 돌릴사이도 없이 어깨를 들이대고 천년바위를 떠밀었습니다.
역시 천년바위는 옴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독같이 난 큰 곰은 아름드리돌을 들어 《꽝》 하고 천년바위를 답새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짐승들은 와들짝 놀랐습니다.
《이 얼뜨기놈아, 따끔거리지도 않는다.
이제는 내가 자야겠으니 더 시끄럽게 굴지 않는게 좋겠다.》

천년바위는 눈을 스르르 감더니 인차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의 코고는 소리에 산발들이 드릉드릉 울렸습니다.

큰곰은 씩씩거리며 천년바위를 바라보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음, 저런 무지막지한놈 하고는 애당초 맞서지 말아야지…》

그러는 짐승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방울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놈과는 하루이틀 싸워서는 안되겠어.

저놈은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어서 다른 고장에 가서 동산을 꾸리고 살며 기다리거라.》

엄마다람쥐가 방울샘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울샘아, 산너머에 동산을 꾸릴테니 너도 샘줄기를 타고 오려무나. 힘장사로 소문난 큰곰도 사슴할아버지의 뾰족한 뿔도 어쩔수 없는 저놈을 네 물방울로 어쩐다고 그러니?》

《아니, 이런놈 하고는 한두번 싸워 안되겠어.

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싸우면서 이놈의 약점을 찾아보겠어. 그래서 기어이 바위놈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말테다. 벌써 나무잎이 떨어지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은 어서 새끼들을 데리고 떠나거라.》

그리하여 짐승들은 방울샘과 헤여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든 동산에서 쫓겨나 올망졸망한 새끼들을 거느리고 허덕거리며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짐승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방울샘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고이는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점도록 바라보던 방울샘은 입을 옥물고 눈길을 돌

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방울을 방울방울 빚어 천년바위놈의 가슴 한복판에 면바로 똑똑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한방울, 두방울, 세방울… 방울샘이 자꾸만 물방울을 떨구어도 천년바위는 그냥 쿨쿨 잠만 잤습니다.

큰곰이 아름드리 돌로 답새겨도 끄떡하지 않던 바위니 물방울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방울샘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한 싸움이니 석삼년이 지나고 몇십년이 걸린다해도 물러설수 없었습니다.

아니 일생을 다 바친대도 좋았습니다.

방울샘이 물방울을 떨구기 시작해서 며칠이 지나자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방울샘은 겨울에도 물방울을 얼구지 않고 똘랑똘랑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한해가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고개를 넘어 엄마토끼가 방울샘의 일이 걱정되여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슬같은 눈을 굴리며 여전히 물방울을 떨구고있는 방울샘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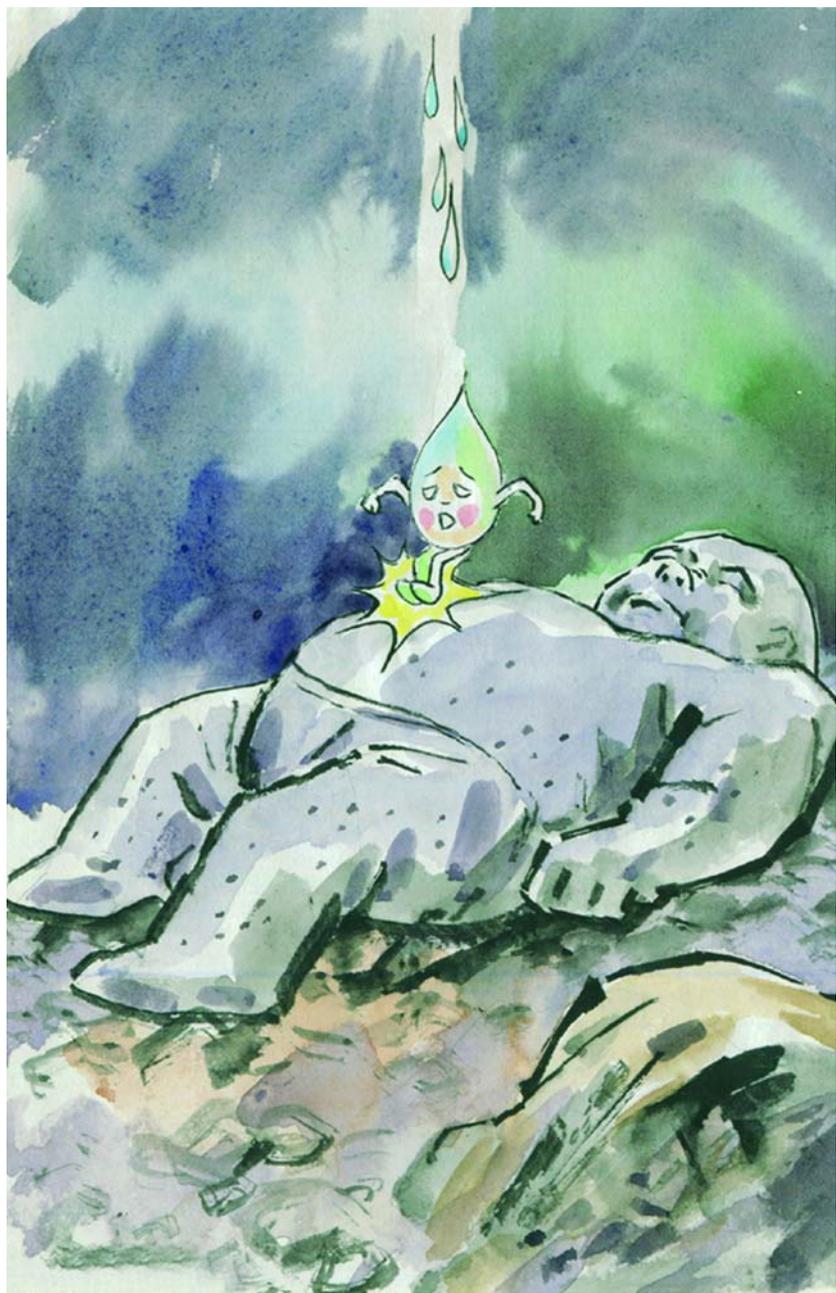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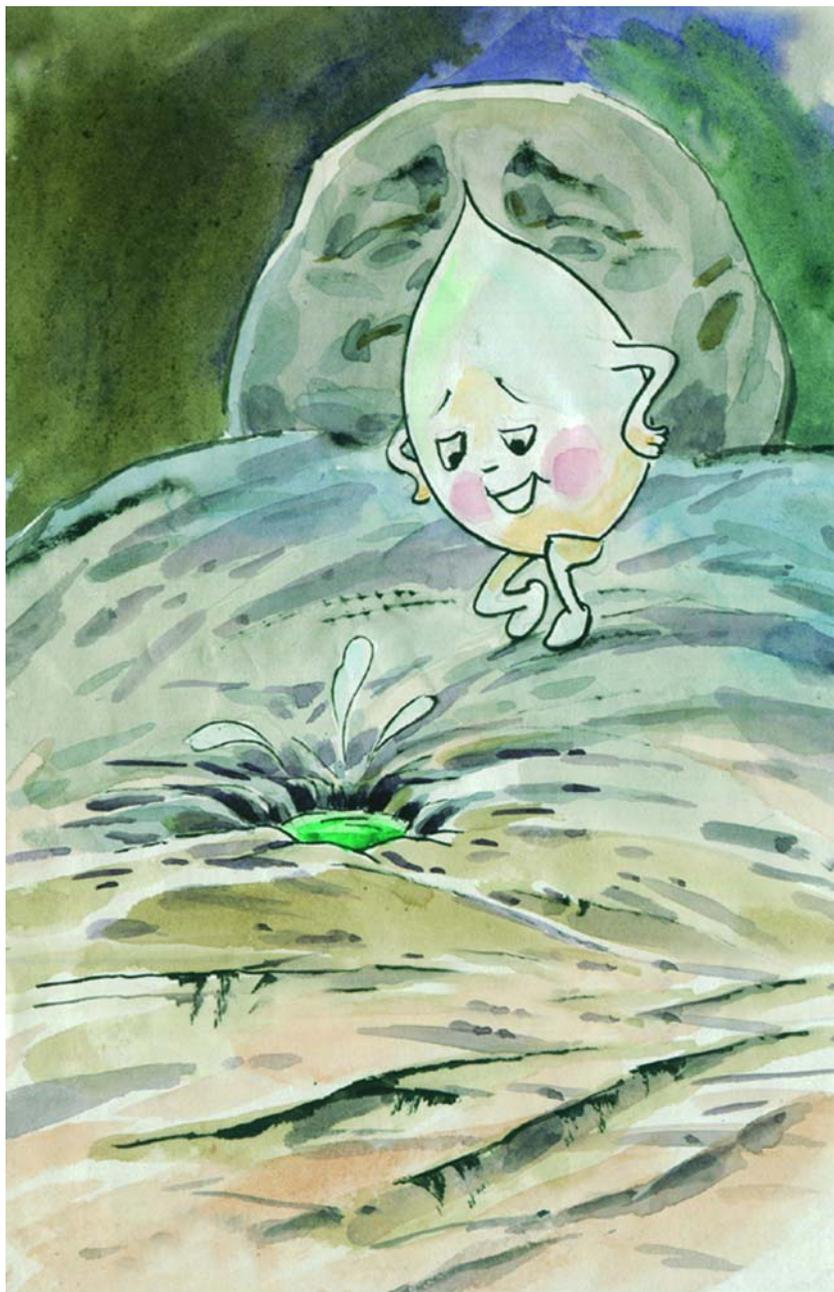
《방울샘아, 옹근 한해가 지났는데도 너의 일이 보람이 있는것 같지 않구나.

이제라도 우리 동산에 가서 살지 않겠니?》

그러나 방울샘은 엄마토끼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시작한 일을 도중에서 그만두지 않겠어. 십년이건 백년이건 끝장을 볼 때까지 해볼테야.》

엄마토끼는 방울샘의 결심을 더는 돌려세울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네 동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울샘은 물방울을 떨구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

속했습니다.
이렇게 몇해가 지나갔습니다.
방울샘은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이 처음처럼 기운차게 물방울을 떨구었습니다.
물방울은 더 크게 빚어 떨구다못해 어떤 때에는 줄줄이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날이였습니다.
천년바위를 내려다보던 방울샘은 그만 환성을 지를번 하였습니다.
글쎄 천년바위의 가슴팍에 드디여 알릴듯말듯 콩알만한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울샘은 눈을 슴벅이며 보고 또 보았습니다.
분명 자기의 물방울들이 뚫어놓은 구멍이였습니다.
(아, 이게 몇해만인가?)
방울샘은 기쁨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자기의 고달팠던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힘겨웠으나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꼭 이길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기운이 천백배로 솟아났습니다.
그는 물방울을 더욱 힘차게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없었습니다.
뚫려놓은 이 구멍때문에 일을 끝맺기 전에 천년바위가 잠에서 깨여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다음날 천년바위가 갑자기 《끙—》하고 몸을 뒤척거리더니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것이였습니다.
《왜 몸이 간지러울가? 번대수리가 찾아온게 아니야?》
그는 한쪽눈을 게슴츠레 뜨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울샘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오라, 네가 뗠구는 물방울때문이였구나.
내가 몇해동안 잠을 잔것 같은데 너는 지금도 날 어째보겠다고 쓸데없이 힘을 빼는구나. 이젠 그만하는게 좋겠…》
천년바위는 잠에 취해 말끝도 채 맺지 못하고 몇번 몸을 뒤척거리더니 또다시 곯아떨어졌습니다.
간이 콩알만 해서 내려다보던 방울샘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호— 내쉬며 일을 서둘렀습니다.
물방울을 더욱 크게 빚어 뗠구니 바위에 생긴 구멍은 점점 커졌습니다.
콩알만큼 생겼던 구멍은 도토리알만해지고 인차 또 밤알처럼, 사과알처럼 커졌습니다.
그는 힘든줄 모르고 물방울을 뗠구어서는 점점 커지는 구멍과 얼기설기 뻗어있는 금들을 통해 천년바위의 온몸을 적시였습니다.
그러자 천년바위는 속까지 물에 푹 젖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였습니다.
찬기운을 풍기며 지나가던 하늬바람이 멈추어서서 물었습니다.
《방울샘아, 넌 무엇하러 겨울에도 쉬지 않고 오랜 세월을 하루와 같이 물방울을 뗠구는거냐?》
《음, 저 천년바위놈을 요정내려고 그런다.》
《아니, 천년바위라니?…》
하늬바람은 깜짝 놀라며 동굴앞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음, 천년바위가 여러해동안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여기에 있었구나. 황소도 날려보낸다는 장수힘을 가진 우리 바람네 집안에서도 수천수만년동안 저놈을 어쩌지 못했는데 너의 약한 힘으로 어떻게 요정낸다고 그러니?》
《응, 너희들은 어쩔수 없다지만 난 저놈을 요정낼 자

신이 있다. 벌써 천년바위의 한가슴에 구멍을 뚫러놓았거든.》
《뭐라구? 너희들의 물방울로 바위에 구멍을 뚫러놓았단말이냐?》
하늬바람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던지 몸을 날려 천년바위가슴에 뚫려진 구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던 그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정말이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너의 힘이 굉장하구나. 방울샘아,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니? 》
《네가 나를 도와주겠다구?…》
《응, 바위에 구멍까지 뚫러놓은 너를 보니 나도 막 용기가 나는구나.》
방울샘은 하늬바람의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던 그의 머리에는 번개치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옳지, 천년바위의 몸에 들어간 물방울들을 얼구면 그놈의 속안이 편안치 않을거야. …)
천년바위놈의 약점을 타서 요정낼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하늬바람아, 나를 도와주겠다니 고맙다.
지금 천년바위놈의 몸에 슴새여들어간 물방울을 꽁꽁 얼구어주려마.》
《아, 그거야 못하겠니. 식은죽먹기지.》
하늬바람은 방울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날개를 막 저었습니다.
순식간에 맵짠 바람이 쏟아져나오며 천년바위의 속에까지 들어간 물방울들을 모조리 얼구어버렸습니다.
그바람에 천년바위몸이 부풀어올라 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기를 기다리고있던 방울샘은 그 짬으로 물방울들을 계속 들여보내여 자꾸자꾸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년바위몸안에는 굳은 얼음이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천년바위는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앉았습니다.

《아, 내 가슴에 칼을 박는구나. 칼로 막 비트는구나. 이게 어떤 놈이냐?》

천년바위는 몸을 비틀며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하하하, 그게 나다. 이 방울샘이 하늬바람의 도움을 받아 물방울로 만든 칼이란 말이다. 그래 맛이 어떠냐?》

방울샘은 야멸차게 내려다보며 쏘아주었습니다.

《뭐, 네가 물방울로 만든 칼로 찔렀다구? 어디 보자, 이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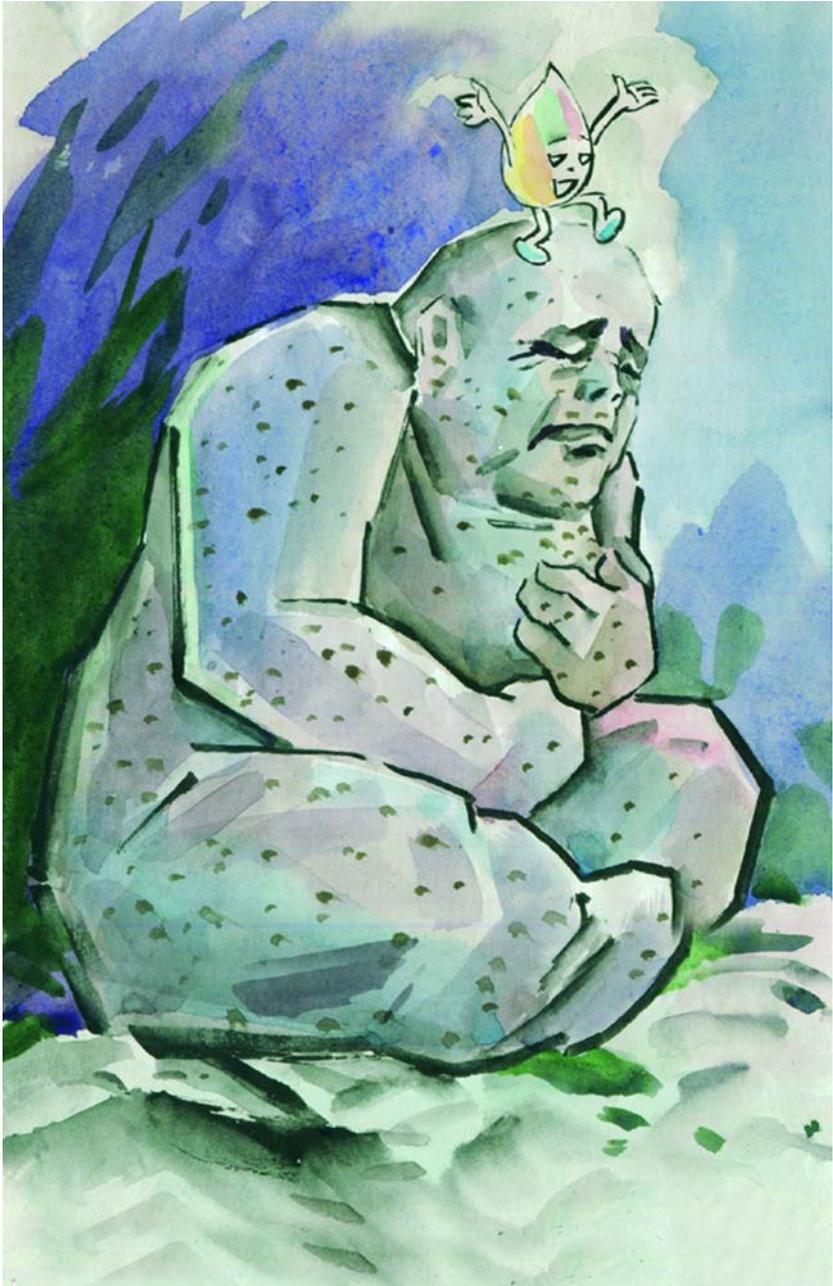
성이 나서 《윽》하고 힘을 주던 천년바위는 그만 《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년바위놈아, 조금만 참아라. 내 얼음칼맛을 마저 똑똑히 보여줄테다.》

그제야 배를 그러안고 이리뒤척 저리뒤척거리며 어쩔줄 몰라 쩔쩔매던 천년바위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을 깔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구나.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 미처 몰랐구나. 아, 그렇지만 바위는 바위고 물방울은 물방울이겠지. 어디 끝까지 해보자.》

천년바위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지막힘을 모아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하늬바람은 방울샘의 신호를 받고 바람날개를 더 세게 휘

저었습니다.

다시금 물방울을 줄줄이 떨구고나서 잠시 숨을 죽이고 그 천년바위를 눈여겨보던 방울샘이 속으로 《하나, 둘, 셋》까지 세고나서 귀를 막았을 때였습니다.

순간 《꽝》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꾸 커지는 얼음으로 팽팽히 부풀어오르던 천년바위가 드디여 터져나가는 소리였던것입니다.

귀가 멍멍하여 잠시 눈을 감고있던 방울샘은 다시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년바위놈의 몸뚱이가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진것이였습니다.

천연동굴도 휑하니 열려졌습니다.

천년바위놈을 끝장낼수 있다고는 믿었지만 이렇게 형체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요정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입니다.

《고맙다. 나의 물방울들아! 드디여 우리는 천년바위놈을 끝장냈구나!》

방울샘은 행복의 동산을 다시 찾은 기쁨에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요란한 산울림소리를 듣고 산너머에서 살던 짐승들이 늙은 엄마짐승들을 부축하고 넘어왔습니다.

곰골에 살던 큰곰도 어슬렁어슬렁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천년바위는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동굴!

그앞에 나타난 동산!

기쁨에 겨워 방울샘을 한참동안 눈시울이 뜨겁게 바라보던 짐승들은 원쑤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가

르쳐주고있는 방울샘을 에워싸고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한바탕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방울은 작아도 굴함없이 싸울 때
바위를 뚫는다네 싸워이긴다네

뜻이 깊은 그들의 노래소리는 맑게 개인 하늘가 저 멀리로 울려갔습니다.